

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000-001254-01

근대문화유산 조각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

2011



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000-001254-01

근대문화유산 조각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

2011

이 발간물의 내용은 용역 결과 보고서로
문화재청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제할 수 없습니다.

제 출 문

문화재청장 귀하

이 보고서를 <근대문화유산 조각분야 목록화
조사연구>의 최종 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11. 9

수행기관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목 차

1. 서론	1
가. 조사연구 목적	2
나. 조사연구 내용 및 방법	3
다. 조사단 구성	4
2. 근대 조각 개관 및 연표	7
가. 개관	8
나. 연표	18
3. 목록화 과정 및 등록기준안	31
가. 조사과정	32
나. 목록화 선정기준	33
다. 등록기준안	34
4. 목록화 작품 현황	35
가. 작품 현황	36
나. 세부 목록(연대순)	39
5. 목록화 조사보고서(연대순)	45
6. 결론 및 제언	175
가. 결론	176
나. 제언	178
부 록	181
1. 1차 조사 작품 현황 및 총 목록(작가순)	182
2. 일제강점기 동상제작 목록	210
3. 조선미술전람회 조각 부문 입상작 목록	212
4.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조각 부문 입상작 목록	218
5. 참고문헌	223
6. 찾아보기	226



1. 서론

- 가. 조사연구 목적
 - 나. 조사연구 내용 및 방법
 - 다. 조사단 구성
-



1 서론

가. 조사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근대기(대한제국기~1960년)까지 제작된 조각품의 기초조사와 목록화를 바탕으로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여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에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근대기에 제작된 조각 작품은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근대를 보는 눈>을 시작으로 간헐적인 전시를 통해 발굴되고 정리되었으나, 전체 대상 작품을 망라하고 일률적인 체계를 갖추어 목록화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건축 분야는 이미 목록화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그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중장기 보존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근대미술사상 조각은 근대의 문화상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과 회화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근대기 조각 작품의 제작현황을 파악하고, 목록화 함으로써 향후 근대기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보존의 기초자료로 삼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 근대 문화유산 조각부분 목록화와 연구를 통해 근대 조각의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근대 조각 문화유산은 미술문화재로서 보존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멸실되거나 방치되어 온 것이 많다. 특히 나무나 석고, 청동으로 제작된 조각 작품들은 식민지시기와 한국 전쟁기를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유실되거나 파손되어 보존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왕릉의 석상이나 인물 동상, 각종 기념조각들은 단독 미술작품과는 달리 도시나 기념장소의 실외에 위치하여 그 관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각 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작성과 문화재 지정을 바탕으로 보존과 관리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조각 작품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객관적인 기록 작성은 향후 근대기 조각 관련 연구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한다.

1990년 이후 근대에 관한 역사학과 미술계의 관심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술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근대 문화는 오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독특한 양상을 띠고 펼쳐져 왔다. 근대기에 제작된 조각 작품들은 변화하는 미술에 대한 관념과 사회상을 다른 어떤 시각 이미지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각은 한국근대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 근대조각 작품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미술문화재의 가치를 일반에 널리 알릴 수 있으며, 유족 등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장가들에게도 그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

나. 조사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그 대상과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다.
 - 연구대상 : 본 조사는 근대기(대한제국기~1960년)에 제작된 조각을 대상으로 한다. 조각이라 함은 평면예술이 아닌 입체와 공간에 놓인 시각조형물을 의미하며, 실용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예와 구분된다. 목록화 대상 작품은, 역사인물과 관련된 위인 동상과 기념물, 예술성이 뛰어나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미학적 가치를 지닌 것, 희귀하거나 보존할 만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단 그 기능과 예술적 가치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종교 관련 조각품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작품의 희소적 가치가 있는 경우 포함한다.
 - 공간적 범위 : 한국에 소재한 조각 작품을 기본으로 조사한다. 박물관·미술관과 개인 소장가들의 작품 뿐 아니라 동상 및 탑 부조와 같은 기념조형물도 포함한다.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는 조각에 대한 관념과 시각문화 체계에 변화가 두드러진 1897년 대한제국기를 시작으로 1960년까지 제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제국기는 본격적인 근대 국가체제를 추구하였으며, 새로운 시각 이미지를 적극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미술사에서 의미 있는 시대이다.
- 사회나 국가적 가치를 지니는 조각 작품을 선별하는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 국가, 국가기관에서 제작한 기념물
 -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것
 - 지역 단위에서 특히 의미를 지닌 것
- 자료적 가치를 지니는 조각 작품을 선별하는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 미술운동, 단체의 상징성을 띤 작품
 - 최초로 새로운 기법이나 재료를 도입한 작품
 - 주요 전람회 수상작

- 희소성이 있는 작품
-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미술문화재 선별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미술운동을 끌어낸 계기가 된 작품
 - 양식변화의 계기가 된 작품
 - 시대양식 및 시대성을 반영한 작품
-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법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 목록화 작업은 축소 선별하기보다는 가급적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 소장의 조각품을 조사, 발굴하는 데에 비중을 둔다.
 - 기초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근대 조각사를 개관하고, 이에 관련된 주요 연표를 작성한다.
 - 한국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며, 현존하는 작품이 적더라도 당대에 활발한 활동을 했던 작가의 경우도 포함시킨다.
 - 작품조사에는 작가, 작품명, 제작년도, 재료 및 기법, 규격 등 작품 서지사항을 정확히 기록한다.
 - 현재 소장처나 소장자에 관한 정보와 작품의 관리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록문화재 선정 시 전문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용역 내용의 내실화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원로급)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및 자문을 의뢰한다.

다. 조사단 구성 (가나다순)

○ 자문위원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 서울대학교 교수, 문화재 위원)
윤범모 (경원대학교 교수)
정준모 (국민대학교 교수)

○ 연구진

책임연구원 김현숙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회장, 덕성여대 교수)
연구원 강민기 (서울대학교 강사)
김미정 (홍익대학교 강사)
김이순 (홍익대학교 교수, 문화재 전문위원)

조은정 (한남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강은아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김승익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2. 근대 조각 개관 및 연표

가. 개 관
나. 연 표



2 근대조각 개관 및 연표

가. 개관

한국미술사에서 근대의 기점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으나, 대체로 1876년 개항 이후의 시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50년대 중반기까지 전개된 미술을 근대미술로 간주한다. 1876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 문명개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부국강병을 위한 노력이 전통사회에 비해 활발해지면서 미술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세계박람회에 미술품을 출품하면서 식산흥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가 하면, 순수 미술품을 공적 공간에 전시하였고 체계적인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전통사회에서 ‘書畫’로 간주되던 영역이 ‘美術’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술이라는 독립된 영역에 다시 회화, 조각, 공예, 건축이라는 장르 구분이 생겼고 각 장르의 전문가가 등장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조각은 공예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기에 순수 미술장르로서 ‘조각(sculpture)’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조각가들이 다루는 영역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전통 사회에서 조각은 주로 불상이나 무덤의 석물이었고 이러한 영역은 공예와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조각가’가 아니라 ‘장인’이었다. 근대사회에서 조각이 공예와 분리되면서 실용성보다는 아름다움 혹은 예술가의 창의성이 작품의 가치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국미술사에서 근대조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김복진이 동경미술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귀국한 1925년경이다. 조각의 본격적인 등장 시기가 회화에 비해 늦었는데, 이는 전통사회에서 회화의 영역과 조각의 영역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회화는 정신적 활동 영역으로 인식되었지만, 조각의 영역이었던 불상 제작이나 석물제작은 장인들의 육체적 활동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며 근대기에도 불상제작이나 석물제작은 여전히 공예와 분리 불가능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근대기에 조각을 전공한 미술가들은 대부분 동경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대표적인 조각가로는 1920년대에 유학을 갔던 김복진, 김두일, 문석오가 있으며 1930년대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각을 전공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김경승, 윤승욱, 김종영, 조규봉, 윤효중, 박승구 등을 들 수 있는데, 여전히 화가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였다. 이와 같이 조각가들의 유학 시기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조각계의 상황은 크게 2시기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작품의 경향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대부분 동경미술학교에서 가르치던 아카데미한 사실재현의 방식을 따라서 소조기법으로 인물상을 제작하였다. 다만 1930~40년대에 유학을 했던 윤효중과 박승구가 목조각을 배워왔으나, 소조의 기법으로 인물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

는 방법이 한국근대조각의 대세였다. 새롭게 조각을 배워온 조각가들이 제작한 작품들은 전통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누드 인물상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초상조각이었다. 전통사회에서 제작되던 불상, 무덤 석물, 혹은 장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미술장르로서의 조각이라는 순수미술이 형성된 것이다.

사실재현적인 인물상은 두상, 흉상, 전신상의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인물상들은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같은 공식적인 미술전람회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점차 일반인들의 인식에도 순수미술로서 조각이라는 영역이 확고해졌다. 그러나 당시 조각의 재료는 대부분 석고가루였기 때문에 이때 제작된 작품들은 대부분 파손되었다. 다만 조선미술전람회 도록에 실린 흑백 도판사진을 통해서 근대기 조각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고, 극히 적은 수의 작품만이 현존하고 있다.

한편으로 근대사회에서 동상이라는 영역이 발달하게 된다. 사회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청동상으로 제작하여 학교나 공원과 같은 공적 공간에 세웠다. 전통사회에서는 비석과 같은 문자적인 표현방식으로 위인을 기리던 방식이 근대사회에서는 주인공의 외모를 재현해서 공적 공간에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리는 관습이 형성된 것이다. 동상은 청동이라는 재료의 영구성을 전제로 한 인물상이지만 태평양전쟁 동안에 거의 대부분 공출되어 현재는 조성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광복 이후에 재제작한 동상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동상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광복과 더불어 미술대학이 설립되면서 조각계의 상황은 나아진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미술교육이 가능하면서 조각전공자들이 늘어났으며 작품의 경향도 사실재현적인 경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표현재료도 석고에서 벗어났다. 흙을 구워 제작하는 테라코타 작품이 등장했는가 하면 고철을 모아 아상블라주(assemblage) 기법으로 제작한 철조 작품이 등장했다. 그러나 해방공간에서 조각가들은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해 월북하기도 했고 윤승옥의 경우처럼 6·25전쟁 중에 납북되기도 하여 1950년대 전반기까지의 조각은 광복 이전의 빈약한 상황으로부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6·25전쟁을 치르고 난 직후의 조각계는 오히려 광복 이전의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제작되었던 조각품들은 전쟁의 화마를 피해갈 수 없었다.

6·25전쟁을 겪은 후 조각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김경승, 김종영, 윤효중, 3인 뿐이었다. 이들은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미술대학에서 이루어진 조각교육은 동경미술학교의 조각교육과 크게 다를 게 없었고, 그 영향이 1950년대 후반에 서양조각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1949년에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석고로 제작된 사실적인 인물상이 주가 되었고 공적 공간에 역사적으로 기릴 인물을 동상으로 만들어 세워두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한편, 6·25전쟁을 겪게 되면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전쟁 관련 영웅들의 동상이 앞다투어 건립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등장하는 인물이 권진규이다. 그는 광복 직후 아직 일본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일본에 건너가 무사시노미술학교(武藏野美

術學校)에서 조각을 공부했는데, 아카데미한 사실적 표현에서 벗어나 주관성이 가미된 인체표현을 시도해서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했다.

한국의 미술대학에서는 여전히 근대기 동경미술학교의 교육방식을 따라 조각교육이 행해졌지만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서구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작가들 사이에 새로운 방법론이 모색되었다. 헨리무어(Henry Moore)나 브랑쿠지(Constantin Brancusi) 같은 서구의 조각을 수용하여 인체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을 시도했으며, 철조라는 새로운 조각기법을 수용하여 추상조각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했던 철은 고철이어서 작가들이 작품을 보관하려는 의지가 약했고 현실적으로도 보관할 공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950년대 말엽의 작품들 역시 대부분 현존하지 않는다. 다행히 김종영, 송영수, 오종욱의 철조 작품이 극적으로 남아있다. 앞서 약술한 시대적 개관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서구식 근대조각의 태동과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서구에서 인체 조각이란 인간 정신의 승리 내지는 근대정신의 표현체였다. 반면 식민지 조선의 조각가들은 서구적 근대의 기호이자 표상으로서 인체를 받아들였다.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자 김복진은 동경미술대학교 조각과 학생 신분으로 제5회 제국미술전람회(1924)에 <여인입상(女)>으로 입선하였다. 작가 스스로 「조각생활 20년기」에서 “지방에서 근친결혼 문제로 도망을 왔다는 여자를 구하여 다가 로댕의 이브를 본따 제작”한 것이라고 밝힌 바처럼, 김복진은 프랑스 조각의 이상과 기법을 수용하고 모방했던 일본 조각계에서 교육을 받았다.¹⁾

일본의 제국미술원전람회(帝國美術院展覽會)와 문부성미술전람회(文部省美術展覽會)를 뒤덮은 몇몇 유형 중에 로댕(Auguste Rodin) 계열의 인체조각이 일군을 형성하였는데, 조선미술전람회 조각부에 출품된 작품들도 대체로 로댕 계열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었다. 김복진을 비롯한 조선미술전람회의 조소예술가들 대부분이 일본 유학생 신분으로 출품하였으며, 김복진의 제자들이 다수를 이루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은 조선미술전람회 개최 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근대조각의 활동무대는 조선미술전람회와 동상 조각의 두 영역이었다. 1922년에 창설된 조선미술전람회에 ‘조각’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제4회전인 1925년부터였는데, 1932년 제11회부터 공예부에 통합되었다가 다시 1935년 14회부터 3부인 공예부를 조각부로 바꾸어 조선미술전람회가 막을 내린 1944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조각부’라는 명칭으로 지속되었다. 조각 장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회화에 비해서 지연된 이유는 조각가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도 큰 원인이지만, 조각과 공예가 확연히 구분되지 않았던 당대 인식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구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생과 전통 불교조각을 제작하는 장인들로 구성되어 조각과 공예의

1) 이경성 외, 『김복진의 예술세계』, 모란미술관총서1, 열과알, 2001. 참조.

명확한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본의 초기 조각계처럼 우리의 경우도 근대적 미술 장르로서 조각이 안착하는 데에는 과도기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한 한국인 조각가는 38명 정도였다. 창씨개명으로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가 참여하였을 것이다. 최초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두각을 보인 한국인 작가는 김복진과 전봉래이다. 4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김복진은 자신의 얼굴을 소조하여 석고로 떠낸 <3년전>으로 3등상을 받았다. 이후 김복진은 작가로서, 근대기 한국의 조각가를 양성하는 스승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서 서구식 교육을 익힌 김복진은 국내에서는 고려미술연구소, 토월미술연구회, YMCA 미술부 등에서 서구식 조각을 배울 길 없던 한국 청년들에게 조각을 가르쳤다. 김복진 미술연구소를 개설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신진 조각가들을 배출하였다. 1936년 제15회 조선미술전람회를 본 김경준이 “특히 조각에 있어서는 김복진 씨의 숙전(塾展)같은 기분을 주며 제작(諸作)을 압도하고 있다. 마치 세존이 오백나한을 거느린 것처럼 실(室) 중앙에 불상을 놓고 제자들 작품들이 좌우로 군데군데 놓인 것을 보고, 씨의 후배를 위한 노력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한 것에서 잘 드러나듯 김복진의 후학 양성 활동은 한국 조각계 형성에 기틀이 되었다.²⁾

조선미술전람회 도록을 기본으로 하여 살펴보면, 화단에서 활동한 조각가들은 김복진과 같은 동경미술학교 출신들, 국내에서 김복진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군,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각을 한 소수의 작가군으로 구분된다. 조선미술전람회 초기에 등장한 작가들인 김복진, 전봉래, 양희문, 장기남, 홍성덕, 문석오, 임순무, 원희연 등은 대개 석고로 만든 두상과 여인 나체상을 출품하였다. 후에 서양화가이자 이론가로 활동한 구본웅은 6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자소상>으로 특선을 받았는데 이 역시 두상 계열이었다. 또한 나민규의 일본식 불교조각은 일본인 작가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향이였다.

특히 조각 교육을 받지 않았던 작가도 있었다. 한국 전통의 목각을 계승한 듯이 보이는 안규응은 한복을 입은 여인상을 몇 차례 출품하였는데, 화단의 호평을 얻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 아마추어 조각가로서 조선미술전람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후에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윤효중이 일본의 목각법으로 한복 입은 여인상을 출품하여 호평을 받았지만 한국의 전통 목각법을 계승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일본 유학과 조선인 조각가들과 일본인 조각가들을 통해 일본식 목조법이 소개되어 유행하게 되었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조각부가 부활하게 된 1935년 이후에는 앞서 등장한 작가 이외에 이병삼, 홍순경, 김두일, 안영숙, 한재홍, 이국전, 장익달, 이성화, 현호철, 김경승, 윤승옥, 김갑수, 김정수, 최상환, 주경, 채남인, 윤효중, 조규봉 등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도 역시 석고 조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석조와 목조가 등장하기도 하

2) 김경준, 「제15회 조선미전을 보고」, 『조선중앙일보』, 1935. 5. 17-5.21.

였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기의 조각 작품은 거의 현전하지 않는다. 동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927년 휘문고등학교에 동상이 선 이래로 조선의 조각가에 의해 많은 수의 동상이 건립되었지만 태평양전쟁 때 공출당하여 이 시기 동상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다. 김복진이 1935년에 경북 김천고등학교에 제작한 <최송설당 상>도 공출되어 원본이 사라지고 말았다. 김복진 사후에 제자 윤효중이 <최송설당 상>을 재건하였는데(1950), 김복진 조각의 특징인 조용하고 세장한 인물과 달라서 원본과의 유사성에 의문점을 남겼다.³⁾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 중 현전하는 것으로는 순수조각으로 김경승의 <소년>, 윤승욱의 <피리부는 소녀>와 김복진의 <소림원 불상>을 포함한 불상조각 몇 점, 그리고 윤효중의 목조 3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조각가가 전통 종교상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김복진의 불상조각은 전통조각의 근대적 계승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불상의 도상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정면상 위주에서 벗어나 상의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묘사하고, 수직 형태의 불상에 리듬감을 부여하여 역동감을 준 점에서 근대적 조형성을 획득했다고 평가된다. 한 작가의 독자적 양식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숙성 단계에 이르는 시간이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김복진의 작품제작 기간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말년의 작품인 <백화>, <소년>에서 한 단계의 도약을 이루게 되었으나 40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대동아공영'의 이상 아래에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기치로 하는 전시동원체제로 한국사회를 재편하였다. 1940년대 들어서는 전시색, 시국색, 결전색을 띠는 동원미술이 정책적으로 요구되었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대지의 아들>, <여명>, <청년들>, <대지> 등 전시에 동원된 노동자와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급속히 늘어났고, '성전(聖戰)'의 결의를 다짐하는 소위 채관보국(彩管保國)의 미술품들이 수상하면서 미술을 통한 선동화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조각가들 중에서 김경승은 근로보국대의 모습을 형상화한 <여명>, <제4반> 등과 군국주의적 성향의 <대지의 아들> 등 시국 이념을 드러낸 조각을 출품하였다. 한편 제20회 조선미술전람회 특선작인 윤승욱의 <피리부는 소녀>는 피리를 부는 나부상으로 시국미술이기 보다 순수미술에 속하는 작품으로 여겨지며 향후 피리부는 소녀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윤승욱은 스즈가와 아사히(鈴川旭)라고 창씨개명하고 의욕적으로 조선미술전람회에 참여하면서 1943년 제22회전에 <정공(征空)>이라는 군국주의적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국전 또한 1943년 제 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무감사 특선을 받은 자신의 <소년>상에 대해 '장래를 두 어깨에 짊어진 건전한 소국민'이라고 설명하여 동원 미술의 한 양상을 보여주었다.⁴⁾

마지막 조선미술전람회(1944년 제 23회)에서 창덕공상을 받은 조각품은 윤효중의 <현명>이었다. '낙랑과 경주에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마음과 기술을 현대에 나

3) 조은정, 「한국 동상조각의 근대 이미지」, 『근대미술사학』 9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1, 221-267쪽.

4) 『매일신보』, 1943. 5. 27.

타낸 반도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신흥조소의 발흥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최고의 봉공이다'라고 극찬했던 심사위원들의 평가처럼 한복을 입고 활시위를 당기는 여인의 형상은 결전 의지를 고무시켰다.⁵⁾ 윤효중은 가미가재가 되어 죽은 조선총독의 아들 아베의 조각상을 만들어 기증하기도 하는 등 군국주의에 적극협조하였다.⁶⁾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의 조각과 기념조형물

1945년 9월에 미술건설본부(美術建設本部)가 급조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거치며 조선조각가협회(朝鮮彫刻家協會)가 1946년 2월에 발족하였다. 조선미술가협회(朝鮮美術家協會)에서 탈퇴한 이들과 미술건설본부에서 제외당했던 이들이 규합하여 조직한 조선조각가협회는 문석오, 이성화, 윤승욱, 김정수, 조규봉, 이성, 이국전, 김두일, 김경승, 윤효중, 김종영 등 당대 조소예술가들이 모두 포함된 조직체였다. 조선조각가협회는 미술인 중에서 조각가들만으로 구성된 단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근대조각의 대부 김복진이 세상을 떠난 해방공간의 조소예술계는 제자 이국전이 스승의 미술연구소를 이어받아 후진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했던 이국전을 비롯한 문석오, 조규봉, 김두일 등은 이북 출신들이어서 3.8선에 의해 남북한이 구획되자 그대로 이북에 남았거나 사상문제로 6.25 전쟁을 전후로 월북하였다. 그로 인해 남한의 조소예술계는 김경승, 윤효중, 김종영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해방공간에서 남한의 조각가들은 생활이 매우 어려웠던 반면 리얼리즘 계열의 선전미술이 필요했던 북한에서는 많은 수의 조소예술가들이 활동하였다. 이쾌대가 북으로 가서 기념탑을 만들다가 다시 남한으로 내려왔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좌우익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⁷⁾ 광복의 기쁨을 다룬 미술작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해방공간의 복잡한 이념적 혼란 상황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의 기쁨과 혼란한 시대상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김만술의 <해방>(1947)은 시대성과 조형성을 확보한 작품으로 주목된다.⁸⁾

광복과 더불어 이화여자대학교·서울대학교·홍익대학교에 미술대학이 설치되었다.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의 예림원에 미술과가 설치되었고, 1946년 서울대학교에는 예술대학 미술학부가 설치되어 김종영과 윤승욱이 조각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1948년 홍익대학교는 조각과를 창설하였고 윤효중과 김경승이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미대·홍대'라는 이분화된 대립구도가 조소계에도 형성되었다.⁹⁾ 서울대학

5) 『매일신보』, 1944. 5. 30.

6) 조은정, 「한국 근·현대 아카데미즘 조소예술에 대한 연구」, 『조형연구』, 경원대학교 조형연구소, 2002. 24-51쪽.

7) 리재현, 『조선력대미술가편람』, 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8) 최열, 「20세기 전반기 근대 조소예술의 전개」, 『근대를 보는 눈-조소』, 국립현대미술관, 1999, 168-192쪽.

9) 당시 미술계에는 서울대학교 미술학부를 '미대' 홍익대학교 미술학부를 '홍대'라고 칭하였다. 실제로 신문지상에서도 '서울미대'를 '미대'로 '홍익미대'를 '홍대'로 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1년 대학정비령에 따라 미술학부만 존치하고 교명도 '홍익미술대학'으로 변경, 관선이사사 파견되었다가 다시 1962년에 '홍익대학'으로 교명을 바꾼 때문이기도 하다.

교 미대와 홍익대학교 미대의 대립과 갈등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심화되어 표면화되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기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활동하며 성장한 김경승·윤승옥·이국전이 심사위원으로, 그리고 김종영·윤희중이 추천작가 대우를 받으며 참여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와중에 이국전은 북으로 갔고, 윤승옥은 남북 중 행방 불명되었으며 남한에 남은 김경승, 윤희중, 김종영이 조소예술계를 이끌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난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충무공 동상을 만들자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김경승과 윤희중에게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이 각각 수주되었다. 진해 중원로타리에 세워진 윤희중의 이순신 장군 동상은 충무공 동상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된 것이다. 진해에서는 이 동상의 제막식에 즈음하여 축제를 열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해마다 군항제가 열리게 되었다. 김경승이 제작한 이순신 장군 동상은 제작이 중단되어 방치되었는데 후에 그 지역의 조각가들이 완성하여 1955년 부산 용두산공원에 세웠다.

6.25전쟁기간 중 시작된 충혼탑, 충혼비, 동상 제작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동상을 건립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자율적으로 단체가 조직되기도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맥아더(MacArthur, Douglas, 1880-1964) 장군, 밴플리트(Van Fleet, James Award, 1892-1992) 장군, 존 B. 쿨터(Coulter, John B.) 장군 동상이 세워졌고,¹⁰⁾ 한국전쟁 이후에는 산화(散花)한 술한 무명용사를 위한 기념비(記念碑)와 충혼탑(忠魂塔)이 건립되었다.¹¹⁾

1959년 5월 13일 안중근 의사 순국50주년을 맞아 남산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동상>은 ‘안의사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전국민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광복과 더불어 제기되었던 <안중근 의사 동상> 설립 건은 성금도 미리 조성되었으나 동상을 설치할 장소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게다가 제작을 진행하던 김경승이 <맥아더 장군 동상> 건립을 의뢰받게 되면서 안중근상 제작을 중단하고 인천에 <맥아더 장군 동상>을 세운 뒤 다시 제작에 들어가는 등 완성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안중근 상은 조성되고 나서 8년 후인 1967년 4월에 이안되었다가 1974년 7월에 다시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 앞으로 이전되었다. 안국동에 설립된 <충정공 민영환 동상>은 윤희중이 제작한 것으로 1957년 8월 30일 제막식을 가졌는데 서울시교육위원회와 기념사업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1930년대에는 육영사업을 청송하는 동상 건립이 매우 유행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교정에 세워진 <언더우드 동상>은 1955년에 제작되었지만 원래의 동상은 1928년 4월 24일에 제막식을 하였으므로 늦어도 1927년에는 건립 계획이 잡혔을 것이다. 현재 좌대에 새겨진 동판의 명문에 의하면 1942년에 동상이 공출 당했기 때문에 1948년에 재건되었고, 다시 6.25전쟁 때 파괴되자 1955년 4월 22일에 세웠다고 한다. 언더우

10)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 장군들의 동상에 대해서는 조은정, 「한국 근현대 아카데미즘 조소예술에 대한 연구-김경승을 중심으로-」, 『조형연구』 3호, 경원대학교 조형연구소, 2002, 참조.

11) 국방부, 『전적기념편람집』, 1994와 국가보훈처, 『참전기념조형물도감』, 1997. 참조.

드 동상의 최종 제작자는 윤효중이지만 1948년과 1955년의 재건상을 모두 윤효중이 제작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구한말에 내한하여 1916년에 사망한 언더우드는 두 팔을 벌리고 미소 짓는 연미복의 전신상으로 젊은 시절의 성직자 모습이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실각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현대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고 숨 가쁜 정권의 교체 속에서 민주주의의 확립과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1960년대는 또한 산업화가 촉진되며 각종 건설사업이 쏟아지고 미술대학에서 교육받은 세대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 조소예술계의 주요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의 철거와 4.19기념조형물 건립이다. 4.19혁명 당시 탑골공원에 있던 이승만대통령 동상이 시민들에 의해 내려져 서대문까지 끌려 다녔으며, 남산에 섰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승만 동상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8월에 분해되어 내려졌다. 문정화가 만든 탑골공원의 동상과 윤효중이 만든 남산의 <이승만 동상>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신화화하여 정통성을 획득하려는 의도로 시행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신화화와 성소화 작업은 6.25 한국전쟁 뒤 전쟁기념물 조성에서도 반복되었다. 한편 대학 교정에 세워진 설립자와 유명인사의 초상 조각은 1930년대 동상 제작 붐을 상기시킨다.

기념조형물의 제작이 몇몇 특정 작가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수의 조각가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미술시장에서 조각품의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기에 기념조형물 조차 몇몇 교수진들이 독점하게 되면서 대다수 조각가들의 생활고와 심리적 불안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차근호의 자살은 조형물 수주의 문제점을 사회에 각성시킨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4.19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국립 묘지 조성이 확정되고 내부에 건립될 기념조형물의 공모가 공포되자 차근호는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안을 출품, 당선자로 내정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시 거의 모든 기념물을 독점하다시피 하던 김경승에게 낙찰이 결정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여 미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와 현대조각의 전개

6.25전쟁 중이던 1952년에 허버트 리드와 헨리 무어가 진행한 영국 런던국제조소예술대회에 윤효중, 김경승, 김종영, 김세중 등이 출품하여 김종영이 입상하였다. 국제미술대회에서의 입상 소식은 한국의 조각가들에게 세계 진출로의 꿈을 키워주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공모전에 입상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진출에 관심을 북돋운 것이었다. 또한 이 즈음에 윤효중은 1951년 베니스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국제예술가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하면서 이탈리아의 마리노 마리니(Marini, M.), 그레코(Greco, E.) 등과 만나고 돌아와서 세계미술에의 관심을 북돋우기도 하였다.

6.25 전쟁기에 세계의 정세를 인식하고, 해외여행 경험과 국제 공모전 입상은 조각가들로 하여금 국제적 추세를 따르는 것과 세계를 향한 무기로서 ‘전통’을 구현하

는 두 가지 태도를 인식하게 하였다. 정부 역시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 전반에 걸쳐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였다. 조각가들의 전통조각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었으며 추상계열에 속하는 작가들조차 문화재의 보수, 복제, 모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신 국가 건설과 정통성 확보를 위한 기념조형물 건립 추진으로 초상 조각과 기념 동상조각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건립되었다. 뒤이어 1960년대의 새로운 국토 건설 종합계획의 추진과 함께 기념건조물이 양산되었고¹²⁾ 추상 모뉴먼트의 조성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국 추상조각의 전개는 미술대학 출신 작가의 양성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자연물인 돌과 흙, 석고, 브론즈에서부터 현대 물질인 철과 플라스틱 등 현대적인 재료의 확장도 추상조각의 전개에 자극이 되었다. <미국현대작가 8인전> 등 추상조각의 실견, 서양과 일본의 서적을 통한 간접적인 자극도 추상조각의 전개에 기폭제가 되었다. 실지로 잡지 『문학예술』에는 서양의 조각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고, 1956년 4월호에는 소울 바이저맨의 금속조각 제작법이 자세히 번역되기도 하였다.

미술평론가 이경성은 광복 직후 정식으로 개교한 한국의 미술대학에서 교육 받은 국내 1세대 조각가들을 일컬어 ‘해방 1세대의 조각가’로 지칭하였다. 전후 1세대로서 전통과 모더니즘의 세례를 동시에 받은 이들은 구상적 형태에서 시작하여 추상 미술을 경험하였으며 후배 작가를 양성하는 몫을 담당하였다. 이들에 의해 시도된 용접 조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널리 퍼진 세계적인 양상이기도 하였다. 전쟁 직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김종영의 작품에서 용접조각의 실험성을 찾아볼 수 있고,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정숙은 용접조각을 수업 커리큘럼으로 편성하여 가르쳤다.

1950년대 전반까지의 조각은 구상조각이 주류였으나 점차 서양에서 직수입한 추상조각을 ‘선진’, ‘발전’, ‘자유’로 인식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미술계는 추상 일변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용접 조각과 같은 현대식 기법이나 추상이 아니라 테라코타, 건칠과 같은 고대의 재료와 기법과 구상을 고집하고 ‘한국적 리얼리즘’을 추구하던 권진규와 같은 작가는 주류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았다. <자소상>, <마두상> 등 내면과 영원을 갈구하는 독특한 작품세계는 기념조형물과 여인 좌상 일변도였던 당대의 구상조각 및 추상조각 조류 양자를 모두 위배하는 것이었다. 한편 동양 고대의 전통과 서구적 조형어법을 포괄하여 수용한 측면은 당대의 조류를 반영한다.¹³⁾

1950년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조각 부문에서 특기할 부분은 아카데미즘 계열이 주도권을 잡았던 회화와 달리 조각에서는 추상 조각이 일찍부터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1953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추상계열인 장기은의 <사색>이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한민국미술전람회는 신진 조각가들의 등용문인 동시에 보수와 아방가르드 모두를 수용하는 장이 되었다.

12) 사공정숙, 「나의 회상」, 『거친 쇠붙이에 깃든 영혼, 철조각의 선구자 송영수』, 아트북스, 2003, 27-28쪽.

13) 『권진규』, 삼성문화재단, 1997.

근대조각의 지평

한국 근대조각은 석고 모델링, 순수감상용 조각의 전개, 동상을 비롯한 기념조각의 제작 등, 기법과 분야에서 전통 조각과 구별된다.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하여 조각가로서 등단한 작가들은 대다수가 동경미술학교 출신이었지만, 국내에서 김복진에게 사사받은 작가들도 다수 있었다. 특히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안영숙 같은 여성 조각가의 존재는 근대 조각계 구성의 다양성을 짐작케 한다.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수많은 기념동상들은 일제 말 전시기에 공출되어 한 점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오늘날 근대조각 작품의 유존례가 희귀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비극에서 비롯한 것이다. 흙으로 소성하여 석고로 형태를 만들고 청동으로 주조하는 근대조각의 제작방식은 이들 작품의 결과물이 금속인 탓에 공출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광복 후 프라파간다 미술이 필요했던 북한에서는 남한의 조각가들을 초청하는 등 기념물 건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남한에서는 김구선생 어머니 동상,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동상의 재건립 등 몇몇 동상 제작 사례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46년 4월 문을 연 경주예술학교에서는 김만술, 윤승욱이 조각을 지도하여 후진을 양성하였고, 이후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서도 조각가를 배출시켰다.

이와 같이 한국의 근대 조각은 일제강점기와 전쟁 및 분단의 시대를 반영하며 예술로서의 기능을 모색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통해서 신진 미술가가 발굴되었고 전통과 현대, 구상과 추상, 순수와 참여 등 다양한 예술의 스펙트럼 속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나. 연표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897		대한제국 선포
1898		황성신문 창간 • 동헌성당(현 명동성당) 준공
1899		• 안중식 상해거처 일본행 • 휴버트 보스 내한 • 채용신 어진 제작
1900		• 채용신, 조석진 등 13인의 화가가 태조, 영조, 정조, 순조, 익종의 어진 모사 • 프랑스 도예가 레미옹 내한(~1904) • 파리 만국박람회 참가 • 사립 홍화학교 도화를 교과과정에 넣음
1901	• 김복진 출생	• 안중식 일본에서 귀국 • 서병오 상해 여행 • 안석주, 김중현, 김경원, 이병규, 임용런, 장발, 배운성 출생
1902		• 조석진, 안중식 고종황제와 황태자의 어진을 도사 • 일본화가 天草神來 남산기슭에 화실 • 김주경 출생
1903		• 일본화가 高木背水 내한 • 이승만, 손재형, 이동훈 출생
1904		러일전쟁 발발 • 지운영 유화 학습차 상해 유학 • 박생광, 이응노, 강신호, 황술조, 김용준, 이영일, 백남순 출생
1905		을사늑약 체결 • 이도영 대한자강회 간사 • 일본화가들의 단청회 한국회화 전람회(天草神來 주도) • 고유섭, 오지호, 주경 출생
1906		• 양기훈 고 민충정공의 <혈죽도> 그림 • 김유택 수암서화관 개설 • 구본웅, 김종태, 윤희순, 백윤문, 이마동 출생 • 관립 한성고등학교 도화과 설치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07		헤이그 밀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립 공업전습소 개설(염직, 도기, 금공, 목공, 응용화학, 토목) • 김규진 천연당 사진관 개설 • 안중식 고 민충정공의 <혈죽도> 그림 • 교육서화관 설립 • 경성박람회 개최
19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 화가 佐久間鐵園, 안중식, 김규진 등과 함께 고종 어전회호회 •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설립 • 서진달, 심형구, 양달석 출생
19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희동 일본 동경미술학교 유학 • 덕수궁 석조전 준공 • 이도영 <대한민보> 창간호부터 시사만화 연재 • 이왕가박물관, 동물원을 일반에게 공개
1910		한일합방 조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희동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입학
1911	• 김만술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굴암 발견 • 윤영기 경성서화미술원 설립 • 김관호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입학
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찬영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입학 • 장우성, 이인성, 김원 출생
1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혜석 여자미술전문학교 도화사범과 입학 • 서화미술회 서화대전람회 개최 • 김규진 천연당사진관 내에 고금서화관 병설
1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화미술회 제1기생졸업 • 윤영기 평양에 기성서화미술회 창설
1915	• 김진석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입학 • 김경승, 김종영, 윤승욱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희동 동경미술학교 졸업, 귀국 • 일본 서양화가들이 조선미술협회 발족 • 김규진 서화연구회 창설 • 총독부박물관 창립
1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관호 동경미술학교 졸업, 졸업작품이 일본 문부성미술전람회(문전)에 특선
1917	• 김진석 사망 • 김정숙, 윤효중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찬영 동경미술학교 졸업 • 허백련이 고무로 스이운의 제자가 됨
1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혜석 여자미술전문학교 졸업 • 이종우, 이한복이 각각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와 일본화과에 입학 • 서화협회 결성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한원 출생 고종 홍릉에 석인상과 동물상 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미독립선언 안중식 사망
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복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 개벽, 폐허 창간 김규진, 오일영, 이용우, 김은호, 이상범, 노수현이 창덕궁 벽화를 그림 조석진 사망
1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곽윤모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혜석 유화개인전 제1회 서화협회전(3대 정대유, 4대 김돈희) 제1회 서화연구회 전람회
1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복진 고려미술연구소에서 조각 수업 권진규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교남서화연구회 발족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개최 제2회 서화협회전
1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복진 토월미술연구회 조각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회 서화협회전 이상범, 노수현, 이용우, 변관식이 동연사 결성 이중우, 이한복이 각각 동경미술학교 졸업 제2회 조선미술전람회 고려미술회 결성, 후에 고려미술원으로 개칭
1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복진 일본 제5회 제국미술원전람회에서 <女>로 입선 윤영자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양화연구회 결성 제4회 서화협회전 제4회 조선미술전람회
1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미술전람회에 조각부 신설 김복진 동경미술학교 졸업 김복진 제4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삼년전> 삼등상(전시 도중에 파손됨). <나체습작> 입선. 전봉래 제4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髮> 입선 김복진 YMCA 미술과에서 조각교육 김복진이 안석주와 함께 '조선만화 작가구락부' 발족 김복진을 중심으로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KAPF) 결성(안석주, 권구현, 김기진, 박영희, 최승일, 이기영 등) 차근호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좌진 등이 만주에 신민부 조직. 조봉암, 김재봉 등이 조선공산당 조직 제5회 서화협회전 황술조, 송병돈, 이해선, 강신호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입학 제4회 조선미술전람회 김관호 평양에 삭성회 창설 경성여자미술강습원 창설 김은호, 변관식 일본유학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복진 일본 제국미술원전람회에서 <입녀상> 입선 • 김복진 제5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女> 특선. 그밖에 안규응, 장기남, 양희문 입선 • 김찬식, 배형식, 전상범 출생 	<p>순종 승하. 서울에서 6·10만세 사건 경성제국대학 창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경성여자미술강습원 강습생작품전 • 제6회 서화협회전 • 제5회 조선미술전람회 • 삭성회 회화연구소 제1회 미술전람회
1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본웅 제6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두상습작> 특선. 그밖에 장기남, 양희문, 안규응, 홍성덕 입선 • 강태성, 민복진, 박철준, 백문기, 성낙인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조선미술전람회 • 창광회 결성(김은호, 김창섭, 이승만, 임학선, 안석주, 김복진 등) • 영과회 창립, 제1회전 • 조선미술회 결성(이한복, 변관식, 방무길, 노수현, 백운문, 고희동, 이도영, 김용수 등) • 제7회 서화협회전
1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복진 투옥 • 김두일, 문석오 동경미술학교 입학 • 김세중 출생 • 제7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장기남, 안규응 입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영과회 전람회 • 제7회 조선미술전람회 • 녹향회 조직(김주경, 이창현, 심영섭, 장석표, 장기, 박광진 등) • 제8회 서화협회전 • 이종우 프랑스에서 귀국, 작품전 • 김은호 순종어진 제작
1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택, 전뢰진 출생 •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장기남, 문석오, 임순무 입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남화협회 결성 • 송도미술전(공형진, 김인승, 김경승, 김만형 등) • 제1회 녹향회전 •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 • 제9회 서화협회전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문석오, 장기남, 원희윤, 임순무 입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미술부 제1회 미술전 개최 • 제1회 동미전 개최 •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 • 제10회 서화협회전
1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석오 일본 제국미술원전람회에서 <응시> 입선 •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문석오, 원희윤, 임순무 입선 	<p>만주사변 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박물관 개관 • 제2회 녹향회전 •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 • 제11회 서화협회전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미술전람회의 조각부 폐지 • 문석오, 일본에서 백선행 동상을 제작하여 귀경. 동경미술학교 졸업 • 최종태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 書部와 조각부 폐지, 공예부 신설 • 제3회 동미전
1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혜석 여자미술학사 개설 • 제12회 서화협회전 • 제12회 조선미술전람회 • 청구회 창립(도상봉 등 조선인과 일본인 화가들) • 구본웅 개인전 • 덕수궁 석조전에서 이왕직과 東京의 이은 공이 주선한 제1회 일본미술전 개최
19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복진 석방 • 김경승, 윤승욱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입학 • 김창희, 오종욱, 이정갑, 최의순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미술연구회 소품전 • 목일회 결성 • 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 • 제13회 서화협회전 • 조형미술연구소 개설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계열) • 백우회 결성
1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미술전람회의 조각부 부활 • 김두일 제14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홍상습작> 입선. 그밖에 이병삼, 문석오, 홍순경 입선 • 김복진 경북 김천고등보통학교 최송설당상 제작 건립 • 박종배, 최기원, 최만린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회 조선미술전람회 • 제14회 서화협회전 • 김종태 유작전 • 이응로 제95회 일본미술협회전 입선
19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복진 15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首>, <불상습작> 입선. 그 밖에 김두일, 홍순경, 안영숙, 이병삼, 이국전 입선 • 김복진 금산사 미륵전 본존불 제작 • 김복진과 함께 김은호, 허백련, 박광진이 ‘조선미술원’ 창설 • 김종영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입학, 김종영 <조모상> 제작(추정) 	<p>손기정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일장기 말살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소회 결성 및 제1회 전람회 • 제15회 조선미술전람회 • 제15회(마지막회) 서화협회전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복진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나무> 특선, <윌리엄선생상> 입선. 그밖에 이국전, 장익달, 이성화, 홍순경, 안영숙, 김두일, 이병삼, 한재홍, 김경승, 현호철 입선 • 윤효중 동경미술학교 목조과 입학 • 김윤신, 이종각, 정관모, 최병상 출생 	<p>조선총독부 각급학교에 일본어 전용 강요. 덕수궁미술관 신축준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환기 東京 개인전 • 조선미술원 신축건물 낙성 •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 • 덕수궁미술관 신축 준공
1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복진 신문부성미술전람회(新文部省美術展覽會; 新文展)에서 <백화> 입선 • 김복진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백화> 무감사 • 김복진 <러들로우 상> 제작 • 윤승옥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閑日> 입선. 그밖에 김두일, 김갑수, 김정수, 현성각, 최상환, 장익달 입선 • 신석필, 엄태정, 조성묵 출생 	<p>조선총독부 조선어 과목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 • 이쾌대 동경 이과전에 입선 • 김복진 이인성 제2회 신문전에서 <백화> <한정> 각각 입선 • 연진회 발족 • 유영국 문학수 일본의 제2회 자유미술가협회전에서 협회상 수상
19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국전, 윤승옥 일본 문부성미술전람회에 입선 • 김복진 보은의 법주사에 시멘트로 미륵대불 제작 • 김경승 제18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S씨상> 입선. 그밖에 주경, 채남인 입선 • 김경승, 윤승옥 동경미술학교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동경미술협회의 제2회 서울전 • 경북궁총독부미술관 준공 • 제18회 조선미술전람회 • 제2회 후소회전
1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승 제19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목동> 무감사 특선 • 김복진 제19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소년> 특선, <다산 선생상> 무감사 • 조규봉 제19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首> 특선. 그밖에 윤승옥, 윤효중, 김두일, 주경, 이국전 입선 • 김복진 사망(8월 17일) • 윤효중 <아침(朝)> 제작 • 황기 2500년 봉축기념전에 윤효중, 이국전, 조규봉 입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가산수풍경화전 • 제19회 조선미술전람회 • 제1회 PAS동인전(태평양미술학교 출신) • 제3회 후소회전 • 노수현 심산화숙 개설 • 이쾌대 제27회 이과전 입선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규봉 제2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首> 무감사 특선(조선총독상) 김경승 제2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어떤 감정> 무감사 특선(창덕궁상) 윤승욱 제2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피리부는 소녀> 특선. 그 밖에 윤효중 <정류> 특선 김종영, 조규봉 동경미술학교 졸업 김청정, 박석원, 원승덕 출생 백문기 <K신부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신미술가협회 조직(이중섭, 홍일표, 최재덕, 이쾌대, 문학수, 김학준, 김종찬 등) 제1회 청전화숙전 조선신미술가협회 제1회전 제20회 조선미술전람회 김환기 양화개인전 제4회 후소회전
19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경승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여명> 무감사 조선총독상(추천작가됨) 윤승욱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청년들> 무감사. 그밖에 김경승, 윤효중 무감사 이국전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首> 특선, 경성미술연구소 개설. 그밖에 조규중, 이국전, 염태진 입선 윤효중 동경미술학교 졸업, <현명(弦鳴)>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관식 개인전 제2회 청전화숙전 양화가들의 수목화전(이제창, 이승만, 윤회순, 구본웅, 박상진 등)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 제1회 조선남화연맹전(일본인 중심에 허백련, 김은호, 노수현 등 참여) 박영선 일본 제6회 신문전 입선 제1회 반도총후미술전 개최
1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승욱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정공> 특선 김경승 <소년입상> 제작,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首>와 <流> 추천 윤효중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千人針> 특선 조선총독상 이국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소년> 무감사 특선 조규봉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首> 특선 박승구 동경미술학교 졸업 	<p>일제 조선징병제 실시. 진단학회 해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광회 결성 및 제1회전 제3회 신미술가협회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 제5회 조선미전특선작가전 제2회 반도총후미술전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승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제4반> 추천 • 윤희중 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현명(弦鳴)> 특선(창덕궁상) • 조규봉 <부인입상>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조선총독상 • 이국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전우애> 무감사 • 박승구 동경미술학교 졸업 	<p>중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에 김구 선출후 대한민국 임시헌장 수정 공포. 일제가 전쟁 동원 학병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전미술전 개최 • 제2회 단광회전 •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 • 배운성 귀국전 • 유화가 10인전(이종우, 배운성, 길진섭, 김인승, 김환기, 심형구, 김만형, 박영선, 최재덕, 이쾌대) • 제3회 반도총후미술전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미술건설본부가 김경승, 윤희중 등을 회원에서 배제. 조각부의 위원장: 김두일, 위원: 문석오, 이국전, 이주행, 윤승옥 • 조선미술가협회: 상무위원-이국전 	<p>일제 패망. 대한독립 임시정부 제1진 귀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산하 조선미술건설본부 결성(위원장 고희동) • 단구미술원 결성(김영기, 이응노, 배림, 장우성 등) • 조선프롤레타리아 미술동맹 결성 • 이화여자대학교 예림원 미술과 창설 • 조선미술건설본부 주최 종합미술전 개최 • 조선미술건설본부 해체. 조선미술가협회 결성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과 창설-김인승
1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승, 조규중, 이국전 해방1주년 기념 문화대축전 참가 •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창설. 윤승옥 조각과 전임교수로 취임 • 김경승, 조규봉, 이국전 조선미술가협회 탈퇴 • 조선조각가협회 발족(김두일, 김경승, 윤희중, 문석오, 조규봉, 이국전, 김정수, 윤승옥, 김종영, 이임표, 이성화, 이성, 백문기) • 권진규 월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미술협회 결성 • 조선미술가동맹 결성(오지호, 김주경, 이인성, 박상옥, 정규 등) • 조선조형예술동맹 결성(윤희순, 김기창, 정종녀, 이규상, 김병기, 이석호, 이종섭, 이쾌대, 정현웅, 정은녀, 김종영 등) • 제1회 단구미술원 동인전 • 윤희순 『朝鮮美術史研究』(서울신문사) 간행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규봉, 김정수 월북하여 김주경 등과 평양미술학교 창설에 참여 김만술 <해방> 제작 속리산 법주사 미륵불 제작(김복진 미완성작을 완성토록 위촉받음. 권진규, 백문기 참여) 백문기가 서울대 초대총장 앤스테드를 위해 흉상을 제작해 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회 조선미술동맹전 조선미술문화협회 결성(이쾌대 회장) 제2회 단구미술원전 제1회 양대광당전(배운성 등) 제1회 김기창, 박래현 부부전(김경승, 이국전의 조각작품이 초대전시) 미군정청 문교부 주최 조선종합미술전 개최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쾌대의 성북회화연구소 개설(전퇴진 이 연구소 출신) 이국전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과 교수 취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윤승옥, 이국전 초청) 문신 <고기잡이> 액자 제작 	<p>제헌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수립 선포. 대통령 이승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신 개인전(마산)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학생작품전 김용준 『朝鮮美術史大要』(을유문화사) 간행 조선미술가협회가 대한미술협회로 개칭(회장 고희동) 제1회 신사실판전
1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개최 조각부문 심사위원(김경승, 윤효중, 윤승옥, 이국전), 추천작가(김경승, 윤효중, (윤승옥), 김종영, 이국전) 박승구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성관음상> 문교부장관상 백문기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L부인상> 특선. 그밖에, 김세중 <청년>, 김만술 <少女首> 특선 홍익대학교 미술과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개설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 개최(심사위원장 고희동) 제4회 조선미술문화협회전(위원장 정현웅) 장우성 로마국제성화미술전 출품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년미술협회(송혜수, 문신 참여) 이국전 월북, 윤승옥 피랍 이승만 동상을 윤효중에게 의뢰 윤효중 김천중고등학교에 <최송설당 상> 재제작 	<p>한국동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소회전 재기 대한미술협회 결성 이중섭 원산미술가협회 결성 미술인부역자심사위원회
1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공군미술대(백문기, 정창섭) 부산해군중군화가단(조각분야: 김경승, 김세중, 문정화, 강용린, 김명희, 문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월남미술인회(정규, 이중섭, 최영림, 장리석, 박고석, 한복)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효중이 유네스코 국제회의 한국 대표로 이탈리아 로마를 다녀옴 • 윤효중 진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제작 • 김종영 <소녀상> 제작 (추정) • 김경승 충무공기념사업회에서 충무공 동상 의뢰받음 • 정부 충혼탑건립중앙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후반기동인(문신, 김훈, 이준, 권옥연) • 부산 기조동인(박고석, 이중섭, 손응성, 이봉상, 한묵) • 국방부 정훈국 종군화가단 조직 • 인천 자유미술동인회 • 부산 대한미협전 개최
1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영 영국 런던국제조소예술대회에 <무명정치수> 입상 • 김경승 통영 남망산에 충무공 동상 제막 • 권진규 무사시노미술대학 조각과 졸업작품 <나부> 제작, 일본 이과전(二科展)에서 <기사>로 특대상 수상 •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추천작가(김경승, 김종영, 윤효중) • 장기은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에서 <사색> 문교부장관상 • 제1회 현대미술작가초대전(김경승, 윤효중, 김종영 참여) • 차근호 상무대에 <성장 을지문덕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토벽동인 • 부산 오인전동인(이응노, 박고석, 손응성, 이봉상, 이정규) • 부산 한국현대미술작가초대전
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추천·초대작가(김경승, 김종영, 윤효중) • 윤영자 제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에서 <여인상> 문교부장관상 • 송영수 제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에서 <가족> 특선 • 차근호 광주제일고등학교에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제작 • 윤효중의 <십자가> 관련한 논쟁 야기 • 김세중 <콜롬바와 아그네스> 제작 • 문신 <남자 나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예술원(고희동, 이상범, 장발, 손재형, 김환기, 배렴, 윤효중) • 제2회 국전(박노수 <청상부>)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김경승, 김종영, 윤효중) 김찬식 제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작품A> 문교부장관상 송영수 제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악기 가진 여인> 무감사 특선 윤영자 제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젊은이> 무감사 특선 전퇴진 제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두상> 특선. 그밖에 오순일 <소년> 특선 대한미술협회 회원(윤효중, 김경승, 김만술, 문선호, 윤영자, 김정숙) 한국미술가협회(김종영, 김세중, 장기은, 백문기, 차근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미술가협회(장발, 장우성, 김종영, 이순석, 이희태) 공예작가동인회 백우회(주경, 변희천, 김원, 장옥진) 제4회 국전(박노수 <선소운>)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김종영, 윤효중, 김경승) 배형식 제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歸路> 부통령상 최기원 제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항아리를 든 여인> 문교부장관상 송영수 제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響> 특선. 그밖에 전퇴진 <仙童>, 윤영자 <얼굴>, 김찬식 <여인상> 특선 김정숙 <키스> 제작 윤효중 <이승만 동상>(서울탑골공원), <충정공 민영환 동상>(안국동로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고미술협회 한국수채화협회(고화흠, 임직순, 류경채) 사인전(박서보, 김영환, 김충선, 문우식) 제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박래현 <노점>) 『新美術』 창간호 발간
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김종영, 윤효중, 김경승) 추천작가(윤영자, 송영수, 김정숙) 전퇴진 제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두상> 문교부장관상 김종영 <전몰학도 충혼탑>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조형파(변희천, 조병현, 황규백, 변영원 등) 모던아트협회(유영국, 이규상, 한묵, 황영수, 박고석, 문신, 김경, 정점식 등) 창작미술가협회(류경채, 황유엽, 장리석, 최영립, 박창돈, 고화흠) 현대미술가협회(이철, 문우식, 하인두, 김창열, 장성순 등)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찬식 제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서 <항아리를 든 여인> 무감사 특선 • 최기원 제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여인> 무감사 특선 • 최만린 제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어머니와 아들> 특선. 그밖에 정정희 <젊은 여인>, 배형식 <懊> 특선 • 송영수 <효> 제작 • 김세중 <토르소> 제작 • 김경승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동상> (인천자유공원) 제작 • 덕수궁에서 <미국현대작가 8인전> 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연서회(김용진, 오일영, 김충현) • 백양회(김기창, 박래현, 천경자, 김정현, 이유태, 장운봉, 이남호)
1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김종영, 윤효중, 김경승) 추천작가(김세중, 김정숙, 윤영자, 송영수) • 김영중 제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장갑 낀 여인> 문교부장관상 • 최기원 제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피리부는 여인> 무감사 특선 • 최만린 제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이브> 무감사 특선 • 김윤신 제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아침> 특선. 그밖에 최일단 <아침> 특선 • 김영학 개인전(공보관) • 김종영 <전설> 제작 • 권진규 <두상(자소상)> 제작 • 반공미술전에 최기원의 <북진>, 전퇴진의의 <평화>, 정관모의 <월남>, 윤영자의 <정의의 진격> 출품 • 김경승 <(경찰)충혼탑> 제작, 이화여자대학교에 <김활란 상>, 고려대학교에 <김성수 상>, 서울 남산에 <안중근 상> 제작 • 김찬식 경희대학교에 <사자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화협회(박성삼, 박수근, 최영립, 정규, 이항성) • 대한미술교육협회(이항성, 김원) • 목우회 창립전(이종우, 이병규, 도상봉) • 실존미술가협회(김영주, 김훈, 한봉덕) • 영난회(이현옥, 천경자, 박래현) • 심우회(하인두, 배형식, 윤영자) • 제7회 국전(문교부장관상 이신자) • 제4회 현대미술가협회전에서 비정형회화 등장 • 제5회 국제현대 칼라 리도그래피전(이항성, 유강렬, 최덕휴 등) • 신시내티 비엔날레(이항성, 최덕휴, 유강렬, 김홍수 등)

연 도	조 각 관 련	미 술 일 반
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김종영, 윤효중, 김경승) 추천작가: 김정숙, 송영수, 윤영자, 김세중 오종욱 제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패배자> 문교부장관상 최기원 제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여인> 무감사 특선 최병상 제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대지> 특선 김정숙 <누워 있는 여인> 제작 김종영, 장우성 2인전 (중앙공보관) 한용진 제10회 서울미대전에서 <여인좌상> 예술원장상 윤효중이 중앙대학교에 <임영신상>, 수원에 <우장춘 기념비> 제작 차근호 광주에 <을지문덕상> 제작 김찬식 논산에 <육군용사상> 제작 김경승 <J. B. 콜터 장군상> 제작 윤효중이 법주사 미륵불을 재제작했으나 끝맺지 못했고, 장기은, 송두영이 공사 시작. 차근호 광화문에 조각연구소 창설 윤효중 한국미술품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고미술협회 행동파(유영국, 김병기, 한봉덕, 김훈, 박서보, 정창섭) 목포미술협회(허건) 제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문교부장관상 민철홍) 제1회 파리청년작가 비엔날레 정규 이천에 최초로 도자기 가마를 설립 한국공예시범소 개설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김경승, 김종영, 윤효중) 추천작가(김세중, 김정숙, 송영수, 윤영자, 최기원) 최종태 제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서 있는 여인> 문교부장관상 오종욱 제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배신자의 딸> 특선. 그밖에 김봉구 <秋心>, 이종각 <하품하는 여인>, 조성묵 <작품>, 최의순 <숲의 회상> 특선 오종욱 <이단자>, <위증인 NO.2> 제작 차근호 <화랑상>(육군사관학교) 제작 4월혁명 학생위령탑 현상모집(차근호 자살) 김경승 <벤 플리트 상>, 김만술 <민주경찰전몰위령탑>, 김종영 <현제명 상> 김경승 석굴암 복제 	<p>4·19 학생의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미술평론가협회 결성(김영주, 김중업, 김병기, 김영기, 최순우, 이항성, 이경성, 정규, 방근택, 배길기 등) 현대판화동인(유강열, 최영립, 김환기, 정규, 박수근) 60년미술가협회 결성(김봉태, 최관도, 윤명노, 김종학, 유영열, 이주영 등) 목림회(서세옥, 민경갑, 송영방, 전영화, 정탁영 등) 벽동인(김익수, 김정현, 김형대, 박상은, 박병옥, 방홍도, 유병수 등)



3. 목록화 과정 및 등록기준안

- 가. 조사과정
 - 나. 목록화 선정기준
 - 다. 등록기준안
-



3 목록화 과정 및 등록기준안

가. 조사과정

- 1단계 : 기초 자료조사 및 1차 작품 목록 작성 (2011년 4월~5월)
 - 근대기 조각 관련 연구물, 전시회 도록, 자료 등을 토대로 기존 공개된 작품 조사
 - 전국 국·공립 미술관 및 주요 사립미술관 소장품 확인 협조
 - 작가 및 개인 소장 작품 확인
 - 1차 조사대상 147점 선정 (부록 별첨)
- 2단계 : 목록화 대상 작품 선정 및 현장조사 (2011년 6월~8월)
 - 자체 회의 및 1차 자문회의(2011. 5.12)를 통해 목록화 후보작 선별
 - 목록화 대상 작품 선정 : 2차 자문회의(2011. 5.27) 및 자체 심의를 통해 20점 선정
 - 목록화 대상 작품 심층 조사 실시 : 관련 연구 및 소장경로 확인
 - 현장 실사를 통해 사진 촬영 및 실측
 - 정밀보고서 작성 : 작품의 명세(작품명, 작가, 크기, 제작시기, 형식, 소장자 및 소장처)를 기재하고 정밀사진과 함께 개략적인 작품 설명과 문화재적 가치를 서술함
- 3단계 : 자료보완 및 추가조사 (2011년 8월)
 - 중간보고회(2011. 8.10) 및 자체 회의를 통해 추가 조사대상 작품 12점을 선정하고 해당 소장처를 방문하여 정밀 작품 조사를 실시
- 4단계 : 추가 선정작품 심의 및 최종보고서 작성 (2011년 8월~9월)
 - 3차 자문회의(2011. 9.17)를 통해 추가 선정 작품을 포함한 최종 목록화 선정 작품 32점에 검토와 논의를 거침
 - 목록화 조사 보고서와 조사대상 총괄 목록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작성
- 5단계 : 최종 보고서 발간 (2011년 9월)
 - 문화재청 담당 실무자와 자문위원들의 세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및 보완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발간

나. 목록화 선정기준

- 본 조사는 근대문화재 등록을 위한 목록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근대 조각 및 조형물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그 중에서 등록문화재로 선정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작품을 선정, 실물 조사를 통해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 근대기의 문화유산들은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가교라는 점에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대의 시간적 범위는 근대의 개념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조사에서는 대한제국이 선포된 1897년을 근대적 시각체계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해로 보아 조사 시기의 상한선으로 잡았다. 하한선은 작품 제작 후 5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1960년으로 정하였다.
- 입체적 시각조형물이란 순수 미술에 속하는 순수조각 작품과 초상 조각을 포함한 공공 조형물로서의 기념조각을 일컫는다. 본 조각 목록화 사업에는 순수조각과 기념조각으로 대별하여 분류하되 이미 문화재 지정을 위해 검토된 바 있는 전통 석물은 제외시켰다. 또한 봉안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조각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단,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자인 김복진의 경우 현존작이 거의 모두 종교 조각이기 때문에 예외로 하였고 순수미술로 감상이 가능한 경우도 예외로 하였다.
- 대상의 선정은 ① 역사, 문화, 예술, 사회적 가치가 뛰어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③ 예술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기준으로 명시한 등록문화재 법령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미술 작품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이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더하여 조형미술로서의 예술적 가치, 미술사적 가치, 자료적 가치에의 적합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 이상으로 조사의 조건에 합치하는 조각을 가능한 모두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그 중에서 등록문화재로 추천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조각 32점을 실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등록기준안

- 조각 분야의 문화재 등록기준안을 제안하면 우선적으로 미술 작품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한 등록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조각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한다. 당대를 대표하는 작가의 대표작이나 뛰어난 예술성을 갖는 작품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단 기념조각의 경우 자료 및 예술적 가치가 떨어져도 대상의 희소성이나 보존의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미술사적 가치를 반영한 작품을 선정한다. 주요 미술전람회에서 입상한 작품이나 새로운 미술운동을 촉발시켰거나 양식적 변화를 이끌어낸 작품. 시대양식과 시대성이 전형적으로 반영된 작품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 예술적 가치 이외에도 자료적 가치에 의거해 판단할 수 있다. 미술운동이나 미술 단체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작품. 최초로 새로운 재료나 기법이 도입된 경우나 희소성이 있는 작품이 자료적 가치로 판단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조각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등록기준에 고려한다.
- 근대 문화재의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남북분단을 거치면서 멸실되었으며 현존하는 경우에도 보관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훼손된 경우가 많다. 특히 석고나 테라코타와 같이 쉽게 깨지는 재료를 사용한 조각이나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공 조각은 시급히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 동일한 조각이 여러 재료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보존조건이 까다로운 석고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비슷한 소재와 형식의 작품을 여러 점 남긴 경우에는 작가의 대표작으로 선정을 한정한다.
- 가급적 소품은 제외하며 미술사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생존작가도 가능한 배제한다.
- 초상조각은 예술적 가치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조각가, 초상의 주인공, 작품성, 희소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4. 목록화 작품 현황

가. 작품 현황

나. 세부 목록 (연대순)

- 기념조각 (9점)
- 순수조각 (21점)
- 종교조각 (2점)



4 목록화 작품 현황

가. 작품 현황

○ 총괄

구분	총괄	기념조각	순수조각	종교조각
점수	32	9	21	2

○ 시기별 분류

구분	총괄	기념조각	순수조각	종교조각
1930년대	3	1	1	1
1940년대	7		7	
1950년대	19	7	11	1
1960년	3	1	2	
합계	32	9	21	2

○ 재질별 분류

구분	석고	목조	테라코타	청동	석조	철	소조(흙)	혼합재료
기념조각				9				
순수조각	7	5	1	1	2	4		1
종교조각	1						1	
합계	8	5	1	10	2	4	1	1

○ 형태별 분류

구분	합계	기념조각	순수조각	종교조각
완조	27	6	20	1
부조	5	3	1	1

○ 소재별 분류

구분	역사인물	종교인물	일반인물(인체)	동물	추상
기념조각	7		1	1	
순수조각			18	1	2
종교조각		2			
합계	7	2	19	2	2

○ 소장처별 현황

구분	기념조각	순수조각	종교조각
개인소장		4	
유족소장		2	1
작가소장		1	
미술관		14	
사찰			1
병원	1		
중·고등학교	2		
군·경 교육기관	3		
국공립기관(야외)	3		
합계	9	21	2

○ 작가별 현황

작가명	총괄	기념 조각	순수 조각	종교 조각	작품명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3		3		<기사>, <나부> <두상(자소상)>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3	2	1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상>, <경찰충혼탑>, <소년입상>
김만술 金萬述 1911-1996	1		1		<해방>
김복진 金復鎭 1901-1940	2	1		1	<리들로우 상>,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
김세중 金世中 1928-1986	2		1	1	<콜롬바와 아그네스>, <토르소>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2		2		<키스>, <누워 있는 여인>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4	1	3		<전몰학도 충혼탑>, <조모상>, <소녀상>, <전설>
문 신 文 信 1923-1995	2		2		<고기잡이> 액자, <남자 나상>
백문기 白文基 1927-	1		1		<K신부상>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2		2		<가족>, <효>
오종욱 吳宗旭 1934-1994	2		2		<이단자>, <위증인 No.2>
윤승욱 尹承旭 1915-1950(?)	1		1		<피리부는 소녀>
윤희중 尹孝重 1917-1967	4	2	2		<최송설당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현명> <아침(물동이를 인 여인)>, <성장 을지문덕상>, <광주학생항일운동기념탑> <화랑상>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3	3			
합 계	32	9	21	2	

나. 세부목록(연대순)

○ 기념조각

번호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형식	부문	소장처
1	김복진 金復鎭 1901-1940	러들로우 상	1938년		73x64x1.5	청동	부조	기념조각	신촌 세브란스 병원
2	윤호중 尹孝重 1917-1967	최송설당 상	1950년		동상 173x79x66 좌대 165x82x82	청동	환조	기념조각	김천중고등학교
3	윤호중 尹孝重 1917-1967	충무공이순신 장군 동상	1952년		높이 4.8m 폭 1.4m	청동	환조	기념조각	창원시진해구 북원로터리
4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성장 을지문덕상	1953년		350x120x120	청동	환조	기념조각	전남장성군 상무대육군 보병학교
5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광주학생독립 운동기념탑 (부조포함)	1954년		탑 높이 10.9m	청동	부조	기념조각	광주 제일고등학교
6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더글라스맥아 더장군상 (부조포함)	1957년		높이 450 너비 110	청동	환조	기념조각	인천자유공원

번호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형식	부문	소장처
7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전몰 학도충혼 탑(부조포함)	1957년		탑신높이5.5m 탑신둘레5.4m 기단높이3.3m 기단둘레11.5m 부조:116x40x1.5	청동	부조	기념조각	포항시북구용흥 동(탑) 포항학도의용군 승전기념관(부조)
8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경찰총흔탑 조각 -안민상,호국상	1958년		탑:220x62x60 기단80x62x65 인물상높이172	청동	환조	기념조각	충남아산 경찰교육원
9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화랑상	1960년			청동	환조	기념조각	육군사관학교

(이상 9점)

○ 순수조각

번호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형식	부문	소장처
1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조모상	1936년 추정		37x22x20	석고	환조	순수조각	김종영미술관
2	윤효중 尹孝重 1917-1967	아침(물동이를 인 여인)	1940년		125x48x48	목조	환조	순수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4. 목록화 작품 현황

번호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형식	부문	소장처
3	윤승욱 尹承旭 1915-1950?	피리부는 소녀	1941년		148.8x35x33	석고	완조	순수 조각	국립현대 미술관
4	백문기 白文基 1927-	K신부상	1941년		45 x 40 x 42	석고	완조	순수 조각	작가소장
5	윤효중 尹孝重 1917-1967	현명(弦鳴)	1942년		165.8x119x36	목조	완조	순수 조각	국립현대 미술관
6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소년입상	1943년		140.5x38x34.4	청동	완조	순수 조각	국립현대 미술관
7	김만술 金萬述 1911-1996	해방	1947년		70x30x30	석고	완조	순수 조각	개인소장
8	문신 文信 1923-1995	<고기잡이> 액자	1948년		55.2x181.3x9.7	목조	부조	순수 조각	개인소장

번호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형식	부문	소장처
9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소녀상	1950년대 초반		42x27x22	석고	완조	순수 조각	김종영 미술관
10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기사	1953년		62x65x29	석조 (안산 암)	완조	순수 조각	개인소장
11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나부	1953년경		167x63.7x35	석고	완조	순수 조각	국립현대 미술관
12	문신 文信 1923-1995	남자 나상	1954년		좌대52x78x58 인물상137x52x58	시멘트, 회벽토, 콘크리트	완조	순수 조각	개인소장
13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가족	1954년		125 x 65 x 40	석고	완조	순수 조각	유족소장
14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키스	1956년		57x22x13	석조(인 조라임 스톤)	완조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15	김세중 金世中 1928-1986	토르소	1957년		72x36x22	목조	완조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4. 목록화 작품 현황

번호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형식	부문	소장처
16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호	1957년		135x19x17.5	철	환조	순수 조각	유족소장
17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전설	1958년		65x70x77	철	환조	순수 조각	김종영미술관
18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두상(자소상)	1958년경		27x20x17	테라코타	환조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19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누워 있는 여인	1959년		47x85x30	목조	환조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20	오종욱 吳宗旭 1934-1994	이단자	1960년		78x25x15	철	환조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21	오종욱 吳宗旭 1934-1994	위증인 No.2	1960년		56x68x23	철	환조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이상 21점)

○ 종교조각

번호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형식	부문	소장처
1	김복진 金復鎭 1901-1940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	1936년		높이 11.82m	소조에 도금	환조	종교 조각	김제 금산사
2	김세중 金世中 1928-1986	골롬바와 아그네스	1954년		184x104x36.5	석고	부조	종교 조각	유족소장

(이상 2점)



5. 목록화 조사보고서

이 보고서는 3차에 걸친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선정된 최종 목록화 대상 작품 32점에 대한 조사 보고서이다. 기념조각, 순수조각, 종교조각의 각 부문별로 제작연대에 따라 수록하였다.



1. 김복진 <러들로우 상> 1938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복진	호(한글)	정관
	한 자	金復鎭	호(한자)	井觀
	영 문	Kim, Bokjin	학력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01-1940
	경 력	1920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입학, 1935년 졸업 1922년 토월회 조직 1924년 <여인입상> 일본 제국미술원전람회 입상 1925년 <3년전> 조선미술전람회 3등상 수상. 1928년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 일제에 체포 1934년 서대문형무소 만기 출소 1936년 김제 금산사 미륵불 완성		
	주 소			
	전 화			
	제 목	(한글) 러들로우 상 (한자) 羅道魯		
작 품	제작 년도	1938년		
	재료 기법	동조 부조		
	규 격	73 × 64 × 1.5~1.9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현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 교수연구동 로비에 걸려 있으며, 관리도 비교적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날씨에 취약한 건물 로비에 걸려 있으므로, 장기보존을 위해서는 교내 박물관으로 이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		
		전 화	02-2228-5650	휴 대 폰	
		팩 스	()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우(Alfred Irving Ludlow, 1875-1961)의 청동 부조 초상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이자 세브란스병원 외과의사로 26년간 봉직하였던 러들로우가 1938년에 은퇴할 때 그의 제자와 교직원들의 의뢰로 제작된 것이다. 당시 조각가로 이름높았던 김복진이 의뢰를 받아 ‘홍판’을 만들었고, 완성작은 수술실에 걸리게 되었다. 연구자 조은정에 의해 1937년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교실을 운영한 러들로우가 외과교실을 퇴임하는 것을 기념하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러들로우 동상’을 의뢰하였음을 밝혔으나 실물을 찾지 못하다가(「한국동상조각의 근대이미지」, 한국근대미술사학, 제9집, 2001, p.234.), 2008년에 윤범모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옛 세브란스병원 외과 실내에 걸려 있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 병원이 옮기면서 행방불명된 것을 연구자 윤범모가 외과병동 창고에서 찾아내 김복진의 작품임을 확인하였다.(「한국 첫 근대조각가 김복진 작품 햇빛」, 중앙일보, 2008. 3. 18.) 이 작품의 중요성이 세브란스병원 내에서도 알려지면서, 세브란스병원 구역 내에 새로 조성된 교수동의 이름을 ‘러들로 교수동’으로 짓고 이 부조판을 건물에 들어서는 정면 입구의 로비 좌측 벽에 걸었다.

청동 부조판은 기본적으로 위는 타원형, 아래는 직사각형 형태를 결합한 것으로 이 둘을 결합한 듯이 테두리를 두르면서 중앙에 매듭무늬를 넣었다. 중앙 상부에 둥글게 띠를 둘러 원형을 마련하고 그 안에 얇은 부조로 인물의 옆모습을 새겼다. 인물상의 위에는 러들로의 이름이, 아래에는 “Professor of Surgery / director of Research / 1912-1938/ Dedicated in grateful memory of his service to Korea by the Staff and Alumni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라는 문구가 양각되어 있다. 이 글씨 오른쪽에는 “교수 러들로 박사의 공적을 기념키 위하여” 좌측에는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직원 급 동창일동 근정”이라 양각하였는데 ‘세브란스’라는 글씨는 일본 문자로 써져 있어서 일제강점기의 제작품임을 알 수 있다.

러들로우의 모습은 학위복에 학위모를 쓰고, 등을 보인 채 앞으로 살짝 숙이고 있으며, 옆얼굴은 높이 솟은 콧날과 함께 입과 눈, 귀까지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귀가 원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부조면 중에서 가장 높게 솟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얼굴이나 주변의 바탕 등에서 빠르게 흠을 밀거나 다듬은 작가의 빠른 터치가 나타나 있어, 모델링 당시의 속도감이 느껴진다. 메달 형태로 인물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전통적인 부조방식이지만, 사실적이면서도 또한 숭고한 면이 보이는 이상적인 인물상을 보여준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우(Alfred Irving Ludlow, 1875-1961)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출신의 외과의였다. 26년간이나 한국에 거주하며 외과 의사로서 봉직한 그를 위한 기념조각은 그동안 ‘러들로우 동상’으로 알려져 왔다. 현존하는 기념동상은 등신대의 동상이거나, 흉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러들로우 상을 통해 부조판(홍판)으로도 제작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귀한 예이다. 근대기 기록이나 언급에서 ‘동상’이라고 일컫는 대상이 흉상이나 심지어 부조일 때조차 ‘동상’으로 말하고 있어서, 상의 형식이나 크기가 아닌 재료에 집중해서 말해온 관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제작한 대부분의 동상이 일제 말기에 공출로 인하여 사라진 지금, 1938년작이라는 정확한 제작년대와 제작 경위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유존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각가인 김복진의 불교상을 제외한 순수조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물을 다룬 이 작품은 의미가 깊다.

○ 작품 사진



2. 윤효중 <최송설당 상> 1950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윤효중	호(한글)	불재
	한 자	尹孝重	호(한자)	弗齋
	영 문	Yoon, Hyojoong	학력	동경미술학교 목조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7 - 1967
	경 력	1944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 <현명> 특선 1942-1945년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사 1948-1954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홍익대학교 교수 1949-1964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1954-1958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장 1954년 대한미술협회부위원장 1955-1966년 제1-3대 예술원회원		
	주 소			
	전 화			
	작 품			
작 품	제 목	(한글) 최송설당 상 (한자) 崔松雪堂 像		
	제작 년도	1950년		
	재료 기법	청동 주조		
	규 격	동상: 173×79×66cm 좌대: 165×82×82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현재 김천중고등학교 기념관에 보관 중이나 국공립 미술관으로 이전 보존이 필요함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김천 중고등학교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740-110) 경북 김천시 송설로 137 김천중고등학교		
		전 화	054-433-0612	휴 대 폰	
		팩 스	()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35	김복진이 김천고등보통학교에 <최송설당> 동상을 처음으로 건립
1945	일제에 의해 공출
1950	윤효중이 원본대로 복원하여 재건립
2011	최송설당 기념관으로 이전하여 전시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윤효중은 동경미술학교 목조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홍익대학교 미술학부를 설립하여 조각교육에 전념하면서 1950년대에 중요한 인물들의 동상 제작을 하였다. <최송설당> 동상은 원래 김복진이 1935년에 제작한 동상이었다. 최송설당은 김천에서 태어나 영친왕의 보모로 궁실에서 일했고, 1931년에 김천고보를 설립했던 여성이며 여류시인이기도 하여 『松雪堂集』을 펴내기도 했다. 김복진이 제작한 동상은 1945년에 일제에 의해 공출되었다. 1950년 6·25전쟁 직전에 김천중고등학교 동창회 발의로 윤효중이 재제작하였는데, 김복진이 제작한 원래 동상의 사진이 남아있어 윤효중이 이를 참조해서 현재 동상을 만들었다. 다행히 6·25전쟁 동안에 파손되지 않고 보존되었다.

<최송설당>은 김복진이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이후 동상을 제작한 첫 번째 작품이다. 우리나라에 1920년대부터 동상이 건립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인이 도맡아 제작했다. 김복진은 『수륙일천리』라는 글에서, 출옥 후 최송설당의 동상 제작 의뢰를 받고 김천에 내려가서 최송설당을 직접 만나보았고 실제 동상을 만들 때는 최송설당의 사진을 가지고 제작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근대기에는 학교 설립자들의 동상이 상당히 세워졌다.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휘문학교의 민영휘, 양정학교의 엄주익, 공주 영명학교의 윌리엄 등이 있으나 대부분 일제 때 공출되어 원작은 사라졌고 후대에 다시 건립되었으나 대부분 6·25전쟁 이후의 동상인데 비해 이 동상은 전쟁 이전에 건립되었고 전쟁 동안에 파손되지 않고 남아있어 현존하는 동상 중에서 매우 이른 시기의 동상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최송설당> 동상은 한국 최초로 조각 공부를 했던 김복진이 첫 번째로 제작한 동상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윤효중 역시 한국 최초로 목조각을 전공한 조각가다. 게다가 이 동상은 현존하는 전신 동상 중 매우 이른 시기의 것이며 1950년 제작 당시의 우리나라 동상제작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예가 된다. 동상의 좌대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이 동상을 다시 재제작하였고 윤효중이 제작한 동상은 최송설당 기념관(김천중고등학교 교내)에 보관되어 있다.

○ 작품 사진



3. 윤효중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 1952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윤효중	호(한글)	불재
	한 자	尹孝重	호(한자)	弗齋
	영 문	Yoon, Hyojoong	학력	동경미술학교 목조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7 - 1967
	경 력	1944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 <현명> 특선 1942-1945년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사 1948-1954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홍익대학교 교수 1949-1964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1954-1958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장 1954년 대한미술협회부위원장 1955-1966년 제1-3대 예술원회원		
	주 소			
	전 화			
	작 품			
작 품	제 목	(한글)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 (한자) 忠武公 李舜臣將軍 銅像		
	제작 년도	1952년		
	재료 기법	청동 주조		
	규 격	높이 4.8m / 폭 1.4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새의 분비물과 공기 중 오염을 제거하는 청소작업의 정기화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창원시 진해구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645-01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 13		
		전 화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2	4월 13일 오후 2시 개막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1952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해군 진해통제부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협력을 얻어 조각가 윤효중 씨가 1년여에 걸쳐 고심 제작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동상은 금 13일 오후 2시에 진해 장충단 앞 로타리에서 제막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길이 16척, 무게 3톤의 거대한 충무공의 동상은 주야 일관작업으로 진해 해군공장에서 주조된 것이다. 동상은 오늘 거행될 제막식에 앞서 지난 2일 충무공의 탄생일에 해군공장에서 튜럭으로 운반되어 장충단 앞에 동일 오후 3시에 안치되었던 것이다”라고 작가와 후원, 주조처, 크기 등에 대해 전하고 있다.

동상은 1950년 11월 11일, 해군창설기념행사에서 김성삼 준장이 발의하고 해군과 관리, 유지들이 뜻을 모아 건립하기로 하였다. 모형을 완성하자 발주자와 작가 사이의 본격적인 계약체결에 들어간 1951년 7월 1일 정초식을 거행하고 9월 30일에 동상 원형을 완성하였다. 이후 신익희, 안호상, 홍종인 등 정치인과 미술계, 사학계의 권위자를 초청하여 상평의회(像評議會)에서 의견일치를 보아 11월 15일 높이 16척의 원형 제작을 완료하였다. 당시는 커다란 상을 주조할 곳이 마땅치 않아 해군 공장에서 한국 최초의 대주조작업이 이루어졌다. 1952년 3월 28일에 건조하였는데 진해 통제사령관은 동상 제막식에 동원된 연인원이 3천명이라 하였지만 『진해군지』에서는 동원된 연인원이 780명이라고 기록하였다. 원래 4월 2일에 제막식을 가지려 하였으나 당시 충무공 탄신 기념 행사를 4월 13일에 거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로 미루어졌다.

동상은 갑주를 갖추고 칼을 앞에 모두어 잡았으며 신체의 프로포션이 세장한 편이다. 머리에는 복발형 투구를 썼는데 정개(頂蓋)에는 상모가 있고 두정(豆釘)을 박았다. 목가리개 좌우에도 두정을 박았는데 얼굴 깊이 눌러 씌워 있고, 갑옷 아래 갖추어 입은 전복 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다. 정면에 매우 긴 의식용 장검을 수직으로 세워 두 손은 이를 잡고 있는데, 칼집까지 꽂혀 있는 상태여서 금곡 홍유룡의 무인상이 좌측에 칼집을 매달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몸이 정면을 향한 수직이고 신체 중심에 의식용 큰칼이 길게 자리잡고 있어 절제, 엄숙함이 느껴진다. 또한 투구부터 발끝까지 길고 무거운 갑옷으로 가려져 육체의 근육이 덜 나타나 신체성은 줄어든 반면 드러난 손의 불끈한 힘줄이나 근육의 표현과 눈길을 이끄는 큰칼을 통하여 무장의 이미지는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견고하고 두터운 갑주로 덮여있고 또 긴 치마와 긴 칼, 수직적인 자세 등은 고요하며 엄숙한 고전적 형태미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동상은 그동안 건립의 계획만 알려지던 충무공동상이 최초로 건립된 역사적인 작품이다. 전각에 모셔지는 진영으로만 존재하던 충무공의 이미지를 조각으로 만들어 공간에 건립한 것이다. 물론 진영과 용모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여러번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충무공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구성해내는 데 작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통영과 부산에 김경승이 세운 충무공동상이 얼굴 표현에 집중하고 진영에 충실한 것과 달리 인체 전체의 괴량감을 통해 인물이 지닌 힘과 의지를 표현하려 한 작품으로 동상을 제작할 때 본 적이 없는 선현의 모습을 정신적으로 해석하여 작가의 상상력에 의존한 자유스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예이기도 하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 건립 계획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고, 거국적인 모금활동도 있었으나 정작 동상이 건립된 것은 6.25전쟁 중 국난극복의 의지로 진해에 세운 이 동상이 최초이다. 국토 곳곳에 존재하는 충무공 동상 중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통적인 능묘 석인상 중 무관상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시대 장군의 조각적 도상을 창안하였다는 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입된 말을 탄 장군상 등과 차별되는 점이다. 제1공화국 당시 외빈들이 오거나 국제적인 반공회의가 있을 때는 이곳에 들러 기념촬영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국가적인 기념조형물이 많지 않던 1950년대에 충무공 동상은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충무공 동상이며 공공의 성격을 띠는 조각으로서, 동상 개막을 축하하며 진해 군항제가 시작되었다는 점 등도 이 동상이 중요한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단지 과거 인물을 재현하는 데 멈추지 않고 사회, 축제 등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동상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준 것이다. 앞에 모두어잡은 칼과 기다란 갑주 등이 고전적인 미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한국적 전통과 서구적 미의식의 결합을 시도한 예를 보여준다.

○ 작품 사진



충무공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연설(1952)

출처 : 국가기록원

4. 차근호 <성장 을지문덕상> 1953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차근호	호(한글)	
	한 자	車根鎬	호(한자)	
	영 문	Cha, Keunho	학력	평양미술학교 재학 중 월남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25-1960
	경 력	1953년 광주 상무대 <을지문덕상> 제작 1955 연무대 <무명용사상> 제작건립 1956년 서울 육군사관학교에 <범무상> 설립 1958년 조선일보 주최 현대작가초대전에 <해저음> 출품 1960년 건축협회 주최, '사월민주혁명기념탑 공모전'에 엄덕문과 함께 공동 입선함 1960년 동아일보사 주최 사월민주혁명순국학생 위령탑 공모전에서 2등상 수상		
	주 소			
	전 화			
	작 품			
작 품	제 목	(한글) 성장 을지문덕상 (한자) 聖將 乙支文德像		
	제작 년도	1953년		
	재료 기법	청동 주조		
	규 격	350 × 120 × 120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현재 전남 장성군 상무대 보병학교로 이전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전라남도 장성군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역사관 우측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상무대 보병학교 정훈실		
		전 화	061-390-1031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3. 11. 28	광주 상무대에서 건립되어 제막식이 열림
1994	광주 상무대가 지금의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으로 이전하면서 동상도 이전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육군 보병학교는 을지문덕의 상무정신을 이어받아 전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군인들의 호국정신의 사표로 삼기 위해 1953년 11월 28일 육군장병들의 성금을 모아 이 동상을 제작했다. 이 동상을 건립한 데에는 한해 전인 1952년 해군본부에서 진해에 세운 <충무공 이순신상>이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무대의 <성장 을지문덕상>은 진해의 <충무공 이순신장군상>과 함께 1950년대 초기에 제작된 역사 위인동상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동상을 제작한 차근호는 1950년 1·4후퇴 때 월남한 미술가로서 평양미술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대 각종 현충기념물 제작자가 절실했던 군부대와 일찍이 인연이 되어 <성장 을지문덕상>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차근호는 전라북도 논산시 연무대의 <무명용사상>(1958), 서울시 육군사관학교의 <화랑상>(1960)을 건립하는 등 김경승, 윤효중과 더불어 1950년대 가장 활발하게 기념조각을 제작하였다.

차근호가 제작한 <성장 을지문덕상>은 왼손으로 장도를 짚고 오른손을 들어 진군을 명령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 표정이 진지하고 갑옷과 무기가 세밀하게 표현되었으나 사지의 비례와 신체의 동작이 다소 미숙하게 처리되어 소박한 느낌을 준다.

이 동상은 당시 주물기술이 미흡하고 재료에 있어 청동의 함량이 적은 탓인지 붉게 산화되어 있으나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성장 을지문덕상>은 1953년 11월 발의되고 건립된 역사 위인상으로 그 형태는 다소 어색하나 6·25 전쟁 직후 국군에게 상무정신을 귀감으로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 작품 사진



5. 차근호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1954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차근호	호(한글)	
	한 자	車根鎬	호(한자)	
	영 문	Cha, Keunho	학력	평양미술학교 재학 중 월남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25-1960
	경 력	1953년 광주 상무대 <을지문덕상> 제작 1955 연무대 <무명용사상> 제작건립 1956년 서울 육군사관학교에 <범무상> 설립 1958년 조선일보 주최 현대작가초대전에 <해저음> 출품 1960년 건축협회 주최, '사월민주혁명기념탑 공모전'에 엄덕문과 함께 공동 입선함 1960년 동아일보사 주최 사월민주혁명순국학생 위령탑 공모전에서 2등상 수상		
	주 소			
	전 화			
	작 품			
작 품	제 목	(한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한자) 光州學生獨立運動 記念塔		
	제작 년도	1954년		
	재료 기법	청동 주조		
	규 격	높이 10.09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현재 광주제일고등학교에 보존되어 있음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광주 제일고등학교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500-030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37번지길 33		
		전 화	062-510-8804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3. 9. 10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기공식
1954. 6. 10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제막식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발발한 학생들의 항일 시위를 기념하여 1954년 11월 3일, 시위를 촉발시킨 광주 제일고등학생들의 모교에 제막되었다. 해방 이후 항일지사들의 동상이나 독립운동기념물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그 성과를 맺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 기념탑은, 1950년대 초반에 일찍이 제작된 독립운동기념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탑신은 화강암을 쌓아 올렸고, 기단에는 쫓겨나는 학생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청동부조로 장식하였다. 탑의 꼭대기에는 햇불 모양의 청동장식을 덧붙여 조형물의 기념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전반기에 제작된 기념물로서는 부조의 상태가 양호하고 그 규모도 좋은 편이다. 이 탑과 부조를 제작한 차근호는 1·4후퇴 때 광주로 피난한 월남미술인으로 군부대와 인연이 닿아 1953년 광주 상무대에 <성장 을지문덕상>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일제에 대항하여 쫓겨나는 학생들의 모습은 저부조의 사실적인 기법으로 묘사되었다. 인물의 표정이나 신체의 표현은 미흡하지만 일본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의지는 비교적 잘 표현되어 있는 편이다. 한편 정면상으로 표현된 학생들의 모습을 묘사한 기념 부조는 1961년 고려대학교에 조각가 민복진이 제작한 <4·18 민주학생의거 기념비>에서도 유사하게 찾아 볼 수 있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1954년에 건립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그 부조는 1950년대 제작된 몇 안 되는 독립운동기념물로서 문화재로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남·녀 인물의 자세와 표정은 다소 어색하지만 일본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울분과 의기는 비교적 잘 표현되었다.

○ 작품 사진



6. 김경승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상> 1957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경승	호(한글)	표천
	한 자	金景承	호(한자)	瓢泉
	영 문	Kim, Kyungseung	학력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5-1992
	경 력	1934-1939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입학~졸업 1943년 조선미술전람회 추천작가 1948-1968년 서울시문화위원, 문교부예술위원 1949-197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창설위원, 역대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1956-1964년 홍익대학교 교수 1985년 대한민국예술원 정회원 개인전 2회(1977년 문화화랑, 1979년 진화랑)		
	주 소			
	전 화			
	제 목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상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작 품	제작 년도	1957년		
	재료 기법	청동		
	규 격	450 × 110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동상과 기단, 부조의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 이 동상에 대해 여러 사회단체의 이전과 해체요구가 있으나, 맥아더 장군이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 곳이 바로 자유공원 앞 바다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장소인 만큼 현재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관리처 : 국가보훈처 인천 중구청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인천 중구 관동1가 9 http://www.icjg.go.kr/junggu/ 자유공원: 인천 중구 송학동		
		전 화	031-763-5171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7. 9. 15	인천 자유공원에서 동상 제막식이 이루어짐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상>은 1957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7주년을 기념하여 이기붕, 변영태, 조병옥 등 각계대표 50여 명이 ‘맥아더 장군 동상건립위원회’를 조직하고 국민들이 성금을 내어 제작한 것으로, 1950년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기념조각이다. 맥아더(MacArthur Douglas, 1880-1964) 장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고전하던 1950년 9월 12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하였다. 장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막아낸 ‘자유의 사도’로서 전후 한국민들에게 높이 숭상되었는데,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이 동상을 세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상>은 일제시대 동경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한 근대기 1세대 조각가 김경승에게 의뢰되었으며, 그 후학인 김영중, 이승택, 최기원 등의 신진 조각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제작되었다. 이 동상은 맥아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앞두고 작전을 구상하는 모습으로 고안되었는데, 입술을 꼭 다문 긴장된 표정과 빈틈없는 자세를 통해 자유 수호의 의지가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모자와 가죽잠바, 손에 든 망원경 등의 세밀한 의장과 초상에 가까운 얼굴의 사실적인 표현이 매우 우수하다. 동상의 후면 벽면에는 작전 성공 후 인천에 상륙하는 맥아더와 유엔군 지도부의 모습이 묘사된 청동부조가 덧붙여졌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상>은 상륙작전이 감행된 월미도 앞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세워졌으며, 이는 기념조각과 건립된 장소가 잘 부합되는 경우라 하겠다. 그러나 이곳은 1980년대 이후, 분단에 대한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부딪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다. 현대미술가 강익중은 1997년 광주 비엔날레에 이 동상을 차용한 <Landing(상륙)>을 출품하여 맥아더의 이미지를 한국전쟁의 영웅에서 이 땅의 비극을 일깨우는 상징으로 바꾸어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더글라스 맥아더 동상>은 시대에 따라 변모하는 한국인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더글라스 맥아더 동상>은 1957년 인천상륙작전 7주년을 기념하여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한 동상으로, 전후 자유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유엔에 대한 감사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기념물이다. 특히 이 동상은 신체의 비례와 표정의 사실적인 표현, 인물의 시선과 공간의 처리로 볼 때, 1950년대 한국 동상 조각에서 매우 우수한 예에 속한다. 무엇보다 <더글라스 맥아더 동상>과 인천의 자유공원이, 6·25 한국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국민들의 의견이 부딪히는 공론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보존해야 할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작품 사진



동상 전경



우측 부조

7. 김종영 <전몰학도 충혼탑> 1957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종영	호(한글)	우성
	한 자	金鍾瑛	호(한자)	又誠
	영 문	Kim, Chongyung	학력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5 - 1982
	경 력	1941-1943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소조부 입학과 졸업 1948-198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재직 1953-1980년 국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1955-1965년 서울시문화위원 1959-1961년 문화재보존위원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출품 1976년 예술원회원		
	주 소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3-2 김종영미술관, http://www.kimchongyung.com/		
	전 화	(02) 3217-6484	휴대폰	
	제 목	(한글) 전몰학도충혼탑 (한자) 戰歿學徒忠魂塔		
작 품	제작 년도	1957년 8월 11일 설립		
	재료 기법	탑: 화강석, 부조: 청동		
	규 격	탑신 높이 550 cm. 기단 높이 333 cm 부조: 가로: 116cm, 세로 40cm, 두께 1.5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탭: ☒ 양호 ☐ 보통 ☐ 훼손 / 부조: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탭은 원래의 상태를 보수하여 양호한 상태이나, 청동부조는 오른쪽 아래 부분이 부식되어 마멸되었다. 이에 탭에는 복제품을 설치하고, 원본 부조는 포항학도의용군 승전기념관에 별도로 보관 전시되고 있다.	
보존방향	청동부조는 현재와 같이 2002년 설립된 포항학도의용군승전기념관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부조 : 포항학도 의용군승전기념관 기념탑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전 화	054-247-8000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7. 6. 15	전몰학도충혼탑 제막식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1957년 「전국학도호국단」은 한국전쟁 당시 포항전선에서 숨진 학도병들의 영혼을 추도하기 위해 조각가 김종영에게 의뢰하여 포항 용흥동 탑산 정상에 이 추모탑을 건립하였다. 1950년 학도병에 지원한 71명의 학생들은 포항시, 포항여자중학교에서 후방지원을 맡고 있었으나, 8월 11일 북한의 주력부대와 마주친 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 한국전쟁 戰史에 따르면 이 날 학도병들의 희생으로 국군은 급박했던 포항전선에서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재직 중이던 김종영은 화강암으로 탑을 세우고, 전면에 청동부조를 붙여 건립하였다. 탑의 형태는 일본 충혼탑에서 자주 보이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조물 형식을 피하고, 크게 자른 화강암을 변화 있게 쌓아서 한국의 전통 석탑의 느낌을 가미하였다. 특히 청동부조에 고구려 시대의 고분벽화인 안악 대고분 천정화를 참조하여, <기린도>를 묘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양신화에서 기린은 천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작가는 신화속의 동물을 통해 학생들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생각된다.

1975년 8월 11일 「학도의용군 동지회」와 「경상북도학도호국단」에서 탑을 보수하였으나,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에서 희생된 학도의용군 48인의 이야기는 2010년 <포화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김종영의 <전몰학도충혼탑>은 1950년 8월 11일 포항전투에서 전사한 군번 없는 학생들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1957년에 제작된 것으로, 원형 그대로 보존된 1950년대 한국전쟁 기념비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념탑을 고구려 안악 대고분 천정화에서 유래한 기린도로 장식한 것은, 전쟁기념물에 전통도를 과감하게 적용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 작품 사진



8. 김경승 <(경찰) 충혼탑> 1958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경승	호(한글)	표천
	한 자	金景承	호(한자)	瓢泉
	영 문	Kim, Kyungseung	학력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5-1992
	경 력	1934-1939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입학~졸업 1943년 조선미술전람회 추천작가 1948-1968년 서울시문화위원, 문교부예술위원 1949-197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창설위원, 역대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1956-1964년 홍익대학교 교수 1985년 대한민국예술원 정회원 개인전 2회(1977년 문화화랑, 1979년 진화랑)		
	주 소			
	전 화			
	작 품			
작 품	제 목	(한글) (경찰)충혼탑 (한자) (警察)忠魂塔		
	제작 년도	1958		
	재료 기법	철, 청동		
	규 격	탑: 220×62×60cm, 기단 80×62×65cm, 청동인물상: 높이 172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철이 많이 부식되어 그 상태가 좋지 않으나, 보존의 문제이기 보다는 금속의 성분 때문으로 생각된다.	
보존방향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경찰교육원에서 계속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경찰교육원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45번지 (초사동 407)		
		전 화	041-536-0341 041-536-2272 (경찰교육원 시설과)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8년 5월 30일	‘忠魂’ 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를 받음
1958년 6월 6일 건립	부평 경찰학교에 증헌탑, 안민상과 호국상으로 건립
1967년 6월 6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전
2009년 11월 25일	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 준공 개원과 동시에 이전 복원.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이 충혼탑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경찰관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忠魂’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를 받아 1958년 조각가 김경승이 건립하였다. 탑에는 忠魂, 두 글자를 세로로 세기로, 탑의 오른쪽에는 조국수호를 상징하는 <호국상>을, 왼쪽에는 위로와 추모를 상징하는 <안민상>을 세웠다.

1950년대에는 부산 용두산 공원(당시 우남공원)과 지리산 사내면 피아골 입구 등,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를 새긴 충혼탑이 여럿 건립되었다. 당시 부평에 있었던 경찰학교에 세워진 이 충혼탑도 그 일환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충혼탑이 작은 규모의 청동 부조판으로 장식된 것과는 달리, 이 <경찰충혼탑>에는 등신대보다 더 큰 두 개의 청동 인물상이 함께 세워졌다. 6·25 전쟁으로 경찰의 피해가 매우 컸고, 무엇보다 이승만 정부의 통치정책에서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충혼탑>은 1967년 6월 6일 서울, 국립묘지로 이전되었다가 2009년 11월 25일 현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찰교육원으로 재 이전되었다. 여러 번 장소를 이전하였음에도 탑의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경찰충혼탑>의 특징은 탑의 양 옆에 세워진 입체 조각상에 있다. 남성상인 <호국상>은 칼을 세워 든 모습이 다소 경직되게 표현되었으나 여성상인 <안민상>은 피리를 부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안민상>의 경우는 어깨부터 몸을 감싼 의습을 통해 조각의 우미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 한국조각의 아카데미즘을 대표하는 제작자 김경승의 작품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 조각들은 자세가 뻣뻣하고 표정이 어색하여 높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충혼탑에 군인상 뿐 아니라 ‘위로’를 상징하는 알레고리로서 여자 누드상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1958년 제작된 <경찰충혼탑>은 1950년대 이승만대통령의 휘호를 받아 건립되었던 전쟁기념조형물 중 하나로서,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두 개의 청동인물상인 <호국상>과 <안민상>이 덧붙여졌다. 이 조각들의 예술적인 수준은 높지 않으나 그 규모가 크고, 여성 누드상으로 전몰자를 애도하는 방식이 당시 한국 전쟁기념 조각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작품 사진



<안민상>



<호국상>

9. 차근호 <화랑상> 1960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차근호	호(한글)	
	한 자	車根鎬	호(한자)	
	영 문	Cha, Keunho	학력	평양미술학교 재학 중 월남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25-1960
	경 력	1953년 광주 상무대 <을지문덕상> 제작 1955 연무대 <무명용사상> 제작건립 1956년 서울 육군사관학교에 <범무상> 설립 1958년 조선일보 주최 현대작가초대전에 <해저음> 출품 1960년 건축협회 주최, '사월민주혁명기념탑 공모전'에 엄덕문과 함께 공동 입선함 1960년 동아일보사 주최 사월민주혁명순국학생 위령탑 공모전에서 2등상 수상		
	주 소			
	전 화		휴대폰	
	제 목	(한글) 화랑상 (한자) 花郎像		
작 품	제작 년도	1960년		
	재료 기법	청동 주물		
	규 격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현재 서울 육군사관학교 내 육군박물관 야외에 잘 보존되어 있음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139-799)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77호 육군사관학교		
		전 화	02-2197-6453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60	육군사관학교 16기 생도들이 임관기념으로 제작하여 학교에 기증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이 조형물은 1960년 육군사관학교 16기 졸업생들이 임관을 기념하여 모교에 기증한 기마상으로, 후배생도들이 화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애국심을 고취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화랑정신은 을지문덕의 상무정신과 이순신의 충무정신과 더불어 혼란기 국가를 지키는 애국정신의 모범으로 크게 현상되었다. 이 <화랑상>은 두 앞발을 치켜 든 말의 모습이나 창을 들고 적과 맞서는 화랑도의 모습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그 크기는 작지만 해방이후 처음 제작된 기마상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후 1966년에는 부여시에 <계백상>이, 1969년에는 서울시 남대문 앞 광장에 <김유신 상>이 각각 제작 건립되었다.

제작자 차근호는 평양미술학교 출신으로 1.4후퇴 때 월남한 이후 군부대와 인연을 맺고, 광주 상무대의 <을지문덕상>(1953), 논산 연무대의 <무명용사상>(1955) 등을 건립하였다. 육군사관학교에는 1956년에 13기 졸업생들의 임관을 기념하는 <범무상>을 세우기도 하였다. 차근호는 미술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조각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1960년 제작된 <화랑상>으로 판단해 볼 때 1950년대 많은 기념조각 제작을 통해 그 기량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 16기 동기회는 1985년, 원래의 화랑상을 모본으로 하여 새로운 <화랑상>을 제작 의뢰하였다. 조형물 전문제작가 이일영이 제작한 1985년 <화랑상>은 원래의 기마상과 비교하여 형태가 조금 변경되었고, 그 규모도 커졌다. 새로 제작된 <화랑상>은 육군사관학교 도서관 앞에 세워지고, 본래의 <화랑상>은 육군사관학교내에 건립된 육군박물관 앞으로 이전되었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화랑상>은 16기 육군사관생도들이 화랑도를 애국심과 군인 정신의 근간으로 삼기 위해 조각가 차근호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학교에 기증한 기마상으로, 앞발을 높이 든 말의 표현이 생동감이 있을 뿐 아니라 적에게 창을 내려쬰는 화랑의 기백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형태가 안정되어 있고, 해방 이후 처음 제작된 기마상이라는 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작품 사진



10. 김종영 <조모상> 1936년 추정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종영	호(한글)	우성
	한 자	金鍾瑛	호(한자)	又誠
	영 문	Kim, Chongyung	학력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5 - 1982
	경 력	1941-1943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소조부 입학과 졸업 1948-198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재직 1953-1980년 국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1955-1965년 서울시문화위원 1959-1961년 문화재보존위원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출품 1976년 예술원회원		
	주 소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3-2 김종영미술관, http://www.kimchongyung.com/		
	전 화	(02) 3217-6484	휴대폰	
	제 목	(한글) 조모상 (한자) 祖母像		
	제작 년도	1936년 추정		
작 품	재료 기법	석고		
	규 격	37×22×20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표면의 채색이 많이 떨어졌으며, 뒤편의 석고가 파손되었다.	
보존방향	김종영 미술관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김종영미술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53-2 김종영미술관 http://www.kimchongyung.com/		
		전 화	02-3217-6484	휴 대 폰	
		팩 스	02-3217-6483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82. 1	조각가의 아들 김익태가 창원 고향집에 내려가 다락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후 서울로 가져와 병석에 있던 김종영으로부터 직접 작품의 내력을 확인하였다.
2002	김종영 인생·예술·사랑 (김종영미술관)
2005	한국 현대조각의 선구자 김종영 (국립현대미술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이 작품은 <소녀상>과 함께 1982년 1월 조각가의 본가 다락방에서 발견된 작품으로, 당시 병상에 있던 작가는 이 작품들을 1936년 동경미술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고향에 들렀을 때 제작한 것으로 기억하였다.

김중영은 한국 현대 추상조각의 선구자로서 초기 구상시기의 작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특히 다른 조각가들과는 달리 유학시절 일본의 전람회나 조선 미술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아 그의 동경미술학교 재학 중의 작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견된 <조모상>은 작가의 학습기를 알려주는 작품으로서 자료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 작품은 김중영이 자신의 조모를 보고 제작한 것으로, 깊은 눈매와 코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얼굴의 특징이 자신 있게 모델링 되어, 그 기량을 짐작하게 한다. 흰 석고가 그대로 노출된 <소녀상>과 달리, <조모상>에는 피부색의 갈색 안료가 채색되어 작가가 대상의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근대기 제작된 많은 작품이 석고 소조상이었지만, 거의 다 망실되고 남아 있는 예가 거의 없다. 이러한 가운데 1936년 작품으로 추정되는 <조모상>은 그 보존 상태는 나쁘나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1930년대 석고상으로서 자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작품 사진



11. 윤효중 <아침(물둥이를 인 여인)> 1940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윤효중	호(한글)	불재
	한 자	尹孝重	호(한자)	弗齋
	영 문	Yoon, Hyojoong	학력	동경미술학교 목조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7 - 1967
	경 력	1944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 <현명> 특선 1942-1945년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사 1948-1954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홍익대학교 교수 1949-1964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1954-1958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장 1954년 대한미술협회부위원장 1955-1966년 제1-3대 예술원회원		
	주 소			
	전 화			
	제 목	(한글) 아침(물둥이를 인 여인) (한자) 朝		
작 품	제작 년도	1940년		
	재료 기법	목조		
	규 격	125×48×48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孝作
	위 치	대좌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목조 본연의 균열이 존재하므로 온도와 습도가 잘 조절되는 환경에서 전시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삼성미술관 리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140-89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7-18		
		전 화	02-2014-6900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40	제19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
1999	<근대를 보는 눈, 조소> (국립현대미술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1940년 19회 조선미술전람회 도록에는 “(조(朝) 경성 윤효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수건을 쓴 머리 위에 따리를 댄 채 물동이를 인 한복입은 여인상이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였고 양소매는 둘둘 말아올렸다. 왼손은 내리고 오른손은 머리에 인 물동이를 받치고 있는데 고무신 신은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고 왼발은 지면에서 뒷부분이 들려지고 있어서 걸음을 걷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살짝 앞코가 들려진 긴 저고리 아래 인물의 왼쪽에는 두 줄기 치마끈이 내려오고 오른쪽에는 옷고름이 단정히 역시 두 줄 내려와 치마끈과의 거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둘러입은 치마는 수직으로 주름져 단정하며 고전적인 인상을 풍긴다.

아직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지만 본격적인 작가로서 활동하던 윤효중의 이 작품은 일본에서 배운 목조기법을 충실히 재현한 것으로서 기교보다는 완벽한 형태의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들어올린 오른팔과 머리에 인 물동이 사이의 공간과 내려뜨린 왼팔과 몸체 사이의 공간은 공예적인 목작에서부터 조각적인 작품으로 상승시키는 요소이다. 그러한 적극적인 조각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주제가 드러나지 않는, 조선의 향토색을 표현한 것으로 전통을 소재주의적 측면에서 접근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당시 공예적인 목작류로 보이던 조선미술전람회의 목조에서 윤효중의 이 작품은 본격적인 목조를 보여주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입선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작가는 “무엇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이제부터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입선되었다니 뜻하지 않은 일이나 같이 기쁩니다. 목조는 잘들 하려고들 안 하여도 근년도 출품이 적은 듯한데 제 작품이 입선되었다니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 윤효중의 스승이자 조각가이며 비평가였던 정관 김복진은 이 작품을 조선미술전람회가 생긴 이후로 비로소 정지한 목조 기법을 갖춘 작품이라고 높이 평하며 ‘선전 조각부에 새로운 일신을 가하였’다고까지 하였다. 비록 일본에서 기법을 배워왔다고는 하여도 그의 작품 <현명>에 비하여서는 단지 표면을 장식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표면을 쳐내어 일종의 마띠에르를 만들어내는 일본적 기법인 나타보리(彫彫り)기법이 덜 나타나고 있을 뿐더러 사라져가는 조선의 목조를 계승적 차원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다.

국가기록원의 영상자료 중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찬가> 화면에는 경무대에서 부인 프란체스가 여사와 환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이 작품이 경무대 소장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조선미술전람회 출품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구입하였거나 기증되었던 것을 경무대에서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는 호암미술관 후신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드물게 남아 있는 윤효중의 초기작 중 하나이다. 또한 당시 미술계에서 주목받은 작품이며,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창조라는 조각가의 고민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이후 한복입은 여인상을 많이 제작하였는데 그 중 유독 이 작품만이 시국색의 표현이나 일본에의 협조 등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순수감상용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작품에 대해 김복진은 “<아침>은 선전이 생긴 이후 비로소 정치적인 목조수법을 갖춘 작품이니 만치 여러 가지로 흥미를 가지게 하나니 과거에 데라하다 간노스케 씨가 목조소품을 보여준 것과 3년 전만 해도 황해도 모 공직자의 희작이 있었으나 이는 본래 목조의 범주에 들지 못할 것이었으니, 윤군의 <아침>이야말로 선전 조각부에 새로운 일신을 가한 점으로 권속이 적지 아니하며”라고 하였다.

이 작품은 또한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근대기 조각 중 완벽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나무를 파내어 형태를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 사라진 조선의 목조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의 다른 작품에 비하여 조선의 전통이 비교적 많이 발현되어 있다. 대좌 위에 뒹은 두 발 사이가 뚫려 있으면서도 안정적이어서 목조인 이 작품의 무게중심이 정확히 잘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토색이라는 풍토에서 생산된 작품이지만 목조의 전통적 요소를 갖춘 점, 목조로 사실적인 조형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다.

○ 작품 사진



12. 윤승옥 <피리부는 소녀> 1941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윤승옥	호(한글)	
	한 자	尹承旭	호(한자)	
	영 문	Yoon, Seungwook	학력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5-1950(?)
	경 력	휘문고등학교에서 장발에게 지도받음 1934-1939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소조부 1938년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풍운> <한일> 입선 1939년 제18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한일> <소품습작> <육녀> 입선 1940년 제19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어떤 여자> 입선 1941년 제2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피리부는 소녀> 특선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각과 교수, 조선조각가협회 회원		
	주 소			
	전 화			
	작 품			
작 품	제 목	(한글) 피리부는 소녀 (한자)		
	제작 년도	1941년		
	재료 기법	석고에 채색(1971년 청동 주조)		
	규 격	148.8×35×33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석고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실에서 2010년에 보존처리하였다. 다리 부분이 뒤틀려 균열이 가기 시작하여 다리에 철심을 박고 보강재를 넣었다. 석고이므로 습도와 오염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국립현대미술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427-7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전 화	02-2188-6312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41	제20회 조선미술전람회 특선
1972	한국근대미술 50년전
1999	<근대를 보는 눈, 조소> (국립현대미술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연구자 최태만은 윤승옥의 석고작품 <피리부는 소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파손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것을 윤승옥의 서울대학교 제자인 최의순이 복원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현대조각사연구』, 아트북스, 2007) 이경성은 ‘1972년 <한국근대미술 60년전>에 출품하였던 이 작품은 오른쪽 팔뚝이 망가졌었는데 이를 보수하여 청동으로 주조하였으며, 보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가가 직접 제작한 손맛 그대로’라고 하였다. (『한국근대미술』 15, 동화출판공사, 1975.) 국립현대미술관 수리복원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석고원형은 내부, 특히 다리 부분이 뒤틀리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다리에 철심을 박아 보강하였다고 한다. 현재 미술관 내의 전시장에는 이 석고상을 청동 주조한 것이 전시되고 있다.

동경미술학교 재학 당시부터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던 윤승옥은 1939년에 동경에서 개최된 로마 전시를 위한 종교미술 공모전에 <그리스도 입상>을 출품한 적이 있고, <복자(福者) 김대건 신부상>을 대리석으로 조각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있다.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각과 교수가 되었으며, 1949년 제1회 국전 조각부 추천 작가와 심사위원에 위촉되었으나 작품을 출품하지는 않았고 심사에도 참여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당시 학생과장이었던 그의 활동에 불만을 품은 좌익계열의 학생들에 의해 불려나간 뒤 행방불명되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나체의 소녀상은 세로로 피리를 들고 왼손은 피리의 위쪽에, 오른손은 아래쪽에서 손바닥을 바깥으로 하여 잡고 있다. 무게중심은 오른쪽에 두어 왼쪽 무릎이 구부러져 있다. 사각의 대좌에 오른발은 앞을 향하고 왼발은 옆을 향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소녀상이나 소년상 등은 동경미술학교에서부터 훈련을 받은 충실한 인체 묘사의 대상이었다. 윤승옥은 이러한 단순 나체상에 피리라는 도구를 결합하여 이야기 구조를 실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악비천상의 도상을 원용함으로써 전통의 계승을 실현하였다. 1940년대 들어 스즈가와 아사히(鈴川旭)라고 창씨개명까지 하고 열심히 조선미술전람회에 참여하였던 그는 1943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정공(征空)>이라는 군국주의적 작품을 출품하였다. 1941년 20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특선을 한 <피리부는 소녀>는 작가가 정치적인 성격의 작품을 제작하기 이전의 순수한 감정과 미의 표현을 추구한 작품으로서 인체의 골격과 근육, 피부 등을 표현하는 데 힘을 기울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피리부는 인물의 도상은 이후 ‘소리’라는 매체를 조각에 도입한 많은 작품들의 원조 격이 되었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윤승옥은 인체의 모델링에서 뛰어난 기량을 갖춘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당시 동료 작가들의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감정의 표현이 도드라진다. 즉 나체를 통한 인체의 충실한 묘사를 배우는 시기에 윤승옥은 인체의 포즈나 인체상이 지닌 도구를 이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목욕하는 인물이 허벅지에 수건을 대고 문지르고 있는 것이나 피리를 부는 행위 등은 일상적이어서 당시 순수의 경계에 있던 작품을 인간화시키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청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이러한 장치는, 근대작가들이 인체의 조형미 표현을 익혀가는 과정으로서 나체를 다룰 때, 완성된 하나의 구조로서 인체를 제시한 것을 인정케 한다. 관객에게 조각의 대상을 인지하게 하고 일상성을 담은 이러한 작품이야말로 근대성이 발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1941년 제20회 조선미술전람회 특선작으로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작품이 거의 유존하지 않는 현재, 주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청동상을 전시하고 있지만 1941년에 만든 것이 확실한 작가가 직접 만든 석고본이라는 점은 보존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이다.

○ 작품 사진



13. 백문기 <K신부상> 1941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백문기	호(한글)	석운
	한 자	白文基	호(한자)	石雲
	영 문	Paik, Moonki	학력	서울대학교 조소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27-
	경 력	1927년 서울 출생 1949년 제1회 국전에 <L부인상> 특선 195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50-1959년 대한미술협회 조각분과 위원 1958년 브뤼셀 국제미술전 참가 1974-81년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1958-67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 소			
	전 화	()	휴대폰	
	제 목	(한글) K 신부상 (한자) K 神父像		
작 품	제작 년도	1941년		
	재료 기법	석고에 채색		
	규 격	45 × 40 × 42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1941
	위 치	바닥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보존방향	현재 이 작품은 작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적 기관이 소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작가소장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전 화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99	근대를 보는 눈, 조소 (덕수궁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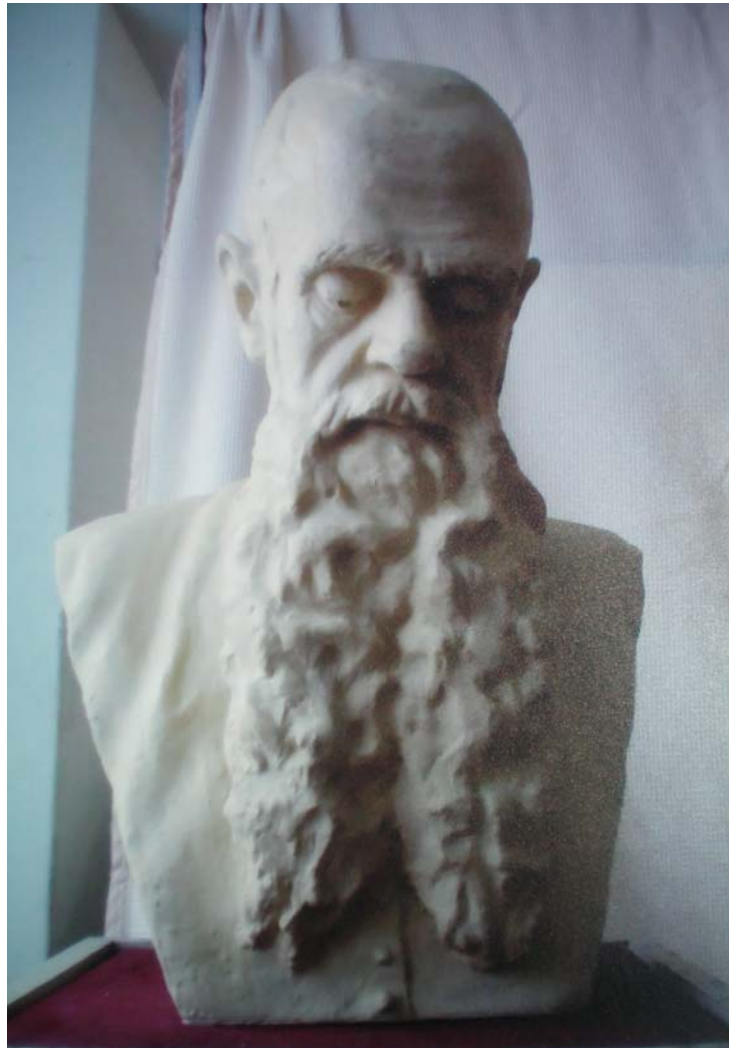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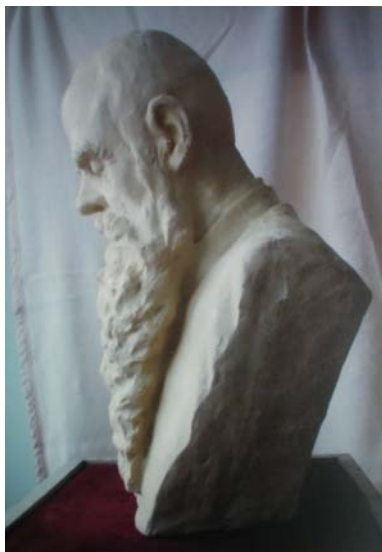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백문기는 광복이후 서울대학교 조소과에서 교육을 받았던 조각가지만,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동경미술학교 출신의 조각가들에게서 조각의 기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 신부상>은 프랑스인 ‘콩베르 신부’의 초상조각인데, 광복 이전에 작가가 중학교 재학 시절에 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개념의 조각이 유입될 때 주로 인물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누드상이거나 초상조각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초상조각이 존재했지만 실제 인물을 보고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에 제작하여 죽은 이를 기리거나 유지를 받들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근대기에는 실제 인물을 직접 보고 모델링하여 재현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는 주인공의 실제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거나 그의 공훈을 세상에 알리는 데 활용되었다. 따라서 초상주인공이 조각가에게 초상조각을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K신부상>은 불어를 가르쳐 준 콩베르 신부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다. (K신부의 거절로 작가가 소장하게 됨) 이는 아직 작가가 미술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인 중학교 시절에 제작한 것인데, 이미 조각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K 신부상>은 석고로 제작되었고 표면에 흰색물감이 발라져 있다. 근대기에 적잖은 석고인물상들이 제작되었지만 6·25전쟁을 치르면서 대부분 파손되어 현존하는 작품이 거의 없다. 백문기는 6·25전쟁 동안에는 이 작품을 땅에 파묻어 파손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백문기는 광복 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하여 조각을 공부했으며, 제1회 국전에 <L부인상>을 출품하는 등 전문적인 조각가로 활동을 했다. <K 신부상>은 초상 주인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근대조각의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석고라는 근대기의 대표적인 조각재료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백문기의 <K 신부상>은 광복 이전에 제작된 석고로 제작된 초상조각 중에서 원작이 보존된 매우 드문 예이다. 이 작품은 광복 이전의 조각의 특징인 초상조각의 형식을 띤 점, 사실재현적인 표현양식인 점,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석고가루의 사용, 깨끗하지 못한 석고의 표면을 감추기 위해서 물감을 칠한 점 등 우리나라 근대조각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

○ 작품 사진



14. 윤효중 <현명> 1942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윤효중	호(한글)	불재
	한 자	尹孝重	호(한자)	弗齋
	영 문	Yoon, Hyojoong	학력	동경미술학교 목조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7 - 1967
	경 력	1944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 <현명> 특선 1942-1945년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사 1948-1954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홍익대학교 교수 1949-1964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1954-1958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장 1954년 대한미술협회부위원장 1955-1966년 제1-3대 예술원회원		
	주 소			
	전 화		휴대폰	
	제 목	(한글) 현명 (한자) 弦鳴		
작 품	제작 년도	1942년(1944년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		
	재료 기법	목조		
	규 격	165.8 × 119 × 36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一九四二, 六, 尹孝重 作
	위 치	대좌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목조 본연의 균열이 존재하므로 온도와 습도가 잘 조절되는 환경에서 전시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국립현대미술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427-7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전 화	02-2188-6312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44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 창덕궁상
1999	근대를 보는 눈-조소(국립현대미술관)
2004	식민지 조선과 전쟁미술전(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한복 입은 여인이 활쏘기 하는 모습을 일본 전통 목조기법인 평꼐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처내는 나타보리(駝彫り)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한껏 뻗은 왼팔에는 소매를 감아 활을 쏘 때 편리하게 하는 팔찌를 착용하였고 손에는 활이 들려 있다. 왼손과 일직선이 되도록 오른손은 주먹을 쥔 채 가슴 앞에 들려져 있다. 그런데 활의 공간이 뒤로 당겨지면서 궁체가 줌손을 중심으로 쌍곡선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선이 활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 시위와 화살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시위를 엮은 순간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인은 몸에 꼭 맞는 저고리를 입었고 치맛자락을 오른쪽으로 둘러입고 궁대를 허리에 매고 살을 치고 있다. 둥근 나무의 성격의 그대로 드러나는 대좌에는 과녁을 향하여 바로 뒀은 왼발과 발 기장보다 약간 뒤로 끌어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는 발디딤의 원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작가가 국궁이라는 사실에 충실한 묘사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한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들려진 팔과 시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처든 머리, 상체의 부드러운 굴곡을 드러내는 저고리와 휘감아 입은 치마에 의해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 인체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한껏 벌린 왼팔에 의해 하체보다 윗부분이 넓은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이전의 목조각들과는 구별되는 확대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1944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낙랑과 경주에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마음과 기술을 현대에 나타낸 반도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신흥조소의 발흥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최고의 봉공이다’라는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창덕궁상을 수상하였다. 작가는 “시국의 진전에 따라 조선 여성들이 각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태와 아울러 조선 의복의 미를 재현하려고 했다”고 당선 소감을 발표하였다. 작품은 전람회 직후 당시 아베 조선총독이 고가로 구입하였다고도 전하는데, 당시 총독관저에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통령관저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무대’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관저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었으므로, 이 작품은 그대로 경무대에 보관되어 있다가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실각하자 그의 사저인 이화장으로 옮겨졌다. 이후 이대통령의 유족인 프란체스카 여사에 의해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 처리되었다. 故 이경성에 따르면 활촉의 일부는 나중에 보수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근대미술』 15, 동화출판공사) 작품의 대좌의 사인은 1942년에 제작한 것을 알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1944년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창덕궁상을 받았다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1942년 11월에 군국주의적인 친일 전람회인 반도총후미술전이 시작되었으므로 시국에 적극 협조했던 윤효중이 이 시기에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작품은 시대에 따라 한국 여인의 전통을 잘 표현하였거나 친일의 의지를 표명한 부끄러운 작품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어떠한 역사적 평가를 받건 불변하는 것은 석고나 동상 제작 등 서구적인 기법이 유행하며 전통적인 조각의 제작방식이 사라져가던 당시에 등신대에 가까운 목조를 보여줌으로써 전통의 재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 매우 우수한 신체 비례와 조각수법을 보인다는 점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그동안 이 작품은 한복 입은 여인의 단아한 자태가 민족적 전통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한복입은 여성의 기상을 표현하여 민족적 정서가 표출된 작품이라 평가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시국색’을 띤 작품으로서 군국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동원미술의 한 양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일제강점기 친일미술의 성격을 지닌 작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통나무를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들어가며 균일한 칼질로 마더에르를 극대화하였고, 긴장된 신체의 묘사가 뛰어난 작품임에는 이견이 없어서 연구자 최태만은 당대 세계 최고의 조각가 바를라흐(E. Barlach 1870-1938)의 조각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평가했다(최태만, 『한국조각의 오늘』, 1994).

근대기 조각작품으로서는 유존례가 많지 않은 목조이면서, 이전의 목조와는 다른 세련된 인체 비례와 주변공간으로 극대화한 덩어리로서 공간감의 구현, 매우 사실적인 묘사 등이 뛰어난 작품이다.

○ 작품 사진



15. 김경승 <소년입상> 1943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경승	호(한글)	표천
	한 자	金景承	호(한자)	瓢泉
	영 문	Kim, Kyungseung	학력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5-1992
	경 력	1934-1939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입학~졸업 1943년 조선미술전람회 추천작가 1948-1968년 서울시문화위원, 문교부예술위원 1949-197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창설위원, 역대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1956-1964년 홍익대학교 교수 1985년 대한민국예술원 정회원 개인전 2회(1977년 문화화랑, 1979년 진화랑)		
	주 소			
	전 화		휴대폰	
	제 목	(한글) 소년입상 (한자) 少年立像		
작 품	제작 년도	1943년		
	재료 기법	청동		
	규 격	140.5 x 38 x 34.4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보존상태가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국립현대미술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427-7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전 화	02-2188-6312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43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 (총독부미술관) <流>라는 제목으로 추천작가 출품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김경승은 1934년에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하여 1939년에 졸업한 한국의 근대조각의 1세대에 속하는 인물이다. 1939년에 <소년입상>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특선을 했고 이후에 <목동>(1940), <어떠한 감정>(1941), <여명>(1942)을 출품했다. <소년입상>은 1943년에 열린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추천작가로서 출품했던 작품이다. <조선미술전람회> 출품 당시에는 <流>라는 제목으로 출품했으나 후에 작가 자신이 <소년입상>으로 부르면서 <소년입상>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작가는 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소년을 보고 착상한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 <流>라는 제목의 기원을 짐작할 수 있다. 콘트라포스트(contrapposto) 자세로 서 있는 소년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 쿠로스 조각상으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면서도 아카데믹한 사실적인 묘사와 인체표면에 미묘한 질감을 살리는 표현방식은 일본인 선생 아사쿠라 후미오(朝倉文夫, 1883~1964)의 영향이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대기 인체조각의 전형적인 양식이 되었다.

근대기에는 적잖은 인체조각상이 제작되었지만 대부분 석고로 제작되었고 이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파손되어 현존하는 작품이 거의 없다. 더구나 등신대 크기의 전신상은 현존하는 예가 거의 없어 매우 귀중한 작품이다. 현재 이 조각상은 청동으로 주조되어 있는데, 원래는 석고조각상이었다가 1971년에 청동으로 주조했다고 작가가 밝힌 바 있다(김경승, [미술인이 펼치는 조형세계(1): 나의 대표작](한국일보), 1983. 2. 22.).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온전하게 보존되고 작가 생전에 청동으로 주조된 근대기 대표작품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우리나라 근대조각은 일본을 통해 서양의 조형언어를 수용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조각은 대부분 석고로 제작되었는데, 석고로 제작된 작품들은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6·25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 파손되었다. 청동으로 주조된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공출을 면치 못했던 탓에 근대조각의 현존작품은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경승의 <소년입상>은 전혀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었다가 1971년에 작가 생존 시에 청동으로 주조되어 작품의 원형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는, 보기 드문 작품이다. 김경승은 우리나라 근대조각의 1세대 조각가로서 광복 이전에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광복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창작활동을 지속했던 작가다.

○ 작품 사진



16. 김만술 <해방> 1947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만술	호(한글)	수월		
	한 자	金萬述	호(한자)	水月		
	영 문	Kim, Man-sul	학력	일본 히나코지츠조 (日名子實三) 조각연구소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1 - 1996		
	경 력	1911년 경북 경주 출생 1942-1944년 일본 히나코 지츠조(日名子實三)조각연구소에서 수업 1942년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 <박군의 상> 입선, 1944년 제23회 <와다나베씨의초상> 입선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소녀두상> 특선 1953년 국전 <흥상> 무감사 입선 1949-1951년 경주예술학교 교수 이후 경주에 정착하여 <김유신상> (1976, 경주 황성공원) 등 기념조형물 다수 제작				
	주 소					
	전 화	()	휴대폰			
	작 품	제 목	(한글) 해방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1947. 7
	위 치	우측 발 아래 좌대 위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표면에 먼지와 때가 많이 낀 상태로 작품 세척 필요. 크기가 작고 재질의 특성 상 파손 우려가 크므로 유리관에 넣어 보관 필요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개인소장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전 화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84	석고 원본; 해방기념 40년전 (국립현대미술관)
1999	청동주조물; 근대를 보는 눈 - 조소 (국립현대미술관)
2005	청동주조물; 한국미술 100년전 (국립현대미술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석고 <해방>은 김만술의 제자인 서양화가 관성 김준식이 소장하고 있다. 화상에게 넘어갔으며 현 소장자가 이를 구매하였다. 현 소장자는 석고 원형으로 틀을 떠서 청동 3점을 주조하였는데 그 중에서 2점은 현 소장자와 그의 자매가 나누어 소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1점은 다른 이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청동 주조물이 10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조 기술의 질이 떨어져서 원본의 섬세한 표현과 터치가 거의 전달되지 못할 뿐 아니라 주조 과정에서 원본에 검정색 얼룩이 생기는 등 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청동 <해방>은 이 주조물 중 하나이다. 원본인 석고상은 <<광복40주년 기념전>>(1984, 국립현대미술관)에 한번 전시된 이후 어떤 전람회에도 출품된 바 없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청동상이 몇 회에 걸쳐 전시회에 전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해방>은 몸에 묶은 밧줄을 풀어버리는 순간의 형상으로 민족의 ‘해방’을 은유한 조각이다. 왼손으로 밧줄을 짊 움켜쥔 채 몸을 묶은 포승을 풀고 있는 단단한 근육질의 사내는 상체를 약간 기울이며 앞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드러난 근육질의 몸과 크고 강한 손, 치켜 뜬 두 눈은 해방이 되었으나 정치사회적으로 혼란과 대립이 극심했던 시대에 대한 응축된 분노를 전달해준다.

국가와 역사에 대한 은유를 강인한 남성의 형상으로 은유한 작품으로 1959년작 <역사> I, <역사> II와 함께 김만술의 대표작에 속한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1947. 7 金萬述作’이라는 사인이 있어 제작년도가 확실하며 1940년대 조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희소성의 가치가 크다.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맞은 감회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수작으로 예술적 가치가 크다.

역사적 시대 상황을 은유한 작품으로 역사적·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 작품 사진



17. 문신 <고기잡이>액자 1948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문신	호(한글)	
	한 자	文信	호(한자)	
	영 문	Moon, Shin	학력	동경 일본미술학교 양화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23 - 1995
	경 력	1939년 동경, 일본미술학교 양화과 입학. 1945년 졸업 1945-1947년 서울, 마산, 부산, 대구 등지에서 《회화와 부조 전시회》 1948-1949년 제1. 2회 개인전(서울) 1961-1965년 1차 프랑스 체류 1965-196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강의 1957-1980년 2차 프랑스 체류 1970년 포르 발카레스(Port Bacades)에서 열린 국제 조각 심포지엄에 <태양의 사자> 출품 1980년-1990 마산에 문신미술관 건립		
	주 소			
	전 화	()	휴대폰	
	제 목	(한글) <고기잡이> 액자 (한자) <漁夫> 額面		
작 품	제작 년도	1948. 8		
	재료 기법	나무에 칠		
	규 격	55.2 × 181.3 × 9.7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48.8 moon 信
	위 치	그림의 우측 화면 상단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보존방향	나무에 조각하여 칠을 한 부조로 부분적으로 칠이 벗겨진 상태. 그림(유화)도 캔버스 표면이 처짐. 현재 아크릴 박스형 투명 액자에 넣어 보관 중이나 보관 환경이 좋지 않음. 부조 액자와 그림 모두 수복을 요함.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개인소장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전 화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49	제2회 개인전 (서울, 동화화랑)
2005	한국미술 100년전 (국립현대미술관)
2008	화가 문신 (고양 문화재단 어울림미술관)
2008~2009	한국근대미술걸작전 (국립현대미술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이 작품은 어부들이 배 위에서 줄을 당기며 고기를 잡는 광경을 그린 그림의 액자틀로 작가가 직접 조각한 나무 부조로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다 밑에서 작업을 하고 나오는 과정을 나무로 깎은 후 짙은 갈색 칠을 하였다. 바다 위에서 검붉은 상체를 드러낸 어부 군상의 그림과 바다 밑에서 작살로 고기를 잡는 해녀들의 액자 틀 부조는 신정부 수립기의 희망과 포부가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의 액자로서 단순히 장식적 효과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 의식을 한층 강화시키는 동시에 조각 자체로서의 뛰어난 구성력과 예술성이 돋보인다.

제작연도는 그림 우측 상단에 "48.8 moon"이라고 적혀있고 이어서 "信"이라는 주문방인이 찍혔다. 해방 직후 바다 근처 구마산(舊馬山)의 아틀리에에서 어린 시절 고기잡이 어장배에 따라가 놀던 시절을 회상하여 그렸다는 내용과 조각으로는 초기작이라는 언급이 작가가 현 소장자에게 보낸 편지에 적혀있다.

그림과 액자 틀을 연계해서 작가가 직접 제작한 예로 <고기잡이> 외에 <건설>, <바다> 라는 작품이 있다. 모두 1948년경에 제작되었는데 <건설>은 현재 유실된 상태이고 <바다>는 해녀들을 조각한 그림 틀로 <고기잡이>와 유사하지만 조형적 측면에서 <고기잡이>가 더 뛰어나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1948년 새로운 정부 수립기의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낸 작품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그림과 연동된 주제를 구상하여 작가가 직접 액자 틀을 부조 형태로 제작한 작품으로 희소적 가치가 있다.

구성력과 예술성이 높은 초기 조각품으로 미술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다.

○ 작품 사진



18. 김종영 <소녀상> 1950년대 초반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종영	호(한글)	우성
	한 자	金鍾瑛	호(한자)	又誠
	영 문	Kim, Chongyung	학력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5 - 1982
	경 력	1941-1943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소조부 입학과 졸업 1948-198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재직 1953-1980년 국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1955-1965년 서울시문화위원 1959-1961년 문화재보존위원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출품 1976년 예술원회원		
	주 소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3-2 김종영미술관, http://www.kimchongyung.com/		
	전 화	(02) 3217-6484	휴대폰	
	제 목	(한글) 소녀상 (한자) 少女像		
작 품	제작 년도	1950년대 초반(1951-52년) 추정 (기존 1936년 추정)		
	재료 기법	석고		
	규 격	42 × 27 × 22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오랜 동안 고향집의 다락방에 격리되어 있어 상태가 양호하다.	
보존방향	김종영 미술관에서 계속해서 소장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김종영미술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53-2 김종영미술관 http://www.kimchongyung.com/		
		전 화	02-3217-6484	휴 대 폰	
		팩 스	02-3217-6483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82. 1	조각가의 아들 김익태가 창원 고향집에 내려가 다락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하고 서울로 가져와 병석에 있던 김종영으로부터 직접 작품의 내력을 확인하였다. 당시에는 1936년 작품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1951-1952년 작품으로 재추정하고 있다.
2002	김종영: 인생·예술·사랑 (김종영미술관)
2005	한국 현대조각의 선구자 김종영 (국립현대미술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이 작품은 조각가 김종영의 아들 김익태가 1982년 창원 생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품으로, 작가가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진학 한 1936년 여름 방학 때 본가에 다니러와 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해서는 1983년 2월 24일자 『중앙일보』, 「작고 彫刻家 金鍾瑛씨의 36년 제작 석고상 발견」이라는 기사에 내막이 실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작품이 1950년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임하던 중 학생들에게 석고 소조를 가르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연도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1936년 제작된 <조모상>과 비교하여 <소녀상>의 석고 상태가 깨끗하고 인물을 모델링하는 기량이 우수하여 1950년대 초반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유족도 1950년대 초반 제작 설이 더 유력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 작품은, 두 갈래로 머리를 뺏아 내리고 약간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아래로 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심리적 세계도 포착하고 있어 습작을 넘어 본격적인 흉상조각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한국 근대조각의 출발자인 김복진의 자소상 <삼년전>(1925, 망실)이나 <백화>(1938, 망실)에서 보이는 사실적인 근대 조각양식을 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종영의 사실적인 구상조각으로, 작가의 인물 소조 제작 기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 작품 사진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석조이기 때문에 마모와 파손의 위험이 있어 계속해서 주의를 요함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개인소장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전 화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3	제38회 二科展, 특대상
2007	한국적 리얼리즘 조각, 권진규 특별展 (장흥 아트파크 RED SPACE미술관)
2009	權鎭圭展 (武藏野美術大學校, 東京)
2010	權鎭圭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덕수궁)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1953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38회 니카텐(二科展)에 <馬頭>와 함께 출품하여 특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무사시노미술학교 이사장인 다나카 세이지(田中誠治)가 소장했던 것을 후에 유족이 구입하였다.

당시 무사시노미술학교 수업 과정에는 석조 전통이 없었는데, 권진규가 조각과 3학년(1951년) 부터 석조 작업을 시작, 그 영향으로 많은 일본인 학우들이 석조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화물 운반 마차가 항시 왕래하던 기치조지(吉祥寺) 역 앞에 가서 말을 데생하고 기치조지의 묘석 가게에서 안산암(安山岩, 중성 성분의 화산암)을 구매 제작하였다.

권진규는 주로 인물상과 동물상을 제작했는데 동물상 중에서는 특히 말을 즐겨 다루었다. 사각형의 돌에 인체와 말 형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기사>는 형식적 완결성이나 세부 묘사보다 미완의 형태를 선호하여 소박미와 고졸미를 획득하였다. 기하학적 구조로 단순화시킨 구성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풍화되어 생긴 안산암의 질감이 어우러진 <기사>는 권진규의 초기 양식이 잘 드러난 대표작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권진규의 초기작이며, 니카텐(二科展) 특대상 수상작으로 미술사적·자료적 가치가 높다. 초기작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조형적으로도 뛰어나 예술적 가치가 높다.

○ 작품 사진



20. 권진규 <나부> 1953년경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권진규	호(한글)	
	한 자	權鎮圭	호(한자)	
	영 문	Kwon, Jinkyu	학력	무사시노미술학교 (武藏野美術學校) 조각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22 - 1973
	경 력	1922년 함남 함흥 출생 1947년 이쾌대가 운영하는 성북회화연구소에서 실기 배움 1949년 9월-1953년 3월 일본 무사시노미술학교(武藏野美術學校) 조각과 입학~졸업 1952년 二科展에 <백주몽> 입선 1953년 二科展에 <기사>, <마두>로 특대상 1954년 二科展에 <마두> <말> 입선 1959년 귀국 1965년(신문회관), 1968년(日本橋畫廊, 東京), 1971년(명동화랑)에 개인전 개최		
	주 소	(-)		
	전 화	()	휴대폰	
작 품	제 목	(한글) 나부 (한자) 裸婦		
	제작 년도	1953년경		
	재료 기법	석고		
	규 격	167 × 63.7 × 35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재질 특성 상 충격, 습도에 취약하므로 보존에 신경을 써야 함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국립현대미술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427-7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전 화	02-2188-6312	휴 대 폰	
		팩 스	()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2009	權鎭圭展 (武藏野美術大學校, 東京)
2010	權鎭圭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덕수궁)
2011	신소장품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1949년 9월에 무사시노 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한 권진규는 조각과 교수이자 부르델(Emile Antoine Bourdelle, 1861-1929)의 제자였던 시미즈 다카시(清水多嘉示 1897-1981)를 통해서 부르델의 조각을 접하고 크게 영향을 받았다. 아카익한 형태와 미감, 거친 재질감으로 내면을 표출하고자 했던 권진규 조각의 특질은 부르델에게서 비롯된 바 크다.

등신대 크기의 석고 누드 입상인 <나부>는 무사시노미술학교 졸업 작품으로 1953년 졸업한 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작가 특유의 작품세계를 형성하기 이전인 학창시절 작품이지만 균형 잡힌 모델링, 자연스러운 동세, 풍성한 볼륨감에서 조각가로서의 뛰어난 소양이 드러난다. 정확한 데생에 근거하여 안정된 구조와 조형을 추구했던 스승 시미즈 다카시의 조각과는 달리 볼륨을 강조하고 석고 표면의 거친 터치로 표현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작가의 졸업 작품이자 초기작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석고상이어서 보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학창시절 작품으로 수업 과정과 초기 양식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 등신대 크기로 규모가 크고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예술적 가치가 있다.

○ 작품 사진



21. 문신 <남자 나상> 1954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문신	호(한글)	
	한 자	文信	호(한자)	
	영 문	Moon, Shin	학력	동경 일본미술학교 양화과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23 - 1995
	경 력	1939년 동경, 일본미술학교 양화과 입학 1948-1949년 제1. 2회 개인전(서울) 1961-1965년 1차 프랑스 체류 1965-196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강의 1957-1980년 2차 프랑스 체류 1970년 포르 발카레스(Port Bacades)에서 열린 국제 조각 심포 지엄에 <태양의 사자> 출품 1980년-1990 마산미술관 건립 1987년 재단법인 문신미술관 이사장 1995년 경남대학교 명예 문학박사 학위		
	주 소	(-)		
	전 화	()	휴대폰	
	제 목	(한글) 남자 나상(생각하는 사람) (한자) 男子 裸像		
	제작 년도	1954년		
작 품	재료 기법	시멘트, 회벽토, 콘크리트		
	규 격	좌대 52×78×58cm, 인물상 137×52×58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moon 信 54
	위 치	기단 원편 중앙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오랫동안 야외에 놓여 있어서 원래의 푸른색 칠이 거의 사라지고 콘크리트 회벽토가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깨진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없다.	
보존방향	청동 보존용 복제를 하고 원작은 미술관에서 소장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개인소장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전 화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4	마산에 안某的의 주문으로 제작하여, 주문자의 정원에 놓여 있었음
1970년대 초	현 소장자가 마산에서 사진문화사를 열고 있던 한 개인으로부터 구매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이 작품은 1954년 문신이 마산의 유지 안 씨로부터 정원을 장식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작한 작품이다. 그러나 문신은 주문자의 뜻과는 달리 작품이 로댕의 작품과 똑같아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시 자신의 아틀리에를 드나들던 제자, 오군을 모델로 세워 이 나상을 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문신이 현 소장자에게 보낸 1973년 편지 내용). 고개를 깊이 숙이고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유사하지만 왼발 대신 오른 발을 올리는 등의 변화를 통해 모방작이 되지 않도록 한 흔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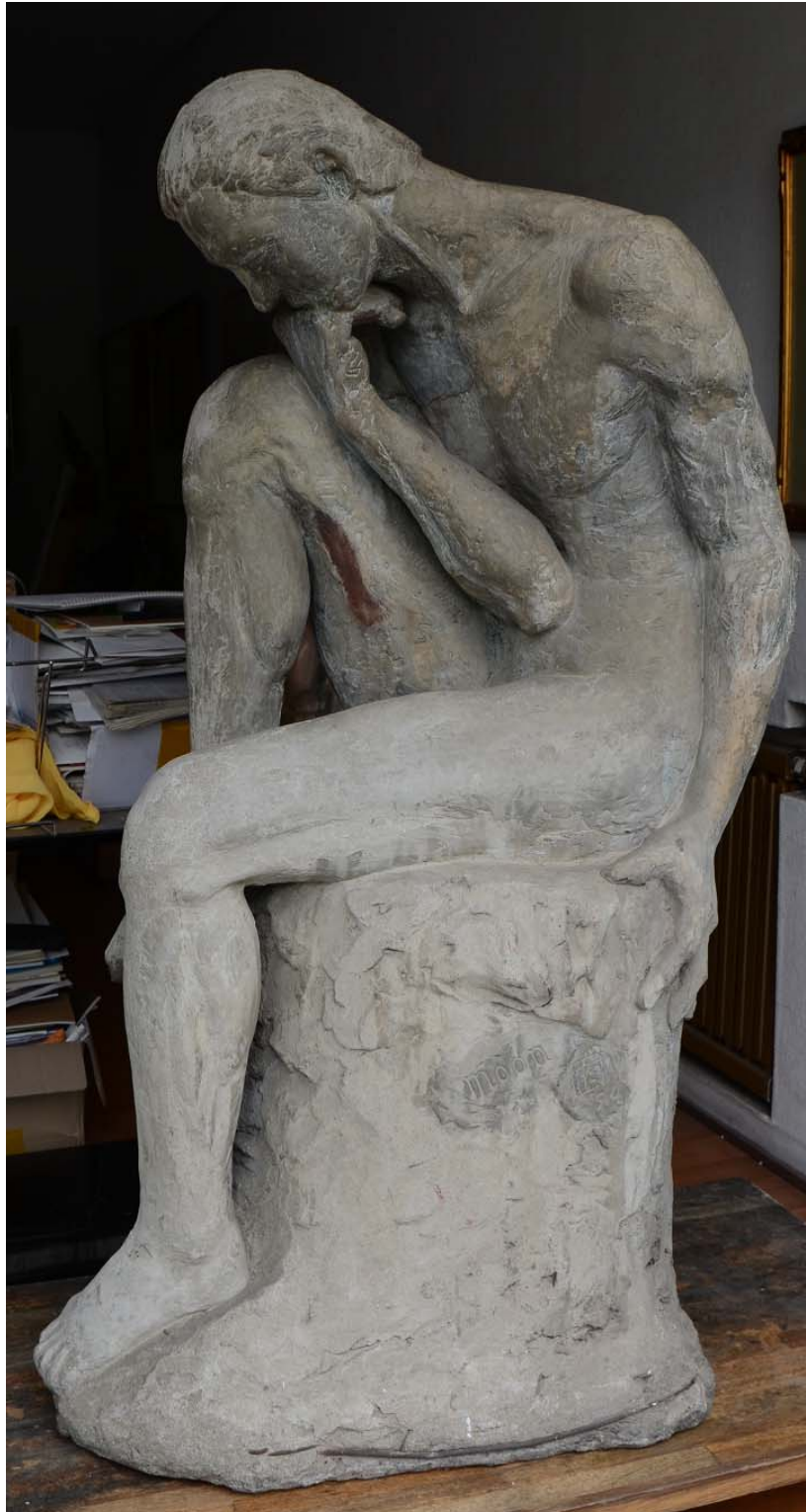
이 작품은 두 팔과 가슴이 다소 왜소하고 인체의 비례가 어색한 점이 있으나, 인물의 구조에 대한 이해나 내면의 표현은 단순한 습작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문신이 조각에 대해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조각가로서의 자질이 일찍부터 발현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신은 청소년기 마산 시절부터 간판제작, 태서명화의 화방일과 같은 생업을 통해 미술을 배웠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에서 얻은 예술적인 훈련과 감각은 이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해방공간과 6·25 한국전쟁기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 본격적인 조각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로 건너간 이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은 그가 1950년대 이미 등신대 인물 누드상을 제작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1970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조각가로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문신의 1950년대 전신 인물상으로, 작가의 초기 조각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초반, 6·25 한국전쟁으로 순수조각이 거의 제작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신상에 육박하는 문신의 이 <男子 裸像>은 고난의 시대에 이루어진 예술적 성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작품 사진



22. 송영수 <가족> 1954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송영수	호(한글)	
	한 자	宋榮洙	호(한자)	
	영 문	Song, Youngsoo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30-1970
	경 력	1953-56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연속 특선 1957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브뤼셀만국박람회 작품출품 1967년 상파울루비엔날레 작품 출품 1962-1970년 서울대학교 교수		
	주 소	(-)		
	전 화	()	휴대폰	
작 품	제 목	(한글) 가족 (한자) 家族		
	제작 년도	1954		
	재료 기법	석고에 녹색 유화물감 채색		
	규 격	125 × 65 × 40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보존방향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유족소장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전 화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4	제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
1971	송영수 회고전 (그로리치화랑)
2010	송영수 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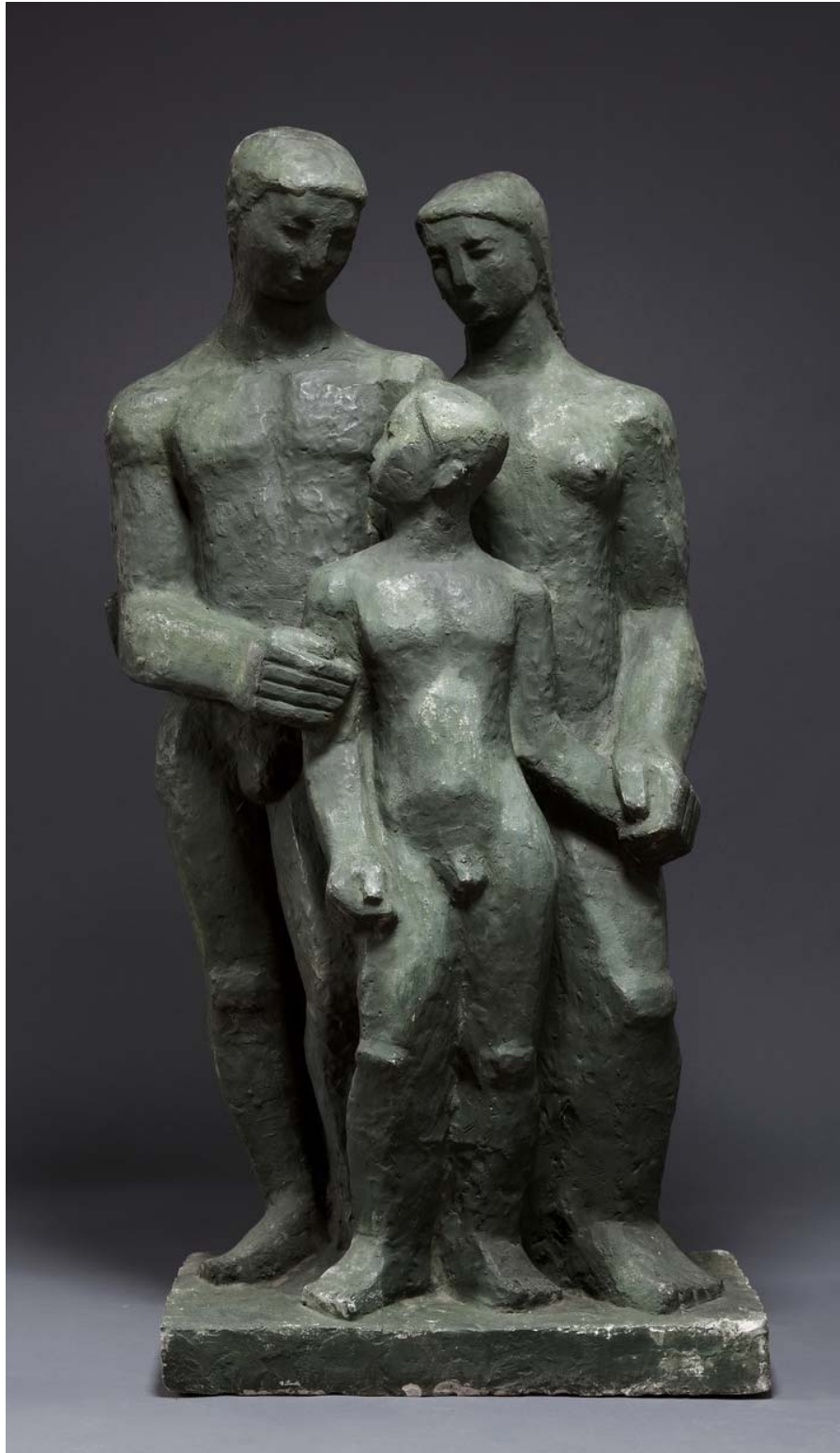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부모와 아이가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가족상이다. 사실 묘사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세부표현을 생략하면서 면을 살리는 방식으로, 큐비즘적인 요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양식은 석고라는 표현재료와 가족이라는 주제에서 1950년대 전반기의 시대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선 표현 재료인 석고는 1950년대에 주된 조각의 재료였다. 그리고 석고상의 표면에 채색된 점(주로 청동상을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동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녹색계열의 유화물감으로 채색했음) 역시 시대적인 특징이다. 양식적으로 세부의 질감을 생략하고 단순화시켜 큐비즘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점 역시 당시 작가들이 현대적인 조각을 추구하기 위해 표현 방식이었다. 가족이라는 작품 제목은 6·25전쟁 이후에 회화와 조각 모두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을 잃거나 이산으로 가족이 해체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석고상에서 주조한 청동상 1점이 더 있는데, 석고상과 청동상 모두 유족의 소장품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작품의 표현양식, 재료, 주제적인 측면에서 6·25전쟁 직후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작품이다. 당시에 모던하다고 인식되던 큐비즘적 요소를 도입한 점, 그리고 1950년대에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에 흔히 사용하던 석고를 사용한 점, 그리고 전후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애착 등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특히 당시에 수많은 석고상이 제작되었지만 석고라는 재료의 특성상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현존하는 작품이 많지 않은데, 이 작품은 전혀 손상되거나 보수되지 않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가치가 크다.

○ 작품 사진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김정숙
	위 치	뒷면 하단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라임스톤 특성상 제작 당시 유백색이었을 조각이 좀더 노란색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시 중 조도와 먼지 등 오염과 탈색에 유의.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삼성미술관 리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140-89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7-18		
		전 화	02-2014-6900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62	제1회 김정숙 조각전(서울 신문회관)
1999	근대를 보는 눈-조소(국립현대미술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김정숙의 <키스>는 작가가 미국 Cranbrook Academy of Art 대학원에 유학하던 시절인 1956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1962년 제1회 개인전에 출품되었다. 1955년 한미재단 후원으로 미국유학을 떠난 작가는 이듬해 크랜브룩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크랜브룩 시절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이었다. 쓸쓸할 때면 호숫가에 혼자 나가 백조를 바라보다가는 외로움이 복받치면 벌렁 드러누워 울기도 했다. 그때 만든 작품엔 그 감정들이 그대로 담겨서인지 애정표현이 많은 편이다. 돌 조각 작품인 <키스>, 두고 온 아이들이 모델이 된 <모자상> 등은 모두 그때의 작품들이다.”라고 하였다. 언뜻 브랑쿠시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키스>는 형식보다는 그 속에 담긴 감성적인 내용을 읽어내야 하는 작품인 것이다. 작가는 「돌과 나」란 글 속에서 이 작품을 제작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학시절 묘비를 만드는 돌공장에서 두 자 길이에 한 자 폭썸 되는 라임스톤 한 토막을 사온 뒤 주임 교수인 체임벌린에게 무슨 조각을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생각도 조각도 모두 김정숙 자신이 할 일이라고 하였다. 두어 주일 지난 뒤 혼자 구상하고 다듬은 것은 길쭉한 돌 위에 기다란 남녀의 얼굴이 입을 맞대고 있는 ‘키스 신’이었다. 작가는 선생이 “멋있는 걸작이다. 표현법이나 감정표현이 다 잘되었다”고 평했다고 적고 있다. 그는 또한 교수가 ‘요전에 울더니 그 동안에 이 찬 돌 위에 뜨거운 키스를 부어놓았다.’며 떠들어 여러 학생들이 찬사와 감격과 위로를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김정숙은 「브랑쿠시의 예술세계와 추상의 의미」라는 논문에서 로댕과 브랑쿠시의 동일명 작품인 <키스>를 비교하면서 브랑쿠시의 작품에서는 대좌나 어떠한 부속적인 부분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직 연인들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현실적 공간에서, 조각과 사물로서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간 속에 그냥 놓여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물이나 접촉되는 공간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사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키스>는 주변에 제약을 받지 않는 독립된 형태로서 존재하는데 그것은 평론가 이경성이 지적한 것처럼 “친애의 감정이 감도는” 감성을 극대화한 결과인 것이다. 한편 평론가 이일은 순수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디테일이 억제되고 단순한 볼륨과 선이 전체의 형태 속에 하나의 매스로 통합’되고 있다며 추상적 형태감에 대해 설명하였다.

작품은 직육면체였던 돌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형태감을 끌어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반을 나누어 오른쪽보다 왼쪽은 약간 키가 작은 인물이 오게 하였고, 두 얼굴이 측면에서 맞닿고 있다. 턱과 눈, 입의 간략한 표현을 통해 하나이되 둘인 상태를 나타내는 이 작품은 부드러운 우윳빛 돌색에 의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1962년 1회 개인전에 출품작으로 순수한 형태의 단순한 표현을 추구한 추상조각의 본질을 시도하는 작가의 초기작으로 의미가 깊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1957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김정숙의 개인전을 본 Henry J. Seldis는 “브론즈와 대리석 조각에 있어 월등한 기술의 소유자인 김 여사는, 서양적인 영향을 그녀 자신의 나라와 조화롭고도 율동적으로 힘찬 조각적 형태로 소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이 작품을 서양의 눈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였을까 하는 부분에서 참고가 되는 글이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남녀의 감정을 입맞춤이라는 행위로 상징화하고 있다. 표현에 있어서는 오브제로서 돌 자체의 형태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간과 조각의 관계 속에서 조각적 형태가 완성되는 방식이 아닌, 오로지 형태에만 주목하게 하는 형태적 순수성을 추구하고 있다. 추상조각의 다양한 방식 중에서 형태의 단순화, 볼륨감을 중시하는 동시에 기존의 표현방식과 다른 새로운 것을 창안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이 자신의 감정을 실어 형태를 완성해간 작가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한국 현대조각사에서 감정이나 관념을 중시하였던 초기 추상조각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작품으로서 의의가 있다.

○ 작품 사진



24. 김세중 <토르소> 1957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세중	호(한글)	
	한 자	金世中	호(한자)	
	영 문	Kim, Sechoong	학 력	서울대학교 조소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28-1986
	경 력	195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72-197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역임 1973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1980년 서울조각회 창립, 초대회장 선임 1983-1986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1982-1986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 1986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은관 추서		
	주 소			
	전 화		휴대폰	
	제 목	(한글) 토르소 (한자)		
작 품	제작 년도	1957년		
	재료 기법	나무, 목각		
	규 격	72 × 36 × 22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보존방향	리움 미술관에서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삼성미술관 리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140-89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7-18		
		전 화	02-2014-6900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95	『金世中』 (서문당, 1996) 도록에 실림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토르소>는 1957년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 재직중이던 조각가 김세중이 나무를 깎아 제작한 인체 토르소이다. 이 작품은 1938년 김복진의 <백화>나 1942년 윤효중의 <현명>과 같은 한국 근대기 목조각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대상을 미술가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하는 현대미술로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김세중은 해방이후 배출된 한국 현대조각가 1세대로서 대학에서 아카데미한 인체조각을 학습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주로 교회조각에 참여하여 한국 가톨릭 미술계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1968년 세종로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상> 등 국가의 공공기념물 제작에도 힘썼다. 그러나 개인의 순수조각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7년 <토르소>가 보여주는 개성적인 인체 표현은 순수 조각가로서 김세중의 현대적 감각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작가는 토르소 제작에 있어 골반과 허리, 어깨선을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인체에 생기를 주는 서양의 고전적인 인체표현법인 콘트라포스트를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조각은 팔 다리가 없지만 신체의 강한 운동감을 느끼게 하고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다. 작가 김세중이 서구 근대조각의 전통을 자기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토르소>는 아카데미한 인체조각에서 벗어나 표현적이고 개성적인 형태를 실험하려고 했던 현대 미술가로서 김세중의 작가의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당당하게 테포름 된 신체와 나무를 다루는 능숙한 기술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미학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방이후 제작된 보기 드물게 규모가 큰 목조각으로 근대 김복진, 윤효중으로 이어지는 목조 조각의 전통을 과감하게 현대화하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 작품 사진



25. 송영수 <효> 1957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송영수	호(한글)	
	한 자	宋榮洙	호(한자)	
	영 문	Song, Youngsoo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30-1970
	경 력	1953-56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연속 특선 1957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브뤼셀만국박람회 작품출품 1967년 상파울루비엔날레 작품 출품 1962-1970년 서울대학교 교수		
	주 소	(-)		
	전 화	()	휴대폰	
작 품	제 목	(한글) 효 (한자) 孝		
	제작 년도	1957년		
	재료 기법	철 용접		
	규 격	135 × 19 × 17.5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보존방향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유족소장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전 화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7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출품
2003	철 조각의 선구자 송영수 (경기도 모란미술관)
2010	송영수 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송영수는 한국 용접조각의 대표작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철 용접조각이 도입될 즈음부터 작고할 때까지 일관되게 용접조각을 제작했기 때문이다. <효>는 <부재의 나무>(리움 소장)와 함께 1957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추천작가의 작품으로 출품되었던 작품이다. 송영수는 그 이전까지는 석고나 시멘트와 같은 덩어리 중심의 표현이 가능한 조각재료로 작품을 제작하다가 1957년에 처음으로 철 용접조각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와 같은 공식적인 미술전시회에 출품하였다. 이는 송영수 작가 개인뿐 아니라 한국조각사의 흐름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른 시기에 제작된 철 용접작품이다. 철 용접조각은 6·25 전쟁 이후 완전히 새로운 경향의 조각 기법으로, 전후의 시대적 상황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전통 조각에서는 석고나 돌, 나무 같은 재료로 덩어리 중심의 조각을 제작해 왔지만, 철 용접조각을 통해 덩어리가 아닌 선적 조각 표현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조각에 공간(negative volume) 개념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즉 조각이 덩어리로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정의하고 내포하는 방식으로 나감으로써 조각의 새로운 현대조각 개념을 이끌어냈다.

송영수가 <효>를 제작할 때 사용한 재료인 드럼통 역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 산업용 철재의 주요 공급원은 드럼통이었는데, 당시 젊은 조각가들은 드럼통들을 직접 해체해서 용접 작품을 제작하거나 철공소에서 철판 자투리를 얻어서 철 용접조각을 제작했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1950년대 후반기에 새로운 조각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용접조각 기법이 소개되었고, 모던한 조각 방식을 추구하던 젊은 조각가들이 앞 다투어 용접조각을 시도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철 용접조각 작품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보존되지 않아 1950년대의 현존하는 용접조각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송영수의 <효>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출품했을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공간표현을 중시하는 철 용접조각의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면서 드럼통이라는 재료를 사용한 점 역시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작품 사진



26. 김종영 <전설> 1958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종영	호(한글)	우성
	한 자	金鍾瑛	호(한자)	又誠
	영 문	Kim, Chongyung	학력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5 - 1982
	경 력	1941-1943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소조부 입학과 졸업 1948-198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재직 1953-1980년 국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1955-1965년 서울시문화위원 1959-1961년 문화재보존위원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출품 1976년 예술원회원		
	주 소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3-2 김종영미술관, http://www.kimchongyung.com/		
	전 화	(02) 3217-6484	휴대폰	
	제 목	(한글) 전설 (한자) 傳說		
작 품	제작 년도	1958년		
	재료 기법	철 용접		
	규 격	65x70x77(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김종영 미술관에서 계속해서 소장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김종영미술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53-2 김종영미술관 http://www.kimchongyung.com/		
		전 화	02-3217-6484	휴 대 폰	
		팩 스	02-3217-6483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9	장우성 김종영 2인전 (중앙공보관)
1989	김종영 전 (호암갤러리)
1998	김종영 특별전 그림과 조각 (가나아트 센터)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김종영은 초기에는 사실적인 인체조각을 소조(modeling)기법으로 제작하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는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자연의 형태를 단순화시키는 조각(carving)기법을 구사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철판 자투리를 주워 모아 용접(welding)기법으로 추상적인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전설>은 김종영의 철 용접조각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며 우리나라 초기 철 용접조각의 대표 작품이기도 하다. 철 용접조각은 6·25전쟁 이후 조각의 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에 젊은 작가들 사이 크게 유행하던 조각 방식인데, 당시 전위적이고 모던한 양식으로 인식되던 추상조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재료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구사하던 조각기법이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철을 생산할 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작가들은 고철을 주워 모아서 용접조각을 제작했는데, <전설> 역시 철공소에서 철판을 잘라서 일상의 물건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를 모아서 제작한 것으로, 이 작품에는 이러한 용접조각의 제작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6·25전쟁 후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에 작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전설>은 당시 유행하던 새로운 조각기법과 추상적인 양식은 물론 당시의 경제적인 현실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김종영은 일제강점기에 동경미술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한 후 광복 이후에 현대조각계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특히 국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1948년부터 1980년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대 조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가다. <전설>은 1958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추상적 양식으로 용접조각을 제작하여 1959년에 장우성과의 <2인전>에 출품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추상 용접조각의 길을 제시한 작품으로, 이후 한국 현대조각에서 추상적인 철 용접조각의 유행을 선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김종영의 대표작 중의 한 작품이며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 그리고 제작 당시의 미술적 경향과 경제적 상황을 함축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 작품 사진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贈 金廷宰 權鎭圭 作"
	위 치	뒷면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보존방향	파손의 위험이 있는 테라코타이고 얼굴 마스크 크기의 소품이어서 별도 케이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국립현대미술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427-7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전 화	02-2188-6312	휴 대 폰	
		팩 스	()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8	제4회 一陽會美術展覽會
1965	權鎭圭展 (신문회관, 서울)
1968	權鎭圭展 (日本橋畫廊, 東京)
2009-2010	權鎭圭展 (武藏野美術大學校, 東京; 국립현대미술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작가 생전에 <두상>이라는 명칭으로 전시회에 출품된 테라코타 자소상으로 얼굴 마스크 형태이다. 테라코타와 자소상은 권진규의 작품세계의 특성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며 더구나 이 작품은 일본 유학시절에 제작된 초기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작품은 여러 전시회에 출품된 경력이 있다. 귀국 한 해 전인 1958년에 제4회 一陽會美術展覽會에 출품하였고(一陽賞 수상), 1965년 서울 신문회관 개인전에서는 전시회의 포스터 이미지로 사용되었으며, 1968년 일본 도쿄의 니혼바시 화랑(日本橋畫廊) 개인전에도 전시된 바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애제자 김정재에게 신문회관 개인전 포스터와 함께 주었고(관련 내용이 작품 뒷면에 "贈 金廷宰 權鎮圭 作"이라고 적혀있다), 2010년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김정재로부터 구입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이 마스크와 거의 동일한 테라코타 자소상 1점과 석고 원본이 일본 도시마야스마사 기념관(戸嶋靖昌記念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양 기관 소장의 테라코타 두상들이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다른 원본 틀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의견이 있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1958년 一陽會美術展覽會에 출품되었기 때문에 1958년 혹은 그 이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진규의 테라코타 작업은 1955년경에 시작되었으므로 이 작품은 초기 테라코타의 수준과 양상을 알려주는 기준작이 된다.

여러 번 전시회 출품 경력이 있으며 전시회 포스터에 나올 정도로 작가가 애착을 가졌던 자소상이다. 또한 정신적 교감이 깊어 유서를 남기기까지 했던 애제자 김정재의 소장품이었다는 점도 자료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이다.

○ 작품 사진



28. 김정숙 <누워 있는 여인> 1959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정숙	호(한글)	
	한 자	金貞淑	호(한자)	
	영 문	Kim, Chungsook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조각과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17-1991
	경 력	1953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조각과 1회 졸업 1955년 한미재단 주선으로 미국유학. 미시시피주립대에서 추상조각가 레오 스테파트 (Leo Steppat)교수를 사사함 1956년 Cranbrook Academy of Art 대학원에서 용접조각과 금속공예를 1년간 수학 1957-88년 홍익대학교 조각과 교수 1958년 국제협조처(ICA)의 원조로 두 번째 미국유학 떠남. Cleveland Institute of Art에서 2년간 산업디자인과 에나멜링 수학 1957-91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추천작가·초대작가·심사위원 역임		
	주 소	(-)		
	전 화	()	휴대폰	
	제 목	(한글) 누워있는 여인 (한자)		
작 품	제작 년도	1959년		
	재료 기법	목조		
	규 격	47 × 85 × 30(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김정숙 59
	위 치	뒷면 하단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몸체의 가로로 균열선이 존재. 목조의 성격상 틀어짐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도를 잘 조절하는 상태에서 보관.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국립현대미술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427-7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전 화	02-2188-6312	휴 대 폰	
		팩 스	()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9	제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작품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김정숙은 이화여전 가사과를 다니던 중 결혼과 더불어 자퇴하였다가 1949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 입학하였다. 1953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조각과를 졸업한 최초의 여성조각가로서 최초의 입학생이었던 운영자와 함께 여성 조각가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55년 한미재단 주선으로 미국 미시시피주립대학에서 5개월간 수학하고,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대학원에서 용접조각과 금속공예를 1년간 수학하고 1956년 가을에 귀국하여 이듬해 홍익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용접시설, 철사조각실 등을 신설하여 새로운 조각기법을 가르쳤다. 1958년 여름, 공예과 신설을 위해 미국 국제협조처의 원조로 두 번째 유학을 떠나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에서 1년간 산업디자인과 에나멜링을 수학하고 귀국하였다.

가족을 고국에 두고 유학하는 동안 느꼈던 깊은 외로움은 이 시기의 작품에서 애절이나 생명 같은 소재를 선택하게 한 동기였다. “청동, 대리석, 나무,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강한 직선과 유동적인 곡선의 긴장감 있는 대조를 특징으로 하는 추상조각을 제작하였으며, '사랑', '생명'이라는 주제를 감성적이면서 직관적으로 표현한 작가”라는 평가도 이 시기 작품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1년 동안의 다시 시작된 유학 생활의 외로움과 가족에의 사랑이 이 작품에도 투사되어 있는 것이다.

<누워있는 여인>에 대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 설명문에는 “이 작품은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을 짙은 갈색의 매끄러운 나무를 사용하여 유기적인 형태로 단순하게 변형시켜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편적인 인간애를 바탕으로 내면적 정서를 추상적인 형태를 통하여 표출하던 당시의 추상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 나뭇의 표현양식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청동, 대리석, 석고, 나무 등 <누워있는 여인>을 여러 점 제작하였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이 작품은 누워 있는 여인상 중 가장 초기작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누워있는 여인>상들은 헨리 무어가 추구했던 내부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조각의 존재성을 확대하는 것과 같이 머리를 받친 팔과 몸체 사이나 다리 사이 등 내부에 공간을 표현하는데, 이 작품의 경우는 나무에서 끌어올린 형태가 신체의 들어가고 나옴 등에 의해 여인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1959년 제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자격으로 이 작품을 출품하였음을 사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시기에 제작한 동일명의 작품이 현재 리움 소장품으로 있다. 리움 소장의 작품은 공간이 더 구체적이며 작가의 구성적 의비가 많이 표출된 반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은 나무 천연의 무늬와 형태를 살리면서 형태를 찾아가고 있다. 여성의 신체를 생명성으로 파악하면서, 공간을 흡수하는 조각 이른바 뚫린 조각을 자연스런 형태에서 시작하여 의미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출신 작가가 아니면서 추천작가와 초대작가로 수용된 것은 당시 조각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작가의 역량을 높이 샀던 때문일 것이다. 초기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출품작은 많은 작품이 현전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 작품은 1950년대 후반 수용된 서구조각의 양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오른손을 굽혀 머리를 받치고 모로 누운 여인상은 당시로서는 매우 적극적인 추상의 표현이었다. 눈 정도가 표현된 두부와 간략하게 표현된 몸체는 단순화한 개념적인 형태이지만 풍만한 둔부와 다리의 표현은 서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무의 물질적 요소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체의 풍만함을 볼륨으로 극대화하여 나타낸 작품인 것이다.

6.25전쟁 이후 서구조각은 기법과 재료, 형식에서 직접 수용되었으나 해석에서는 다분히 한국적인 면을 강하게 보여준다. <누워있는 여인>은 분명히 서구에서 유행하는 인체의 표현을 보여주지만 생명성과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고 있다. 작가의 경험이 투사된 가족에 대한 모성적인 사랑이 여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 현대 조각사에서 이러한 형식의 수용과 내용에서 개인적 경험의 표출 혹은 한국적 정서의 표현이란 당시 미술계의 담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 작품 사진



29. 오종욱 <이단자> 1960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오종욱	호(한글)	
	한 자	吳宗旭	호(한자)	
	영 문	Oh, Chongwook	학력	서울대학교 조소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34-1996
	경 력	1959년 제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교부장관상 1960년 제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 1969-1981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1982-1995년 경북대학교 교수		
	주 소	(-)		
	전 화	()	휴대폰	
작 품	제 목	(한글) 이단자 (한자) 異端者		
	제작 년도	1960		
	재료 기법	철 용접		
	규 격	78× 25 × 15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보존방향	보존상태가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국립현대미술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427-7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전 화	02-2188-6312	휴 대 폰	
		팩 스	()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76	오종욱 개인전(신세계미술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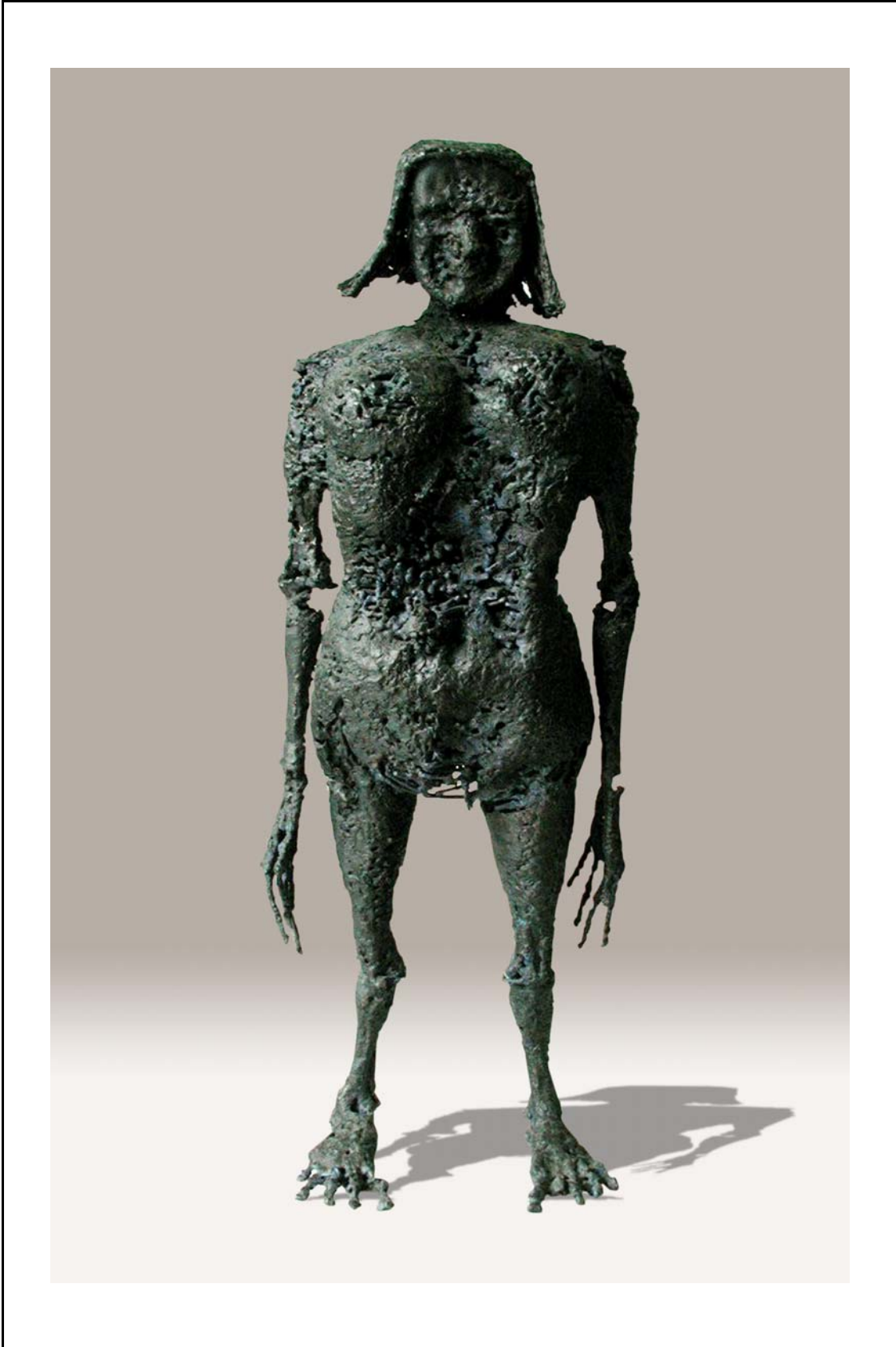
고철과 철사를 녹여 한 점 한 점 집적시켜 형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된 철 용접조각이다. 용접은 흔히 추상적인 양식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기법이지만 이 작품은 구상적인 여성 누드상인 점이 특이하다. 매우 거칠게 용접되어 있어 흔히 여성 누드상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으며 몸통에 비해 가늘고 긴 팔을 갖고 있으며 팔의 중간 부분이 잘릴 듯 간신히 몸에 붙어 있으며 손가락은 앙상한 상태로 엉거주춤하게 서 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자세와 그로테스크한 얼굴 표현, 그리고 불규칙하게 패인 피부의 표현 등은 6·25전쟁에 의한 신체적 상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면서도 전후 사회의 불안과 심리적 상처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인체 혹은 거친 피부는 서구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표현 방식인데, 전쟁의 고통이 느껴지며 나아가 비이성적이고 잔혹한 전쟁의 참상이 느껴진다. <이단자>가 서구의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넘어서 작가가 6·25전쟁을 겪으면서 경험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표현한 것이며 이는 개인을 넘어서 전후 사회의 불안한 정서를 잘 드러낸 시대적 양식이라고 하겠다.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모습은 ‘이단자’라는 작품제목처럼,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상식에 순응하지 못하고 고립해 있는 인간의 모습이며 전후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전후에 물자가 부족하여 개인이 청동주조로 작품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던 고철을 재료로 사용한 점 역시 시대성을 반영한 것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이단자>는 한국미술계에서 앵포르멜 미술이 유행하던 시기의 작품이다. 피부의 거칠고 일그러진 표현은 앵포르멜 회화의 표현적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당시에 유행하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상적으로 인체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어린 나이에 전장에서 충격적인 죽음을 목격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작동하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작품이다. 비정상적인 인체비례, 일그러진 얼굴표정, 패인 피부과 같은 조형적 특징은 물론, 작품의 재료가 되었던 철사토막과 고철은 전후에 물자가 부족하던 시대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 작품 사진



30. 오종욱 <위증인 No.2> 1960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오종욱	호(한글)	
	한 자	吳宗旭	호(한자)	
	영 문	Oh, Chongwook	학력	서울대학교 조소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34-1996
	경 력	1959년 제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교부장관상 1960년 제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 1969-1981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1982-1995년 경북대학교 교수		
	주 소	(-)		
	전 화	()	휴대폰	
	제 목	(한글) 위증인 No. 2 (한자) 僞證人 No. 2		
작 품	제작 년도	1960		
	재료 기법	철 용접		
	규 격	56 × 68 × 23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보존방향	보존상태가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국립현대미술관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427-70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전 화	02-2188-6312	휴 대 폰	
		팩 스	()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2000	한국현대미술의 시원 (국립현대미술관)
2010	한국현대조각의 흐름과 양상 (경남도립미술관)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오종욱은 우리나라 현대조각의 제1세대에 속하는 조각가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전쟁이 발발하자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하여 자신을 구해준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4·19와 5·16을 경험한 세대다. 전장에서 친구 죽음의 목격은 그의 일생동안 트라우마로 작용하였고 그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오종욱의 1950-60년대 용접조각 작품에는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이단자>, <위증인>에서처럼 신체를 왜곡하거나 팔다리가 단절되고 피부가 훼손된 인물상이나 고철을 불규칙하게 조합한 용접조각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고철로 제작한 용접조각은 불규칙하고 표면에 녹이 슬어 신체가 훼손된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증인>은 목과 다리가 절단된 형태로 표현되었 으면서도 양손을 살짝 들고 있는데 증인으로 서 있던 인물이 갑자기 목과 다리가 절단된 듯한 느낌이 있어 비극적 상황이 표현되었다. 전후 사회에서 불안과 불길함,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성찰이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이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위증인>과 같은 작품은 어린 나이에 전장에서 충격적인 죽음을 목격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작동하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작품이다. 목과 다리가 절단되고 피부가 패이고 한쪽 가슴이 훼손된 형상뿐만 아니라 철사토막과 고철을 불규칙하게 이어 붙여 제작한 기법에서 전후의 시대상황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위증인>은 조형적으로나 작품의 재료에서 전후의 어려웠던 현실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 작품 사진



31. 김복진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 1936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복진	호(한글)	정관
	한 자	金復鎭	호(한자)	井觀
	영 문	Kim, Bokjin	학력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01-1940
	경 력	1920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입학, 1925년 졸업 1922년 토월회 조직 1924년 <여인입상> 일본 제국미술원전람회 입상 1925년 <3년전> 조선미술전람회 3등상 수상. 1928년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 일제에 체포 1934년 서대문형무소 만기 출소 1936년 김제 금산사 미륵불 완성		
	주 소			
	전 화			
	제 목	(한글)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 (한자) 金山寺彌勒殿本尊像		
작 품	제작 년도	1936년		
	재료 기법	소조에 도금		
	규 격	높이 11.82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없음
	위 치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종교적 불안물이므로 향과 촛불의 그을음 등에 주의하고 개금시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금산사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577-962)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전 화	063-654-4441	휴 대 폰	
		팩 스	()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35	1935년 12월 조성시작, 1936년 9월 3일 완성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김복진의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은 11미터가 넘는 대형의 장육불상 계열이다. 정면을 향하여 있으며 좌우에는 조선 인조대에 만들어진 협시보살이 있다. 이 상은 1935년 3월 9일 밤, 금산사에서 일어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조각가 김복진이 새로 제작한 것이다. 불상의 모습은 소실된 불상을 참고로 하였고, 제작을 위한 기부금의 조성 및 조력자, 제작비, 소성시기 등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드문 예이다. 즉 1935년 9월 25일 기부금 모집원을 당국에 제출하여 3만 5십 원의 허가금액을 받았지만 곧 예산변경원을 제출하여 10월 27일에 2만 1천 6백원의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실제 모금한 액수는 이보다 더 줄어서 1만 6천여 원이었다. 『금산사지』에는 “주지 황성렬사가 해광 김극인, 삼능 조영찬, 보웅 김시택, 법운 국창용, 내장사 주지 매곡 정봉모, 구암사 주지 일헌 김종렬, 신사 김부곤, 비구니 유지승 등의 조력을 자(藉)하여 가산거사 김수곤 등 대방단가의 시금 1만 6천여 원을 수하여 양공(良工) 김복진에게 명하여 소화 13년(1938) 9월 3일로서 소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936년 7월 5일자 <동아일보>의 <38척의 불상, 김복진 씨 제작중-2백70일 동안 1만 4천원을 들여>라는 기사에서는 제작 기일과 순금 금박 6천 원어치를 포함한 전체 불상의 제작비를 알려주고 있다. 위 두 기록을 비교하여 보면 제작 연도에서 큰 차가 있어 그동안 1938년작으로 알려져 있던 것을, 1935년 12월경 착수하여 1936년 9월 3일 낙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윤범모, 『김복진연구』, 동국대출판부, 2010)은 설득력이 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불상을 제작하는 장면 사진도 게재하고 있어, 사찰측의 오기 내지는 전각 전체의 수비를 마친 때인 1938년작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조불상은 작가 스스로 ‘서울에서 만들었다’고 하였고, 서울에서 만들어서 기차로 운송하여 현지에서 조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정상에는 붉은 색 계주가 표현되어 있으며 머리는 나발이다. 귀는 양쪽으로 늘어져 있으나 긴 편은 아니며 반개한 눈에 근엄한 표정이다. 몸에는 둥근 통견을 둘렀으나 양쪽 가슴이 길게 늘어져 보이고 왼손은 앞으로 들어 보주를 들고, 오른손은 들어 시무외인을 하고 있다. 두 다리는 치마 아래로 윤곽이 드러나 보이고, 아래로 지그재그의 옷주름이 다리 사이를 관통하고 있으며 양손 아래로 내려온 소매의 주름도 지그재그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도상은 파괴되기 전의 불상을 참고로 제작한 것이며, 얼굴 표정과 손가락의 표현 등에서 전통적인 조각과 달리 신식 조각가로서 인체의 특성을 불상에서 구현하는 면을 보인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금산사 미륵불상은 한국 근대기 최초의 조각가인 김복진이 남긴 작품으로 현존작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순수조각이 아닌 종교조각이란 한계가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 불상은 높이가 11m가 넘는 거상으로,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종교조각의 대표적인 예이다. 불상제작이 전문불사에 의해 제작되어 왔던 오랜 전통을 벗어나, 미술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한 비종교인 조각가에게 이 역사적인 불사를 의뢰한 것으로도 종교조각의 근대적 변모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비록 소실 전의 불상 사진을 토대로 충실하게 원안대로 제작했기 때문에 김복진의 창의적인 측면을 보기는 어렵지만 이는 봉안용 종교상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보고 원안에 충실하고 있으나 얼굴 표정이 조금은 어둡고 가슴팍의 근육이 아래로 늘어진 점 등은 일본에서 작가가 불교상을 제작할 때 영향받았던 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당당한 자세나 유려한 선의 흐름, 수직이면서도 유연하게 위로 솟은 듯한 몸체의 율동감 등은 근대조각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손의 표현 등은 전통 불상의 그것과 달라 도상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창작의 힘을 발휘하는 예술가가 조성한 불교상이라는 점에서 또한 근대조각가 김복진의 유존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불상은 소조상으로 제작후 70여 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보존의 필요가 절실하며, 늘 사람들이 왕래하는 법당내에 안치되어 있으므로 보존환경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 작품 사진



32. 김세중 <골롬바와 아그네스> 1954년

○ 작품내역

부 문	☐ 기념조각 ☐ 순수조각 ☒ 종교조각			
작 가	한 글	김세중	호(한글)	
	한 자	金世中	호(한자)	
	영 문	Kim, Sechoong	학력	서울대학교 조소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국 적	대한민국	생존 년도	1928-1986
	경 력	195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72-197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역임 1973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1980년 서울조각회 창립, 초대회장 선임 1983-1986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1982-1986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 1986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은관 추서		
	주 소	(410 - 120)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90		
	전 화	(02) 713-0271	휴대폰	
	제 목	(한글) 골롬바와 아그네스 (한자)		
	제작 년도	1954년		
작 품	재료 기법	석고		
	규 격	184 × 104 × 36.5 (cm)		

○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FRANÇOIS S KIM 1954
	위 치	부조 오른쪽 하단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보존방향	원래 석고에 여러 번 채색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흰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었다. 현재 상태는 양호하나 석고재료인 만큼 습도와 햇빛에 취약하여 유족이 장기간 보존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를 위한 보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 소장처

소장처 (소장자)명	소 장 방 법	연 락 처			
유족소장 (김남조, 부인)	☐ 기증 ☒ 유증 ☐ 구입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90		
		전 화	02-713-0271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 작품 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1954. 10. 5-12	서울 미도파백화점에서 개최된 성모성년 기념 제1회 《聖美術展》에 출품
1954 - 2007	서울 혜화동, 가톨릭 신학대학에 보관 소장
1983 - 1986	김세중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시절, 청동으로 주물되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것으로 추정
2007	2007년 5월 유족과 합의하에 청동으로 복원 제작하여 가톨릭 의과대학 성의회관에 전시. 석고 원본은 유족에게 관리전환

○ 작품설명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 및 의의)

<골롬바와 아그네스>는 1954년 ‘성모성년 기념’ 제1회 《聖美術展》에 출품된 후, 1954년 성신대학(현 가톨릭대학교) 의학부 창립에 즈음하여 기증된 작품이다. 석고로 제작된 이 작품의 기단에는 작가의 세례명인 프란치스코가 프랑스어 FRANÇOIS S KIM으로 음각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제작년도인 1954가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

작품의 모델인 김효임, 김효주 자매는 구한말의 천주교인으로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하였다. 순교 후 두 자매는 1925년 로마 교황청에 의해 복자로 서품되었으며, 1984년에는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김효임과 김효주 자매는 우리나라 가톨릭 미술에서 자주 주제로 다루어졌는데, 1925년 미술가 장발은 성녀들의 시복식을 기념하기 위해 <김골롬바와 아그네스 자매>를 회화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김세중이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은사인 장발의 <김골롬바와 아그네스 자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세중은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간결하게 재구성하여 현대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특히 골롬바는 하늘을, 아그네스는 땅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제작하여 겸허한 순종과 돈독한 믿음의 경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골롬바와 아그네스>는 김세중이 제작한 초기 한국 가톨릭 종교미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서울 혜화동 성신대학에서 보관해 오다가 2007년 가톨릭 성모병원 증축에 따른 소장품 재정비과정에서 발견되었고, 현재는 유족(김남조) 소장으로 그 소유권이 전환되었다. 그 사이 본 석고에서는 총 2개의 청동이 주물되었는데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각각 한 점씩을 소장하고 있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1954년 제작된 김세중의 <골롬바와 아그네스>는 그동안 청동으로만 알려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골롬바와 아그네스>의 석고 원본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본 석고원형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청동 주물을 떠냈으나 그 원형이 격파되지 않고 비교적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 또한 이 작품은 1950년대 활발하게 제작된 교회조각 양식을 대표하고 있어 한국 가톨릭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 작품 사진





6. 결론 및 제언

가. 결 론
나. 제 언



6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 조사 결과의 현황

대한제국기부터 1960년까지 제작된 조각품의 기초 조사를 실행한 결과 현존하는 조각유물 총 146점이 집계되었다. 1차 목록 146점을 대상으로 1, 2차 자문회의를 거쳐서 목록화 추천 후보작 20점을 선별하였다. 이후 자체 조사 및 3차 자문회의를 통해 12점의 작품을 추가하여, 총 32점의 목록화 작품이 선정되었다.

문화재 등록을 위한 목록화 작품 선정 기준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첫째, 역사, 문화, 예술, 사회적 가치가 뛰어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둘째,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 셋째, 예술 사조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진 것을 선별하되 현재 생존하여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은 배제하였고 작품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소품도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는 한 제외시켰다.

146점 중에서 기념조각은 39점, 순수조각 97점, 종교조각이 10점으로 집계되어 순수 조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별로 볼 때에는 한조가 132점, 부조가 14점이다.

파악된 조각품의 시기별 현황은 1930년대 6점, 1940년대 15점, 1950년대 105점, 1960년 20점이다. 이는 근대기 회화 작품에 비해서 조각품의 숫자가 현격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집계이다. 한편 본 조사 연구의 하한선인 1960년에 제작 조각품이 20점으로 집계된 것으로 미루어 1960년 이후에 조각품 제작이 보다 활발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재질별로 분류하면 석고가 17점, 테라코타 6점, 목조 18점, 석조 21점, 철 15점, 그리고 청동이 63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소조와 도자, 혼합재료도 소수이지만 제작이 이루어졌다.

최종 목록화 대상으로 선정된 32점 중 기념조각은 9점, 순수조각이 21점이었다. 최초의 기초 목록에서 기념조각은 전체의 27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최종 목록에서도 28퍼센트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보고서에는 작품의 전면과 측면, 후면 그리고 사인 부분의 세부 사진을 넣어 유물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품의 제작부터 현재 소장상황에 이르는 경위를 조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히 언급하였다. 또한 실사를 통해 작품의 크기를 실측하고 작품 보존 상태 등 현황을 육안으로 점검하여 향후 보존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부 점검 사항은 향후 유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각부문 문화재 등록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작업의 결과물인 본 보고서는 문화재

등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나 박물관과 미술관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에게 데이터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부록 수록

본 보고서와 1차 목록 이외에, 일제강점기 동상 제작 현황, 조선미술전람회 조각 작품 출품 목록,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조각작품 출품 목록, 참고문헌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근대 조각품 제작과 관련한 연표는 근대 조각계의 활동을 일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연표를 대폭 보완하였다. 현존 작품 뿐 아니라 망실작을 아우르는 목록은 향후 근대미술연구와 근대 조각 아카이브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또한 새로운 유물의 발굴시 연대와 작가, 작품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초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

○ 근대기 조각의 근대성을 살펴볼 수 있는 포괄적인 목록 구축

조각은 미술에서 회화와 더불어 중심이 되는 장르이면서도 그 성격상 순수미술작품 뿐 아니라 동상이나 기념물과 같은 공공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조각은 순수 미술 장르인 동시에 역사성 있는 유물로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집계된 1차 조사대상 146점의 수량이 다른 장르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은 근대적 양식의 수용 시기가 회화에 비해 지체되었다는 점, 그리고 매체의 특성상 회화에 비해 작업 공간과 재료 및 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제작 조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고서 작성의 결과물로서 조각품의 수가 적은 것도 한국의 근대사 및 조각 장르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이다.

조사와 심의를 통해 선정된 조각부문 목록은 전통사회에서 근대기로 건너가면서 그 개념과 표현에 큰 변화를 겪은 한국 조각의 근대성을 반영하는 유물들이 중점적으로 선정되었다. 예를 들어, 김경승의 <소년입상>과 윤승욱의 <피리부는 소녀> 김정숙의 <누워있는 여인>, 김종영 <전설>, 송영수의 <효> 등의 조각은 시대마다 새로운 혁신과 실험을 모색해온 한국 조각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복진의 <러들로우상>이나 윤효중의 <최송설당 상>과 같은 근대기 인물 동상은 사회적 합의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근대조각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근대 조각의 출발점을 알리는 김복진의 몇몇 현존하는 불상조각은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신진 조각가들에 의해 불교 조각의 전통이 계승되는 측면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특정 종교의 표상성과 도상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등 전통과 근대의 경계에 선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종교조각과 관련하여 김세중의 <골롬바와 아그네스>는 한국 근현대 조각을 후원하는데 있어서 카톨릭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알려준다. 불교조각과 더불어 현대 사회의 종교 조각으로서 한국근대 조각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 새로운 자료의 발굴

조각은 석고나 나무, 청동과 같은 재료의 문제, 그 크기와 부피로 인하여 다른 어떤 근대기 유물보다 훼손과 망실이 많았다. 특히 청동으로 만들어진 근대기 흉상과 동상들은 식민지 시대 말 전쟁 물자로 공출되어 대부분 사라져 그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 서명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비슷한 이미지의 기념물들이 복수로 제작되거나 시간이 지난 후 재제작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작가명이나 제작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만술의 <해방> 석고 원본, 김복진의 <러들로우상>과 윤효중의 <최송설당 상>, 문신의 <남자 나상>(1954)과, 1960년 차근호의 알려지지 않았던 기마 <화랑상>, 1959년 김경승의 <(경찰)충혼탑>이 확인되었고, 사진으로만 전하던 김종영의 <전몰학도충혼탑>의 청동 부조의 현존과 그 소장처를 밝힐 수 있었다.

개인 소장가나 학교 등에 보존되어 있는 동상과 흉상의 목록도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상당 부분이 보충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작품의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제언

○ 연도와 원본성의 문제

근대기 조각을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조각품의 제작 연도가 잘못 알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제작연도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국 연대가 불확실한 경우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소장가들이 석고 원본을 관리하면서 복제품을 난발하여 조각품의 가치를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복제 상황의 현황 파악에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연구자들은 되도록 원본을 찾아 수록하고, 작품의 소장 경로와 이후의 복제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동안 진행된 현 목록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1960년까지로 한정되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자료의 발굴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 보존의 문제

매체가 석고나 나무, 철 등으로 제작된 근대기 조각품은 이미 상당 작품이 유실되었고, 남아 있는 경우도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 부식과 그을음, 깨짐으로 인해 보존이 시급하다. 특히 석고 원본은 주조를 하는 가운데 불에 그을리거나 격파되어 파손되는 일이 많다. 1960년대 이전 작품의 경우 개인이 보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 지속적인 조사 및 발굴의 필요성

상당수의 작품들이 유실된 상황 하에서도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발굴 결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를 시행한다면 새로운 작품들이 발견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양과 질적 측면에서 매우 빈곤한 상태인 한국근대미술의 유물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품의 발굴 조사에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 기념조각의 이전과 철거에 대한 논의 필요

공공성이 강한 기념조각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파괴나 훼손의 가능성이 많다. 공공 기념조각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속한 공공물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건립과 파괴의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현대 공공기념물들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반달리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 기념조각의 이전과 보존에 있어서는 미술 관계 전문가 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 정부 측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 1960년대 이후 기념조각 목록화의 필요성

공공기념물의 경우는 국가나 사회의 체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실제로 본격적인 기념물은 1960년 이후부터 건립되기 시작되었다. 4.19 민주주의 기념물부터, 민족 위인상, 전쟁기념물 등의 조형물이 세워졌지만, 현재 과거에 제작된 기념조각의 이전과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공공조형물의 수효와 현황 파악을 위한 후속사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 록

1. 1차 조사 작품 현황 및 총 목록(작가순)
 2. 일제강점기 동상제작 목록
 3. 조선미술전람회 조각 부문 입상작 목록
 4.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조각부문 입상작 목록
 5. 참고문헌
 6. 찾아보기
-



1 1차 조사작품 현황 및 총 목록

1. 1차 조사작품 현황

○ 총괄

구분	총괄	기념조각	순수조각	종교조각
점수	146	39	97	10

○ 시기별 분류

구분	총괄	기념조각	순수조각	종교조각
1930년대	6	1	1	4
1940년대	15	2	13	
1950년대	105	31	70	4
1960년	20	5	13	2
합계	146	39	97	10

○ 재질별 분류

구분	석고	테라코타	목조	청동	석조	철	은	소조(흙)	도조	혼합
기념조각				39						
순수조각	14	6	18	20	20	15	1		1	2
종교조각	3			4	1			2		
합계	17	6	18	63	21	15	1	2	1	2

○ 형태별 분류

구분	합계	기념조각	순수조각	종교조각
환조	132	32	95	5
부조	14	7	2	5

○ 소재별 분류

구분	역사인물	종교인물	일반인물(인체)	동물	추상
기념조각	28		9	1	1
순수조각			66	7	24
종교조각		10			
합계	28	10	75	8	25

○ 소장처별 현황

구분		기념조각	순수조각	종교조각
개인소장			20	
유족소장			11	4
작가소장			5	
미술관 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34	1
	김종영미술관		9	
	삼성미술관 리움		11	
	가나아트		1	
	대한민국예술원		1	
	부산시립미술관		2	
	서울대미술관		1	
	홍익대박물관		1	
	하이트문화재단		1	
종교기관(단체)				5
병원		1		
중·고등·대학교		11		
군·경 교육기관		10		
국공립기관(실내)		2		
국공립기관(야외)		13		
기타(방치)		2		
합계		39	97	10

○ 작가별 현황

작 가	총괄	기념조각	순수조각	종교조각
강태성 姜泰成 1927-	1	1		
강홍도 康鴻道 1922-1992	1			1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12		12	
김 경 金 耕 1922-1965	1		1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15	12	3	
김만술 金萬述 1911-1996	4		4	
김복진 金復鎭 1901-1940	5	1		4
김세중 金世中 1928-1986	7		3	4
김영학 金永學 1926-	1		1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10		10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13	1	13	
김찬식 金燦植 1926-1997	1		1	
문 신 文 信 1923-1995	2		2	
문정화 文貞化 1920(?)-?	1	1		
박승구 朴勝龜 1919-1995	2	2		
박칠성 朴七星 1928-	3	3		
백문기 白文基 1927-	6		6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13		12	1
심봉섭 沈鳳燮 1929-2001	2		2	
오종욱 吳宗旭 1934-1994	4		4	
유한원 劉漢元 1919-1963	1		1	
윤승욱 尹承旭 1915-1950?	1		1	
윤영자 尹英子 1924-	2		2	
윤희중 尹孝重 1917-1967	15	9	6	
이국전 李國鎰 1915-?	1		1	
이정갑 李廷甲 1934-	1		1	
전뢰진 田礪鎭 1929-	7		7	
전상범 田相範 1926-1999	1		1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8	6	2	
최만린 崔滿麟 1935-	1		1	
미 상	3	3		
합 계	146	39	97	10

2. 1차 조사작품 총 목록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분	소장처	심의 결과
1 강태성 姜泰成 1927~	세종대왕상	1959년			청동	기념 조각	서울동작구대방동 서울공업고등학교	
2 강홍도 康鴻道 1922~1992	12순교자상	1956년			흙시멘트	종교 조각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 수도회(피정의 집)	
3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마두	1952년경		31.4×64.2×15.6	석조 (안산암)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4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마두B	1953년경		30×27×18	석조 (안산암)	순수 조각	개인소장	
5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기사	1953년		62×65×29	석조 (안산암)	순수 조각	개인소장	선정
6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나부	1953년경		167×63.7×35	석고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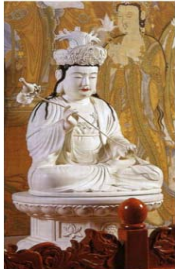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7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나부	1954년		58.4×14×14.6	석조	순수 조각	하이트문화재단	
8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뱀	1954-55년		50×27×21	석조 (안산암)	순수 조각	개인소장	
9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마두	1955년		35×65×20	석조 (안산암)	순수 조각	개인소장	
10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마두	1957년경		9×14.8×5.6	테라코타	순수 조각	개인소장	
11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도모	1957년경		27.4×19.5×24.4	테라코타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12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두상(자소상)	1958년경		27×20×17	테라코타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13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마스크	1960년		22 x 19 x 14.5	테라코타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14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남자입상	1950년대		49x11x11	청동	순수 조각	가나아트	
15 김경 金耕 1922-1965	토르소	1950년대 추정		61x16x14	목조	순수 조각	부산시립미술관	
16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소년입상	1943년		140.5x38x43.4	청동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17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충무공상	1955년		1200x380x380	청동	기념 조각	부산 용두산공원	
18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충무공상	1955년		높이 240cm	청동	기념 조각	통영 남망산 공원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19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기도하는 여인	1956년		99.5x48x54	석고	순수 조각	홍익대학교박물관	
20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육해공군 충혼비	1957년			청동	기념 조각	부산용두산 공원	
21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더글라스 맥아더장군상 (부조포함)	1957년		높이450 너비110	청동	기념 조각	인천자유공원	선정
22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여인 흉상	1958년		67.6x47.5x26	청동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23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경찰총흔탑 조각 -안민상, 호국상	1958년		탑:220x62x60 기단80x62x65 인물상높이172	청동	기념 조각	충남아산 경찰교육원	선정
24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김활란 동상	1958년			청동	기념 조각	이화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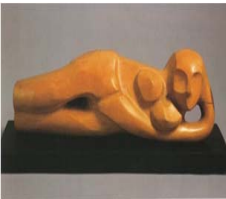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25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김성수 동상	1958년			청동	기념 조각	고려대학교	
26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존 B 쿨터상	1959년			청동	기념 조각	서울 어린이 대공원	
27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이용익 흉상	1959년			청동	기념 조각	고려대학교	
28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손병희 흉상	1959년			청동	기념 조각	고려대학교	
29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안중근상	1959년			청동	기념 조각	광주 상무대	
30 김경승 金景承 1915-1922	벤 폴리트 상	1960년			청동	기념 조각	육군사관학교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31 김만술 金萬述 1911-1996	해방	1947년		70x30x30	석고	순수 조각	개인소장	선정
32 김만술 金萬述 1911-1996	觀城 김선생상	1947년		7x8x21.5	석고	순수 조각	개인소장	
33 김만술 金萬述 1911-1996	역사(力士) I	1959년		380x95x155	청동 (1999년 주조, 원작 시멘트)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34 김만술 金萬述 1911-1996	역사(力士) II	1959년		275x160x170	청동 (1999년 주조, 원작 시멘트)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35 김복진 金復鎭 1901-1940	미륵불	1935년		높이 117	석고에 니금	종교 조각	계룡산신원사 소림원	
36 김복진 金復鎭 1901-1940	미륵불	1935년		높이 117	청동	종교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37 김복진 金復鎭 1901-1940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	1936년		높이 11.82m	소조에 도금	종교 조각	김제 금산사	선정
38 김복진 金復鎭 1901-1940	러들로우 상	1938년		73x64x1.5	청동	기념 조각	신촌 세브란스 병원	선정
39 김복진 金復鎭 1901-1940	관음좌상	1939년		높이 105	석고	종교 조각	충남 예산 정혜사	
40 김세중 金世中 1928-1986	골롬바와 아그 네스	1954년		184x104x36.5	석고	종교 조각	유족소장	선정
41 김세중 金世中 1928-1986	성베네딕트상	1955년		162x56x11	청동	종교 조각	유족소장	
42 김세중 金世中 1928-1986	성모상	1956년		190x50x50	청동	종교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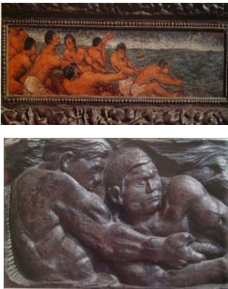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43 김세중 金世中 1928-1986	C씨 상	1956년		30x22x22	청동	순수 조각	유족소장	
44 김세중 金世中 1928-1986	토르소	1957년		72x36x32	목조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선정
45 김세중 金世中 1928-1986	여인입상	1957년		55x22x20	목조	순수 조각	개인소장	
46 김세중 金世中 1928-1986	최후의심판 (부조)	1960년			석조 (화강석)	종교 조각	혜화동 성당	
47 김영학 金永學 1926-	석기이전 (石器以前)	1958년		21x54x41	청동	순수 조각	개인소장	
48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K양	1952년		40x20x20	테라코타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49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K양	1952년		42.5X23X16	테라코타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50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명상	1952년		42.5X23X16	청동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51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엄마와아기	1955년		62.5X22X18.5	청동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52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키스	1956년		57x22x13	석조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선정
53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브론즈를 씌운 선과 유리	1956년		84.5X34.5X30	돌, 유리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54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누워 있는 여인	1959년		47x85x30	목조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55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누워 있는 여인	1959년		28.4 x 103.5 x 29.2	목조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56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엄마와 아기	1960년		38.5X33X17.5	석조 (인조석)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57 김정숙 金貞淑 1917-1991	엄마와 아기	1960년		38.5X33X17.5	석조 (대리석)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58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조모상	1936년 추정		37x20x22	석고	순수 조각	김종영미술관	선정
59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소녀상	1950년대 초반		42x27x22	석고	순수 조각	김종영미술관	선정
60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부인상	1950년대		24.5x16.5x19	석조 (대리석)	순수 조각	김종영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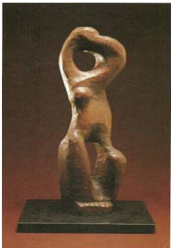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61 김중영 金鍾瑛 1915-1982	여인상	1950년대 후반		50x22x12	석조 (대리석)	순수 조각	김중영미술관	
62 김중영 金鍾瑛 1915-1982	형상(새)	1953년 이전		55.5x9x7	목조	순수 조각	김중영미술관	
63 김중영 金鍾瑛 1915-1982	작품	1950년대		15x9x23	목조	순수 조각	김중영미술관	
64 김중영 金鍾瑛 1915-1982	전몰학도충혼 탑(부조포함)	1957년		탑신높이5.5m 탑신둘레5.4m 기단높이3.3m 기단둘레11.5m 부조:116x40x1.5	청동	기념 조각	포항시북구용흥동(탑) 포항학도의용군승 전기념관(부조)	선정
65 김중영 金鍾瑛 1915-1982	꿈	1958년		67x47x9	청동	순수 조각	김중영미술관	
66 김중영 金鍾瑛 1915-1982	전설	1958년		65x70x77	철	순수 조각	김중영미술관	선정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67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작품58-3	1958년		57x13x22	철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68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작품58-4	1958년		51x24x56.4	철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69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작품58-5	1958년		28x20x40	철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70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작품 58-8	1958년		42x15x36	청동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71 김종영 金鍾瑛 1915-1982	작품	1959년		60x30	목조	순수 조각	김종영미술관	
72 김찬식 金燦植 1926-1997	연인	1958년		50x25	목조	순수 조각	개인소장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73 문신 文信 1923-1995	<고기잡이> 액자	1948년		55.2x181.3x9.7	목조	순수 조각	개인소장	선정
74 문신 文信 1923-1995	남자 나상	1954년		좌대 52x78x58 인물상 52x58x137	시멘트, 회벽토, 콘크리트	순수 조각	개인소장	선정
75 문정화 文貞化 1920(?)~?	이승만동상 (파손)	1950년대			청동	기념 조각	종로구명륜동주택	
76 박승구 朴勝龜 1919-1995	김구 선생 상	1949년			청동	기념 조각	백범 김구 기념관	
77 박승구 朴勝龜 1919-1995	광낙원 여사 상	1949년			청동	기념 조각	백범 김구 기념관	
78 박철성 朴七星 1928-	충렬탑 조각	1955년			청동	기념 조각	춘천시 우두동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79 박칠성 朴七星 1928-	영렬탑 조각	1956년		높이 33.55	청동	기념 조각	대전시 중구 선화동	
80 박칠성 朴七星 1928-	수복기념 모자상	1954년 (1983년 복원)		460x700x255	청동	기념 조각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81 백문기 白文基 1927-	나상	1943년 (추정)		28x6.5x9.5	청동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82 백문기 白文基 1927-	K신부상	1941년		45 x 40 x 42	석고	순수 조각	작가소장	선정
83 백문기 白文基 1927-	L부인상	1949년		29x23x23	청동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84 백문기 白文基 1927-	인상	1958년		52x19x23	청동	순수 조각	작가소장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85 백문기 白文基 1927-	표정	1959년		32 x 10 x 11	목조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86 백문기 白文基 1927-	모자상	1959년		24 x 25 x 21	청동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87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자매	1953년		70 x 30 x 20	석조 (대리석)	순수 조각	개인소장	
88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군상	1954년		68 x 28 x 20	석조 (대리석)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89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가족	1954년		125 x 65 x 40	석고	순수 조각	유족소장	선정
90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부재의 나무	1957년		140 x 40 x 17	철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91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작품-57	1957년 (추정)		58×16×10	목조	순수 조각	유족소장	
92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형상	1957년		112×18×13	철	순수 조각	유족소장	
93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호	1957년		135×19×17.5	철	순수 조각	유족소장	선정
94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기도(신부)	1958년		48×15×13	석고	순수 조각	유족소장	
95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작품59-1	1959년		84×27×11	철	순수 조각	유족소장	
96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작품59-2	1959년		63×32×29	철	순수 조각	유족소장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97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망	1960년		61x23x19	목조	순수 조각	유족소장	
98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성가족	1960년		42x39	청동	종교 조각	유족소장	
99 송영수 宋榮洙 1930-1970	작품60-1	1960년		148x73x50	청동	순수 조각	유족소장	
100 심봉섭 沈鳳燮 1929-2001	토르소	1957년		53x20x20	목조	순수 조각	부산시립미술관	
101 심봉섭 沈鳳燮 1929-2001	인물	1960년		20x15x92	철	순수 조각	개인소장	
102 오종욱 吳宗旭 1934-1994	미망인 No.2	1960년		72x15.5x31X(2)	철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오종욱 103 吳宗旭 1934-1994	위증인 No.2	1960년		56x68x23	철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오종욱 104 吳宗旭 1934-1994	이단자	1960년		78x25x15	철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오종욱 105 吳宗旭 1934-1994	배신자의 딸	1960년		150x60x30	철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유한원 106 劉漢元 1919-1963	정(情)	1959년		116x33x27	청동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윤승욱 107 尹承旭 1915-1950?	피리부는 소녀	1941년		148.8x35x33	석고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윤영자 108 尹英子 1924-	얼굴	1959년		51.5x30x27	청동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윤영자 尹英子 1924-	기다림	1959년		42X32X70	석조 (화강석)	순수 조각	작가소장	
윤희중 尹孝重 1917-1967	아침(물동이를 인 여인)	1940년		125x48x48	목조	순수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	선정
윤희중 尹孝重 1917-1967	백씨 흉상	1941년		높이 59	청동	순수 조각	개인소장	
윤희중 尹孝重 1917-1967	현명(弦鳴)	1942년		165.8x119x36	목조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윤희중 尹孝重 1917-1967	사과를 든 모녀	1940년대		167x105x65	목조	순수 조각	서울대학교미술관	
윤희중 尹孝重 1917-1967	최송실당 상	1950년		동상 173x79x66 좌대 165x82x82	청동	기념 조각	김천중고등학교	선정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115 윤호중 尹孝重 1917-1967	총무공이순신 장군동상	1952년		높이4.8m 폭1.4m	청동	기념 조각	창원시진해구 북원로터리	선정
116 윤호중 尹孝重 1917-1967	지리산 총흔비	1955년		탑높이 750	청동	기념 조각	전북 남원 지리산 북부관리소 관내	
117 윤호중 尹孝重 1917-1967	언더우드 상	1955년			청동	기념 조각	연세대학교 본관 앞	
118 윤호중 尹孝重 1917-1967	이승만두상 (동상부분파손)	1955년			청동	기념 조각	종로구 명륜동 주택	
119 윤호중 尹孝重 1917-1967	엄주익 홍상	1955년			청동	기념 조각	서울 양천구 양정 고등학교	
120 윤호중 尹孝重 1917-1967	합창	1958년		46x16x15 /46x15x13	도자	순수 조각	대한민국 예술원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121 윤효중 尹孝重 1917-1967	화락한 가족	1950년대		47x40x36	석고	순수 조각	개인소장	
122 윤효중 尹孝重 1917-1967	임영신 동상	1959년			청동	기념 조각	서울동작구흑석동 중앙대학교	
123 윤효중 尹孝重 1917-1967	우장춘 흉상	1960년			청동	기념 조각	수원시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124 윤효중 尹孝重 1917-1967	우장춘 부조	1960년			청동	기념 조각	수원시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125 이국전 李國銓 1915-?	월계관을 든 여인 (메달 부조)	1949년		지름 4.4	은	순수 조각	개인소장	
126 이정갑 李廷甲 1934-	옹(湧)	1960년		26x28x78	철	순수 조각	작가소장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전뢰진 田礪鎭 1929~	습작	1954년		65x32x71	석조 (대리석)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전뢰진 田礪鎭 1929~	몽상	1956년		13x30	석조	순수 조각	개인소장	
전뢰진 田礪鎭 1929~	나부	1956년		70x30x25	석조 (대리석)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전뢰진 田礪鎭 1929~	두상	1957년		27x18x19	석조 (화강석)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전뢰진 田礪鎭 1929~	사색	1957년		65x44x72	석조 (화강석)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전뢰진 田礪鎭 1929~	탄금선 (彈琴仙)	1957년		45x33x15	석조	순수 조각	개인소장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133	전뢰진 田穰鎭 1929-	인어	1958년		29.5x45x11	석조 (대리석)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134	전상범 田相範 1926-1999	성장 D	1960년		56x28x46	청동	순수 조각	유족소장	
135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성장 을지문덕상	1953년		350x120x120	청동	기념 조각	전남장성군 상무대육군보병 학교	선정
136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광주학생독립 운동기념탑 (부조포함)	1954년		탑 높이 10.9m	청동	기념 조각	광주 제일고등학교	선정
137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성모상	1956년		85x25x13	석고	순수 조각	국립현대미술관	
138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범무상	1957년			청동	기념 조각	육군사관학교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139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무명용사상	1958년			청동	기념 조각	충남 논산 연무대	
140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화랑상	1960년			청동	기념 조각	육군사관학교	선정
141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호국상	1960년			청동	기념 조각	육군사관학교	
142 차근호 車根鎬 1925-1960	대지	1960년		68x37x34	목조	순수 조각	개인소장	
143 최만린 崔滿麟 1935-	이브	1958년		133x29x43	석고	순수 조각	작가소장	
144 미상	이근석 장군 홍상	1953년			청동	기념 조각	대구 동구 검사동 공군 제3262부대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크기(cm)	재질	부문	소장처	심의 결과
145	미상	강성갑 목사 동상	1954년			청동	기념 조각	경남 진해시 진영 여자중학교	
146	미상	6.25 불멸탑 부조(5점)	1959년 (1972년 증축)	 		청동	기념 조각	육군사관학교	

(이상 146점)

2 일제강점기 동상 제작 목록

번호	설립 연도	동상명	작가	설치장소	비고
1	1927	민영휘 동상	미상 (일본인추정)	휘문학교	1966년 재제작(민복진)
2	1927	大倉남작 동상	미상 (일본인추정)	선린상업학교	
3	1928	언더우드 동상		연희전문학교	1955년 재제작(윤효중)
4	1932	백선행 여사 동상	문석오	평양 백선행기념관	
5	1933	홀 윌리엄 제임스 동상	문석오 추정	평양	
6	1934	岡源 輔 동상	일본인추정	경성 제일고보	
7	1934	백선행 동상	문석오 추정	기백 창덕학교	
8	1934	김기중 동상	朝倉文夫	서울 중앙고보	1966년 재제작(김영중)
9	1935	최송설당 동상	김복진	김천여고	1950년 재제작(윤효중)
10	1935	최상현 동상		강화 합일학교	
11	1935	엄주익 동상	김복진	양정의숙	1956년 재제작(윤효중)
12	1935	香椎源太郎 동상		부산	
13	1936	김울산 동상		대구 북명고	
14	1936	유명래 동상		안악군 명진학교	
15	1936	엄준원 동상		진명여고	
16	1937	윌리엄 동상	김복진	공주 양명학교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
17	1937	손봉상 동상	김복진	개성 인삼신사	
18	1937	방응모 동상	김복진	조선일보사	
19	1937	정봉현 동상	김복진	경성 화산수산소학교	
20	1937	김윤복 동상	김복진	인천 계림자선회	

번호	설립 연도	동상명	작가	설치장소	비고
21	1937	김종익 동상		순천고보	건립추정
22	1937	윤건중 동상		전북 완주 삼례	건립추정
23	1937	송증산 동상		청진	건립추정
24	1937	송병우 동상		전북 익산	건립추정
25	1938	박병열 동상	김복진	충남 당진 신촌수상소학교	
26	1938	한양호 동상	김복진	경성여자상업 학교	
27	1938	러들로우 동상	김복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현존
28	1938	김동길 동상	김복진	연길	
29	1938	齋藤자작 동상		조선총독부 청사	
30	1938	김정혜 여사 동상		개성	건립추정
31	1939	이호신 동상		충북 진천	건립추정
32	1940	다산(박영철) 선생상	김복진		
33	1941	岩淵友次 동상		서울 적십자병원	
34	미상	楠公 동상		인천 창영국민학교	1943년 공출
35	미상	久子 동상		창덕 가정여학교	1943년 공출
36	미상	大山 동상		개성	해군 무관부에 헌납
37	미상	스크랜튼 동상		이화여전	1942년 공출
38	미상	프라이 동상		이화여전	1942년 공출
39	미상	주태경 동상		이화여전	1942년 공출
40	미상	12기의 일본인 동상		각 국민학교	1943년 헌납

※ 표 참고 : 조은정, 「한국 동상조각의 근대이미지」, 『한국근대미술사학』 제9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1.

3 조선미술전람회 조각부문 입상작 목록

회수	번호	작가명	작품명	수상내역	기타사항
제1회 (1922년)	1	稻葉稔	彌勒		
	2	土屋義豊	歸路		
	3	土屋義豊	W君の頭		
	4	五島正一	鷺		
	5	山中壽一	禪祖		
	6	山本貞治	牛	4등상	
	7	江中參九郎	某氏の像		
	8	江中參九郎	女		
	9	寺畑助之丞	Y君の頭		
	10	寺畑助之丞	雪解	4등상	
	11	淺川伯教	雲雀		
제2회 (1923년)	1	花田得郎	鐵ちゃん		
	2	土屋義豊	祈り		
	3	土屋義豊	Yちゃん		
	4	中島八郎介	凝視	4등상	
	5	江中參九郎	ほほかむり		
	6	江中參九郎	かつぎ		
	7	寺畑助之丞	春		
	8	寺畑助之丞	夢	3등상	
	9	淺川伯教	ハラボヂ		
	10	淺川伯教	小兒三相		
제3회 (1924년)	1	花田得郎	少女の顔		
	2	花田得郎	S君		
	3	中川爲延	眼ねる少女の顔		
	4	土屋義豊	少女		
	5	中川忠天	舞妓		
	6	山田嘉一郎	老へる人	4등상	
	7	江中參九郎	マントノ女		
	8	淺川伯教	或美術家	4등상	
	9	寺畑助之丞	T子ノ顔	3등상	
	10	寺畑助之丞	乳		

회수	번호	작가명	작품명	수상내역	기타사항
제4회 (1925년)	1	岩永龍太郎	顔		
	2	土屋義豊	若キ樂人		
	3	山田嘉一郎	或ル女ノ像顔		
	4	전봉래(田鳳來)	髮		
	5	寺畑助之丞	編物する女	3등상	
	6	寺畑助之丞	M子の顔		
	7	김복진(金復鎭)	三年前	3등상	
	8	김복진(金復鎭)	裸体習作		
	9	清水八重治	Y氏		
제5회 (1926년)	1	양희문(梁熙文)	顔		
	2	장기남(張基南)	Wの首		
	3	齋藤健一郎	憩ひ		
	4	渡邊久吉	習作	특선	
	5	山田嘉一郎	或る藝術家		
	6	안규응(安奎應)	平壤婦人		
	7	김복진(金復鎭)	女	특선	무감사
제6회 (1927년)	1	春田忠美	母の像		
	2	장기남(張基南)	白作像		
	3	양희문(梁熙文)	想		
	4	渡邊久吉	習作(母の顔)	특선	
	5	구본웅(具本雄)	首の習作	특선	
	6	안규응(安奎應)	芳閨/春婦		
	7	홍성덕(洪性德)	僕		
	8	佐中滿盛	若者		
제7회 (1928년)	1	戶張幸男	首		
	2	戶張幸男	幻想		
	3	장기남(張基南)	M氏の頭		
	4	竹村雅夫	首		
	5	淺川伯教	鈴木先生	특선	
	6	안규응(安奎應)	尋聲		
	1	岩間義熙	幸ちやんの顔		
	2	장기남(張基南)	男の首		

회수	번호	작가명	작품명	수상내역	기타사항
제8회 (1929년)	3	渡邊久吉	習作女		무감사
	4	渡邊久吉	金氏		무감사
	5	山田嘉一郎	鮎		
	6	문석오(文錫五)	少女の胸像		
	7	戶張幸男	靜夜		
	8	임순무(林淳戊)	S氏の頭像		
	9	임순무(林淳戊)	友の顔		
제9회 (1930년)	1	문석오(文錫五)	立てる女		
	2	戶張幸男	男の習作		
	3	向井敏明	胡歌の聲		
	4	佐藤諒子	習作		
	5	山田嘉一郎	農閑期		
	6	장기남(張基南)	老人の顔		
	7	임순무(林淳戊)	某氏の肖像		
	8	원희연(元希淵)	妹の顔		
	9	渡邊久吉	習作		
	10	渡邊直大	K君の像		
제10회 (1931년)	1	右井時雄	習作		
	2	문석오(文錫五)	小女の胸像		
	3	戶張幸男	男		
	4	渡邊久吉	習作		
	5	원희연(元希淵)	L兄の首		
	6	內田義三	叡知示現		
	7	戶張幸男	聖觀音像		
	8	內田義三	技藝天		
	9	村越安太郎	鼠		
	10	나민규(羅玟奎)	不動尊		
	11	藤田省五	女		
	12	紫田直大	S子の像		
	13	임순무(林淳戊)	岩崎先生		
	14	瀨尾孝正	처녀を被れる女		
	15	村越安太郎	壽老神		

회수	번호	작가명	작품명	수상내역	기타사항
제14회 (1935년)	1	戸張幸男	和陽		
	2	戸張幸男	肉彈三勇士	특선	
	3	戸張幸男	童謠		
	4	이병삼(李炳三)	草摘 に		
	5	川西勝政	習作		
	6	문석오(文錫五)	首		
	7	홍순경(洪淳慶)	受難		
	8	木俣三郎	自刻像		
	9	김두일(金斗一)	胸像習作		
	10	メリ,テイラー	セツパート犬		
	11	紫田直大	藤木重作氏像		
	12	メリ,テイラー	犀		
	13	メリ,テイラー	朝鮮人女子		
제15회 (1936년)	1	内田義三	聖徳太子		
	2	안영숙(安榮淑)	女學生		
	3	한재홍(韓在弘)	自作像		
	4	홍순경(洪淳慶)	Y氏ノ胸像		
	5	김복진(金復鎭)	首		
	6	김복진(金復鎭)	佛像習作		
	7	김두일(金斗一)	少女胸像		
	8	김두일(金斗一)	Tノ胸像		
	9	齋藤春吉	牛		
	10	佐伯輝一	鮮童		
	11	柴田直大	藤木さんの顔		
	12	柴田直大	のりちやんの立像		
	13	寺畑助之丞	母ト子		추천
	14	増田喜八郎	少女		
	15	戸張幸男	土俵の前		무감사
	16	戸張幸男	ほノずり		
	17	戸張幸男	夏	특선	
	18	이병삼(李炳三)	仕事ノ餘暇		
	19	이병삼(李炳三)	バカチの收穫		

회수	번호	작가명	작품명	수상내역	기타사항
	20	이국전(李國銓)	小林氏像		
	21	이국전(李國銓)	老婦		
제16회 (1937년)	1	김복진(金復鎭)	裸婦	특선	
	2	김복진(金復鎭)	韋利岩先生像		
	3	戶張幸男	宜文先生之像	특선/조선총독상	
	4	戶張幸男	舞		무감사
	5	戶張幸男	若人		
	6	寺畑助之亟	岩間		추천
	7	이국전(李國銓)	A氏壽像		
	8	이국전(李國銓)	P女史之像		
	9	장익달(張翼達)	首		
	10	이성화(李聖華)	默		
	11	홍순경(洪淳慶)	水浴		
	12	佐仲三森	少女三人		
	13	안영숙(安榮淑)	制服時代		
	14	김두일(金斗一)	女ノ胸像		
	15	内田義三	邊池		
	16	이병삼(李炳三)	ポミワンネ		
	17	増田喜八郎	首		
	18	紫田直大	赤ちやんの顔		
	19	佐伯輝一	打者		
	20	한재홍(韓在弘)	少年		
	21	김경승(金景承)	K君の首		
	22	현호철(玄鎬喆)	自作像		
제17회 (1938년)	1	윤승욱(尹承旭)	閑日		
	2	김두일(金斗一)	胸像		
	3	김복진(金復鎭)	白花		무감사
	4	김갑수(金甲洙)	自作像		
	5	김정수(金丁秀)	趙君ノ首		
	6	현성각(玄聖珪)	若き女人		
	7	佐仲三森	老へる男		
	8	佐仲三森	胸像		

회수	번호	작가명	작품명	수상내역	기타사항
제17회 (1938년)	9	최동환(崔桐煥)	學徒		
	10	佐伯輝一	ギター-ひく男		
	11	장익달(張翼達)	W嬢像		
	12	戶張幸男	浴後		무감사
	13	戶張幸男	口紅	특선	
	14	中村登一	自像		
제18회 (1939년)	1	戶張幸男	愛國李元夏翁	특선	무감사
	2	주경(朱慶)	靜穩		
	3	채남인(蔡南仁)	李君の首		
	4	김경승(金景承)	S氏像		
	5	中野六郎	セバート		
제19회 (1940년)	1	윤승욱(尹承旭)	或ル女		
	2	戶張幸男	甕ト女	특선	무감사/추천
	3	김경승(金景承)	牧童	특선	무감사
	4	김복진(金復鎭)	少年	특선/조선총독상	추천
	5	김두일(金斗一)	文氏ノ像		
	6	윤효중(尹孝重)	朝		
	7	佐仲三森	自像		
	8	조규봉(曹圭奉)	首	특선/정충조선연맹총재상	
	9	주경(朱慶)	女首		
	10	木俣三郎	習作		
	11	김경승(金景承)	女首		
	12	김복진(金復鎭)	多山先生ノ像		무감사
	13	이국전(李國銓)	胸像		

※ 출처 : 『朝鮮美術展覽會圖錄』, 朝鮮寫眞通信社, 1922~1940, 출품작 목록 참고

4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조각부문 입상작 목록

회수	번호	작가명	작품명	수상내역	기타사항
제1회 (1949년)	1	김경승	裸體習作	추천작가	
	2	김종영	女人坐像	추천작가	
	3	윤희중	生	추천작가	
	4	이국전	胸像	추천작가	
	5	이국전	가을 作品	추천작가	
	6	윤승욱	(불출품)	추천작가	
	7	박승구	聖觀音像	문교부장관상	
	8	백문기	L夫人	특선	
	9	김세중	靑年	특선	
	10	김만술	少女首	특선	
제2회 (1953년)	1	김종영	새	추천작가	
	2	윤희중	希望	추천작가	
	3	윤희중	拉致	추천작가	
	4	장기은	思索	문교부장관상	
	5	송영수	希望	특선	
	6	윤영자	愛情	특선	
제3회 (1954년)	7	김종영	이브	추천작가	
	8	윤희중	십자가	추천작가	
	9	윤희중	피리	추천작가	
	10	김경승	思索	추천작가	
	11	윤영자	女人像	문교부장관상	

회수	번호	작가명	작품명	수상내역	기타사항
	12	송영수	家族	특선	
제4회 (1955년)	1	윤효중	風神	초대작가	
	2	김경승	平和	초대작가	
	3	김종영	(불출품)	초대작가	
	4	김찬식	作品 A	문교부장관상	
	5	오순일	少年	특선	
	6	전뢰진	頭像	특선	
	7	송영수	樂器 가진 女人	특선	무감사
	8	윤영자	젊은이	특선	무감사
제5회 (1956년)	1	윤효중	野生	초대작가	
	2	김경승	愛	초대작가	
	3	김경승	夢		
	4	김종영	(불출품)	초대작가	
	5	배형식	歸路	부통령상	
	6	최기원	항아리를 든 女人	문교부장관상	
	7	전뢰진	仙童	특선	
	8	윤영자	얼굴	특선	
	9	김찬식	女人像	특선	
	10	송영수	響	특선	무감사
제6회 (1957년)	1	김종영	黃昏	초대작가	
	2	윤효중	봄	초대작가	
	3	김경승	더글러스맥아더將軍像	초대작가	

회수	번호	작가명	작품명	수상내역	기타사항
제6회 (1957년)	4	김경승	仁川上陸	초대작가	
	5	윤영자	女人	추천작가	
	6	송영수	不在의 나무	추천작가	
	7	송영수	曉	추천작가	
	8	김정숙	作品	추천작가	
	9	김정숙	女人頭像	추천작가	
	10	전뢰진	頭像	문교부장관상	
	11	정정희	젊은 女人	특선	
	12	최만린	어머니와 아들	특선	
	13	최찬식	항아리를 인 女人	특선	무감사
	14	배형식	懊	특선	
	15	최기원	바이올린을 켜는 女人	특선	무감사
제7회 (1958년)	1	김종영	小立像	초대작가	
	2	윤희중	합창	초대작가	
	3	윤희중	A·B	초대작가	
	4	김경승	靜	초대작가	
	5	윤영자	바람	추천작가	
	6	송영수	形像	추천작가	
	7	김정숙	작품	추천작가	
	8	김세중	희망	추천작가	
	9	김세중	모자상	추천작가	
	10	김세중	포즈	추천작가	

회수	번호	작가명	작품명	수상내역	기타사항
제7회 (1958년)	11	김영중	장갑 낀 여인	문교부장관상	
	12	김윤신	아침	특선	
	13	최일단	아침	특선	
	14	최기원	피리 부는 여인	특선	무감사
	15	최만린	이브	특선	무감사
제8회 (1959년)	1	김종영	여인입상	초대작가	
	2	윤희중	춤	초대작가	
	3	김경승	입상	초대작가	
	4	윤영자	애무	추천작가	
	5	김정숙	누워있는 여인	추천작가	
	6	김세중	성모	추천작가	
	7	송영수	책의 공포	추천작가	
	8	오종욱	패배자	문교부장관상	
	9	최병상	대지	특선	
	10	최기원	바이올린을 켜는 여인	특선	무감사
제9회 (1960년)	1	김경승	여인의 胸像	초대작가	
	2	김종영	近郊	초대작가	
	3	윤희중	(불출품)	초대작가	
	4	최기원	귀로	추천작가	
	5	최기원	아침	추천작가	
	6	김정숙	母子	추천작가	
	7	김세중	얼굴	추천작가	

회수	번호	작가명	작품명	수상내역	기타사항
제9회 (1960년)	8	김세중	聖 베네딕트	추천작가	
	9	송영수	달밤	추천작가	
	10	윤영자	작품	추천작가	
	11	최종태	서 있는 여인	문교부장관상	
	12	오종욱	背信者の 딸	특선	
	13	김봉구	秋心	특선	
	14	이종각	하품하는 女人	특선	
	15	조성묵	作品	특선	
	16	최의순	숲의 회상	특선	

※ 출전 : 한국근대미술연구소 편, 『국전 30년』, 수문서관, 1981 중 제1회(1949)~제9회(1960) 입선작 중 특선 이상 작품 목록 참고

5 참고문헌

○ 도록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사-조각』, 1974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를 보는 눈 : 조소』, 삶과 꿈, 1999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의 전개:전환과 역동의 시대』, 2001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의 시원』, 2001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조각의 선구자 김종영』, 2005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조각의 선구자 김종영』, 2005
 국립현대미술관, 『권진규』, 2010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추상 철조각의 선구자, 송영수』, 2010
 국립현대미술관, 『자라나는 날개, 김정숙』, 2011
 김종영미술관, 『김종영 인생, 예술, 사랑』, 2002
 김세중기념사업회, 『김세중』, 서문당, 1996
 문교부, 『국전도록』, 1957(6회), 1959(8회), 1960(9회)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 조선과 전쟁미술』, 2004
 모란미술관, 『거친 쇠붙이에 깃든 영혼, 철조각의 선구자 송영수』, 모란미술관 엮음, 아트북스, 2003
 모란미술관, 『오늘의 한국조각'을 중심으로』, 모란미술관, 2004
 조선미술전람회 편, 『조선미술전람회 도록』, 조선사진통신사, 1922-1940
 하이트문화재단, 『탈주-권진규』, 2010.

○ 단행본

- 김영나, 『20세기의 한국미술』, 예경, 1998
 김영나 외 지음, 『조각가 김세중』, 2006, 현암사
 김영나, 『20세기의 한국미술 2』, 예경, 2010
 김윤수 외 57인 지음, 『한국미술 100년』, 한길사, 2006
 김이순, 『한국의 근현대미술』, 조형교육, 1997
 김이순,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전후의 용접조각』, 혜안, 2005
 김정숙, 『반달처럼 살다 날개되어 날아간 예술가』, 열화당, 2001
 윤범모, 『한국근대미술의 형성』, 미진사, 1988
 윤범모 · 최열 엮음, 『김복진 전집』, 청년사, 1995

- 윤범모, 『김복진 연구 : 일제 강점하 조소예술과 문예운동』, 동국대출판부, 2010
- 이경성, 『現代韓國美術의 狀況』, 一志社 1978
- 이경성, 『(속)近代韓國美術家論攷』, 一志社, 1989
- 이경성 외 지음, 『김복진의 예술세계』, 열과 알, 2001
- 이구열, 『近代韓國美術史의 研究』, 미진사, 1992
-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 조은정, 『한국조각미의 발견』, 대원사, 1997
- 조은정, 『흙을 구운 조각가 권진규』, 나무숲, 2003
- 최열, 『김복진, 힘의 미학』, 도서출판 재원, 1995
- 최열, 『한국근대미술 비평사』, 열화당, 2001
- 최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 최태만, 『한국 현대조각사연구』, 아트북스, 2007
- 한국근대미술연구소 편, 『국전 30년』, 수문서관, 1981
- 한국미술평론가 협회, 『韓國現代美術의 形成과 批評』, 미진사, 1985

○ 논문

- 김미정, 「1950·1960년대 한국전쟁기념물」,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0집, 2002
- 김미정,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전쟁의 기억」, 『월간미술』 6월호, 2004
- 김미정, 「한국의 전쟁기념물 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전쟁의 기억, 역사와 문학』, 월인, 2005
- 김미정, 「한국 산업화시대의 유토피아적 비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0집, 2009
- 김미정, 「1960-70년대 한국의 公共미술 : 박정희 시대 공공기념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이순, 「송영수의 용접조각」, 『한국근대미술사학』 제8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0
- 김이순, 「순수성과 영원성을 빚어낸 조각가 권진규」, 권행가 외 지음, 『시대의 눈』, 학고재, 2001
- 김이순, 「전후의 용접조각」,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김이순, 「한국전과 가족 이미지: 가족해체와 복원의 사이」, 『미술사연구』 제19집, 2005
- 김이순, 「洪陵과 裕陵의 석물조각」, 『미술사연구』 제21집, 2007
- 김정희, 「1950-60년대 한국 생명주의 조각의 제 특성」,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3호, 1999
- 김정희, 「한국 추상조각의 출현과 전개, 1950-1960」, 『조형』 제18호, 1995

- 박계리, 「충무공동상과 국가이데올로기」,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4집, 2004
- 박미화, 「1950-60년대 한국 조각의 전개와 특성」, 『현대미술관 연구』 제9호, 1998
- 심정수, 「현대 한국기념조각상에 관한 연구-서울지역의 선열조각상을 중심으로」
- 윤범모, 「紀念彫刻, 그 문제성의 안팎:全國320여 모뉴먼트의 實態」, 『계간미술』 봄호, 1980
- 윤범모, 「김복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 이경성, 「한국 조각의 근대적 과정」, 『홍대논총』 제2호, 1970
- 이주원, 「동아시아 근대조각의 전개와 인물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조은정, 「한국 동상조각의 근대이미지」, 『한국근대미술사학』 제9집, 2001
- 조은정, 「대한민국 제 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6 찾아보기

(숫자는 해당 페이지)

○ 작가별

- 권진규(權鎭圭) 118, 122, 150
- 김정승(金景承) 66, 74, 102
- 김만술(金萬述) 106
- 김복진(金復鎭) 46, 166
- 김세중(金世中) 138, 170
- 김정숙(金貞淑) 134, 154
- 김종영(金鍾英) 70, 82, 114, 146
- 문 신(文 信) 110, 126
- 백문기(白文基) 94
- 송영수(宋榮洙) 130, 142
- 오종욱(吳宗旭) 158, 162
- 윤승욱(尹承旭) 90
- 윤효중(尹孝重) 50, 54, 86, 98
- 차근호(車根鎬) 58, 62, 78

○ 연대별

- 1930년대 46, 82, 166
- 1940년대 86, 90, 94, 98, 102, 106, 110
- 1950년대 50, 54, 58, 62, 66, 70, 74, 114, 118, 122, 126, 130, 134, 138, 142, 146, 150, 154, 170
- 1960년 78, 158, 162

○ 재료별

- 석고 82, 90, 94, 106, 114, 122, 130, 170
- 목조 86, 98, 110, 138, 154
- 테라코타 150
- 청동 46, 50, 54, 58, 62, 66, 70, 74, 78, 102
- 석조 118, 134
- 철 142, 146, 158, 162
- 소조 166
- 혼합재료 126

○ 소재별

- 역사인물 46, 50, 54, 58, 62, 66, 78
- 종교인물 166, 170
- 일반인물(인체) 74, 82, 86, 90, 94, 98, 102, 106, 110, 114, 122, 126, 130, 134, 138, 150, 154, 158, 162
- 동물 70, 118
- 추상 142, 146

근대문화유산 조각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

조사기관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발행처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http://www.cha.go.kr>

발행일 : 2011년 9월